

烏南八景

附舊保寧八景·新十景賦

大川文化院 刊行

# 烏南八景

附舊保寧八景·新十景賦

大川文化院 刊行





# 烏南八景

大川文化院 刊行

附舊保寧八景・新十景賦





# 目次

□ 發刊辭	△大川文化院長 尹源錫	i
□ 祝辭	△國會議員 金龍煥	iv
□ 祝辭	△保寧市長 金鶴顯	vi
□ 譯者序文	△盧承奭	viii
□ 烏南八景小序		一
○ 蠶頭曉月		六
○ 牛峴暮雲		三二
○ 黃龍朝雨		五八
○ 玉溪落照		八四
○ 鞍峙歸笛		一一〇
○ 石遇雪竹		一三六
○ 聖住遠鍾		一六二
○ 月山飛瀑		一八八
○ 烏南全景		二一四
□ 新增東國輿地乘覽		二一八
○ 保寧題詠		二一八
○ 藍浦題詠		二一九
○ 保寧永保堂憑虛堂		二二〇
○ 周浦高巒謫吟		二二五
□ 保寧八景		二二六
□ 保寧十景賦		二三〇

## 發 刊 辭



우리나라는 錦繡江山이다. 어느山河이든 비단같이 아늑한 곳이 있  
으랴만 特히 이 고장 保寧은 빼어난 風景과 歷史가 말해주듯이 可히  
자랑할 수 있기에 學者나 詩人墨客들이 일찌기 保寧地方을 萬世之榮  
華之地라고 하여 代名詞를 萬世保寧이라고 命名하였는가 한다.

이곳의 地勢는 五台山의 分岐로 車嶺山의 連脈에 烏棲、聖住、峨嵋、月山 등 代表的  
인 名山이 盆地와 丘陵으로 이루어진 地形이다. 이러하여 烏聖之間에 可活萬人이라고  
하였고 天然的으로 山紫水明하고 廣濶한 農土와 거울같이 맑은 黃海에는 七十餘個의  
群小島嶼가 漁港으로 盛業하고 있고 山에는 森林이 鬱鬱蒼蒼하고 珠玉같은 藍浦烏石을  
비롯 多種의 石材、無煙炭 등 地下資源이 豊富하여 그야말로 魚鹽柴水가 좋고 保寧人  
답게 人心이 醇厚하여 살기 좋은 故場이다. 그뿐이라 管内에는 遺蹟 古蹟 古刹과 아울러  
러 前近世에 出衆한 수많은 人物들이 輩出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옛 詩人墨客  
들이 당시 保寧八景이란 題下에 詩로 읊은 詩句를 郡誌 또는 大川文化院에서 發刊하는  
「愛鄉」誌에 轉載한 바도 있으나 아직도 潛在하고 埋藏되어 있는 史料들을 發掘하고자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던 중 近者에 儒林 金世烈先生님이 先祖께서 所藏한 烏南八景이란 詩集을 提供하여 주셔서 점은 漢學 碩學者 盧承奭氏에게 翻譯을 依頼하는 등 出版費도 없이 가진 刻本끝에 別冊으로 刊行한 것이다.

이 詩集은 隣郡各處에서도 學者詩人 數十名들이 風致있고 景觀이 좋은 山水를 찾아다니면서 現地에서 卽興的으로 떠오른 詩想을 詩로 表現한 것으로 보아진다. 作家들의 姓銜은 譯者序文에 明記하였다.

作家어른들의 後裔들께서도 大光榮이라 여기실 줄 믿는다.

아무쪼록 누구시든 하나의 家寶格으로 所重히 保管하시고 愛讀吟咏하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西紀 一九九五年(乙亥) 七月 日

編 刊 大川文化院長 尹 源 錫

## 祝

## 辭



이번 大川文化院에서 漢詩集 『烏南八景』을 翻譯하여 出刊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옛부터 우리 고장은 맑고 아름다운 山水가 秀麗한 佳景을 이루어  
萬世保寧이라고 불리워 왔습니다。

특히 烏棲山 南쪽 一帶의 빼어난 景觀은 烏南八景이라 이름하여 庇仁八景과 雙壁을  
이루고 神祕롭고 高尚한 韻致와 은은함이 八景의 으뜸인 中國洞庭湖의 瀟湘八景을 仿  
佛케 한다고 讚嘆을 받아왔습니다。

物質文明의 騷亂에 묻혀 鄉土의 아름다운 風光들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때, 우리 고장의 絶勝烏南八景을 노래한 옛 漢詩集을 쉽게 우리말로 翻譯, 出刊하게  
된것은 우리 고장의 自然風景의 秀麗한 모습을 그대로 오늘에 再顯하여 우리 後學들이  
자랑스럽게 耽美할 수 있는 所重한 機會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孤高한 뜻을 품고 草野에 묻혀 悠悠히 山水를 벗삼아 詩興에 잠길 수  
있었던 先代隱士·逸民들의 餘裕로움과 超脫한 生活哲學은 緊張속에 躁急하고 寧日없이  
살아가는 오늘의 現代人에게 示唆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孔聖께서도 “詩란 마음을 펼쳐 일으키게 하고 事物을 깊이 살피게 하며 사람들과의 關係를 圓滿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怨望도 妙味있게 나타낼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고장 많은 분들께서 이 詩集을 愛讀하고 保寧人의 보람과 矜持를 갖고 보다 純全한 社會氣風을 振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詩集出版을 主幹해 오신 大川文化院 尹源錫院長님과 翻譯에 애쓰신 盧承奭先生님, 그리고 先祖께서 고히 所藏해 오신 詩集을 提供해 주신 金世烈先生님께 深甚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一九九五年 七月 日

自由民主聯合 保寧市地區黨 委員長 國會議員 金 龍 煥

## 祝 刊 辭



鄉土文化의 發掘과 育成・保存에 情熱을 쏟아오고 있는 우리 大川文化院이 『烏南八景』이라는 先人들의 詩想이 담긴 詩集을 發刊하므로서 하마터면 묻혀버릴 뻔했던 貴重한 資料가 햇빛을 보는 凱歌를 올렸습니다。

이번 詩集은 儒林 金世烈 先生님이 所藏한 原本을 提供하시고, 大川文化院의 어려운 財政 形便에도 尹源錫 院長님의 勇斷으로 出刊을 決定、점음은 漢學碩學者 盧承奭氏가 解譯을 맡아서 發刊하게 된 참으로 어려운 與件속에서 刻苦의 努力으로 얻어낸 結晶體입니다。

먼저, 詩集發刊을 十三萬 市民과 더불어 眞心으로 祝賀하오며, 그동안 애써오신 尹源錫 大川文化院長님을 비롯한 關係人士여러분의 勞苦에 對하여도 衷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保寧은 山과 들, 바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自然을 갖추고 있으며, 예로부터 문 詩人 墨客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珠玉같은 作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햇빛을 보게 된 『烏南八景』은 이러한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自然을 讚美하고 當時의 生活과 思想들을 赤裸裸하게 描寫한 漢詩의 集大成으로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큰 감명을 줄 것이며, 앞날을 슬기롭게 開拓해 나가는 敎訓을 줄 것입니다.

또한, 西海岸의 알프스인 烏棲山의 西南地域인 우리 保寧을 中心으로 隣近의 洪城、靑陽、扶餘 一部 地域까지 包含된 保寧中心圈文化의 面貌를 再照明할 수 있는 값진 資料가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保寧이 西海岸時代를 이끌어 나가는 中心的 役割을 克明하게 다지는 契機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江湖 諸賢들의 큰 關心속에 『烏南八景』이 完結되고, 鄉土文化 暢達에 디딤돌이 되기를 期待해 보면서, 大川文化院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一九九五年 七月 日

保寧市長 金 鶴 顯



## 譯者序文

大抵勝地江山은 百代造化翁의 彫塑物이다.

海東의 佳景은 山河襟帶의 많은 流形을 통해 자못 探賞할 수 있지만, 勝地의 八景을 豐備한 詩仙의 遊覽地는 古來로 드문 大自然의 地上 結晶物임을 알 수 있다.

烏棲山은 洪城에서 南方十八里、結城에서 東方二十八里、保寧에서 北方七十里에 山脈의 本支를 두고 있고, 이 山의 南方一帶는 繡麗한 八景을 이루었기에 「烏南八景」이라 한 것이다. 이 곳은 徐居正 先生이 題詠한 庇仁八景(微茫大海、隱映小島、重重蜃樓、點點螺髻、芑營戍鼓、煙浦歸帆、松坪秋月、觀寺暮鍾)과도 함께 雙璧을 이루고 있다.

八景의 泰斗는 本來 中國 湖南省 洞庭湖 南岸의 瀟湘八景(江天暮雪、瀟湘夜雨、山市晴嵐、遠浦歸帆、煙寺晚鍾、平沙落雁、漁村夕照、洞庭秋月)인데, 이에 對한 詩客의 懷吟詩도 많았으니, 실로 烏南八景의 神韻縹渺한 景觀은 이를 彷彿케 한다.

일찌기 烏南地方에서 先代 隱士·逸民들은 이 곳 八景에 對한 詩興을 同題同韻의 七言律詩로 노래하였는데, 譯者는 그 遺文을 말아 淺學한 見聞을 무릅쓰고 翻譯하게 되었다. 이에 先人의 形而上學的 煙霞痼疾의 深趣를 心讀하여 그 自然愛賞의 深奧한 境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遺文의 難澁한 文句에 있어 多少 未洽한 註解가 있지만, 오직 《漢·唐詩詞典故》를 參考하여 出典·背景을 밝힘으로써 妄解를 피하고, 文章의 本意를 밝혀 당시 騷客의 詩的

情感을 살리고자 하였다. 이는 遠近人의 烏南八景에 對한 愛賞은 勿論、先人의 清雅한 詩想에 同化하면서 吟咏幽賞의 情趣를 느끼게 하고자 한 意圖인 것이다.

본 詩集의 著者로는 晚圃先生、石農先生、三寓 嚴琦燮先生、石樵 廉先生、三隱 李明烈先生(靑蘿 香泉里 住)、松溪 李圭祥先生(保寧郡 大川面 蓼庵里 住)、杞泉 金博士(保寧郡 珠山面 住)、樵山 金東軾先生(洪城郡 洪東面 花新里 住)、朴昌和先生(洪城郡 長谷面 智鼎里 住)、松菴 趙先生(保寧郡 嶺山面 勒田里 住)、金致萬先生(保寧郡 熊川面 冠堂里 住)、晚溪 沈先生(靑陽郡 化城面 山亭里 住)、華崖 徐先生(靑陽郡 化城面 山亭里 住)、肖巖 蔡先生(靑陽郡 化城面 九在里 住)、澗清 李教憲先生(扶餘郡 外山面 獐項里 住)、梅石 黃先生、南睡 韓廷履先生、晦誠堂 朱基完先生(洪城郡 洪東面 雲月里 住)、屏巖 申禮湜先生(保寧郡 鰲川面 烏浦里)、月潭 申大湜先生、梅下 蔡先生(洪城郡 長谷面 智鼎里 住)、漁隱 韓允錫先生(保寧郡 周浦面 新垈里 住)、槐軒 徐承億先生(洪城郡 龜項面 住)、小青 李善秀先生、松園 金在燮先生 등이 筆趣를 남겨 後代에 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翻譯事를 譯者에게 付託하신 江石 尹源錫 文化院長님의 崇高하신 愛鄉精神에 鞠躬의 敬意를 表하며、愛鄉이 民族愛의 嚆矢임을 自覺한 채 앞으로 이 詩集에 對한 江湖 諸賢의 愛讀과 叱正을 바랍니다.

乙亥年 三月 斗柄指東之際

譯者 盧 承 奭 識



## 烏南八景小序

夫飯美物也、

土則惡之矣、

羹美膳也、塵則棄之矣。

奚獨土塵之於飯羹也

宜乎、嶺月川雲山雨

返照非其時則棄之、

吹笛脩竹落鍾飛瀑、非其景則惡焉、

而古而今覽物者之情性也。

噫、洪陽治之南望、

若蔚然而深秀者、烏棲也。

대저 밥이란 좋은 음식인데

흙이 들어가게 됨을 꺼려하게 될 것이고、

구도 또한 좋은 반찬인데 먼지가 묻들어 가게 할 것이다。

어찌 다만 밥이나 국에 있어서 만이 흙이나 먼지를 꺼려하고 못들어 가게 해야만 할 것인가!

好惡取舍(호오취사)의 다른 예로서 볼 수 있는데、즉 산봉우리위의 달、넋가위 흙어진 구름、산속에 내리는 비

황혼녘의 햇빛 등이 모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때가 아니면 무관심해질 것이다。

피리부는 모습、무성한 대나무、울려퍼지는 종소리、나는듯한 폭포 등 자연의 배경이 아니면 또한 꺼려질 것이다。

이는古今을 통하여 사물을 관찰하는 이들의 감정과 본성에 의한發露된 현상들이니 것이다。

아아! 洪陽땅의 잘 가꾸어진 남쪽 전망을 보면

무성하고도 秀麗한 곳이 烏棲山이다。

2 其十二峰中、

維石巖巖而岨畧者、

蠶頭蠶頭峰名以蠶頭曉月、

爲烏南之第一景。

左有牛峴亭亭、

暮雲如車如蓋、

以牛峴暮雲、爲二景。

下有黃谷龍頭黃谷龍頭村名

數三井落、而牛峴歸雲、

常釀朝雨、以黃龍朝雨、爲三景。

黃龍之外、有玉溪激灩

그 열두봉우리 가운데

바위가 울퉁불퉁하고 험준한 곳이

蠶頭峰(잡두봉)인데, 蠶頭峰(잡두봉)위에 떠 있는 새벽달 경치를

烏棲山(오서산) 남쪽땅의 제일가는 絶景으로 삼았다.

남방의편으로 우뚝 솟은 牛峴山(우현산)이 있는데

해질녘 구름경치는 수레의 日傘(일산)과 같아

牛峴山(우현산)의 해질녘 구름경치로서 두번째 가는 경치로 삼았다.

남방 좌편 아래로 黃谷龍頭村(황곡용두촌)이 있어

그 주위로 세 부락이 함께 하고 있는데, 牛峴山(우현산)위의 또는 구름이

언제나 아침나절 비를 내리게 하는지라 黃谷龍頭村(황곡용두촌)의 아침비로서 세번째 경치로 삼았다.

黃龍村(황용촌) 밖으로는 맑게 출렁거리는 玉溪(옥계)가 있는데

落照、恍若金輪之落赤  
波、

以玉溪落照、爲四景。

玉溪之西有鞍峙

鞍峙  
峴名

歸芻下蕘摘葉、

吹笛聲若怨慕、

曲如泣訴、以鞍峙歸  
笛、爲五景。

石隅

石隅  
洞名

則石溪之隅

最多脩竹、夏之暴

冬之密雪、聲若瀑然碎

以石隅雪竹、爲六景。

石隅之南、有聖住

聖住  
山名

無量  
寺名 已矣、

이곳에 떨어지는 저녁 노을 빛은 황홀하여 마치 황금빛 車輪(차  
륜)이 붉은 파도물결에 떨어지는 듯하니

玉溪(옥계)의 落照(낙조)로서 네번째 경치로 삼았다.

玉溪의 서쪽에는 鞍峙(안치) 고개가 있는데,

꿀을 베고 나무하고 낙엽추우며,

피리부는 소리는 마치 원망하기도 사모하기도 하는 듯하고,

부는 곡조는 하소연 하는 듯 한지라, 鞍峙(안치) 고개에서 피리블며  
가는 이의 모습으로 다섯번째 경치로 삼았다.

石隅洞(석우동)은 石溪의 벼루리에 있어

무성한 대나무가 많은데 여름에는 폭우가 내리고,

겨울에는 짙은 눈 내리며, 그런 소리들을 물결이는 듯 부딪치는 듯하니,

石隅洞(석우동)의 雪竹(설죽)으로서 여섯번째 경치로 삼았다.

石隅洞의 남쪽으로 聖住山(성주산),

無量寺(무량사)가 있음을 따름인데

白雲

菴名 白雲

不遠曉落遠鍾

鍾警醒衆生、以聖住  
遠鍾、爲七景。

聖住之東、有月山、

月山之上、有瀑布飛  
珠落琉、

直下千尺 以月山飛  
瀑爲八景。

景則時有不同、而覽物  
之情。

豈若飯羹之有土塵  
也。

必似飢者之易食、

渴者之易飲、

故因悉次是景以冠其  
諸彥瓊章云爾。

歲在丁卯仲秋上浣

金憲洙序

白雲菴子(백운암자) 새벽녘에 멀리있는 종소리 가깝게 들려

衆生(중생)들 깨우치니、聖住山의 遠鍾으로서 일곱번째 경치로 삼  
았다。

聖住山의 동쪽으로 月山이 있는데、

月山의 위에는 구슬방울같은 폭포가

千尺 높이 아래로 흐르고 있어 月山의 飛瀑(물결날리는 폭포)으로  
여덟번째 경치로 삼았다。

이것으로 보아 경치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변화되는 것인데、사물을  
관찰하는 정감이

어찌 밥이나 국에 있어 흠먼지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필연적으로 마치 구렁지렁이가 허기져서 음식을 찾고、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마시듯이 좋은 경치에 대한 감정은 적극적  
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자세히 八景에 대한 차례를 정해보고 여러 儒林들  
의 훌륭한 문자들을 앞에 序頭로서 말해 보노라。

정묘년 주추 상순

金憲洙(김헌수) 씀

## 【字義】

- 惡之(오지) — 그것을 꺼려함. 惡는 憎疾의 뜻.
- 獨 — 但의 뜻, 다만.
- 噫(히) — 讚美하거나 感歎의 뜻으로 쓰임.
- 蔚然(을연) — 무성한 모양.
- 巖巖 — 바위가 重疊(중첩)하여 崢嶸(중릉)한 모양.
- 岵(호) — 저압 — 崢嶸한 돌산이 峻險한 것. 岵는 正字通에 보면 「土山戴石曰岵」라 했다. 崢嶸은 巖과도 같은데 여기서 是는 段注에 의하여 「積石高峻貌也」라고한 說을 따른다.
- 激灑(엄림) — 물이 번쩍 번쩍 빛나는 모양.
- 脩竹 — 길게 늘어진 대나무. 脩는 長也.
- 瀑然碎然(폭연쇄연) — 물결이 이는 뜻, 잘게 부서어지는 뜻함.
- 因 — 이로 말미암아, 由의 뜻.
- 悉(실) — 밝게 분석함의 뜻. 悉, 明析也 六書總要.
- 冠 — 首의 뜻으로서 序頭.
- 瓊章(경장) — 輝煌한 문장. 남의 문장에 대한 敬稱.
- 云爾 — 문장 끝 부분에 쓰는 結詞.



# ◎ 蠶頭曉月

晚 圃

尖蠶奇巖臥老蠶

우뚱솓은 괴이한 바위 늙은 누에 누워 있는 형상인데,

登明牧伯治之南

벼슬길 오른 太守 烏棲山(오서산) 남쪽땅 잘 다스렸네.

遍臨物像多千萬

森羅(삼라)한 物像들 두루보고,

迴照星躔少五三

서너덜번 星座의 궤도 멀리 살펴보네

輪孤招謝天邊日

둥근달 외로워 하늘가 해를 반가이 맞이 하려는 듯,

鉤曲穿征海底嵐

굽은달 바다 밑 뿌연 안개 꿰 내리네

目寓太空觀變者

하늘 보며 우주 변화 살펴건데,

瞬間改易影淡淡

눈 깜짝할 사이 물상들의 그림자 맑고 깨끗하네.

## 【字義】

○ 尖蠶(첨촉) — 뾰족하게 우뚱솓은 모양. 蠶(촉)은 長直한 모양 〓 書通注 〓. 〓 謝靈運 〓의 詩賦에서 「直陌蠶其東西」라고한 표현을 볼수 있다.

○ 牧伯 — 〓 語文典故 〓에 보면 州郡長官이라 했는데 여기서 地方을 管掌하는 太守로 본다.

○ 迴(형) — 멀다. 本字는 迴이다. 〓 正字通 〓

○ 星躔(성진) — 별이 天球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궤도. 〓 說文 〓注에 보면 躔은 踐也, 「星之所履行也」라 했다.

○ 嵐(람) — 〓 詩語典故 〓에 「山中霧氣」라 했다, 〓 字典 〓注에는 「山氣蒸潤也」라 했다

○ 太空 — 하늘

## 【解義】

누에 형상을 한 蠶頭峰을 보며 純粹無垢한 自然의 造化功을 넘은 宇宙를 통하여 치고감있게 살펴보는 表現을 볼수 있다.

又

石

農

鳥嶽至巔像臥蠶

鳥樓山(오서산) 산마루 누에 누워있는 형상인데,

古今令望擅鴻南

오래도록 변함없는 종은 저망 홍남당 지켜왔네.

未到天心過夜半

달 중천에 뜨지 않았지만 한밤중 지나고,

周回地面踞州三

이곳 저곳 배회하며 몇 고을 옮겨 다니네.

傍出扶桑穿閣道

해는 동쪽 바다에 떠 산골짜기에 걸린 구름다리 비추고,

輪含丹桂披山嵐

둥근달 계수나무 빛 띄어 산속 안개 해쳐주네.

來不負吾開曉色

내게 지지 않으려 새벽녘 밝은 경치 열어 놓았고,

婆娑一影倒淡淡

흔들거리는 그림자마다 거꾸러지듯 담박한 빛 띄었구나!

## 【字義】

○ 至巔(지전) — 산 마루를 형성함. 至는 成의 뜻.  
○ 令望(영망) — 令은 善也. 望은 望望의 望.

○ 擅(찬) — 據有함의 뜻, 지켜보전하는 것.

○ 踞는 游의 뜻(左傳)에서 引用하였는데 執泳而踞라 했다.

○ 扶桑 — 日出地(山海經)에 보면 「湯谷之上有扶桑, 十日所浴, 在黑齒北, 居水中, 有大木, 九日居

下枝, 一日居上枝」라 했다.

○ 穿(찬)은 通也, 확하게 해주는 것.

○ 閣道 — 棧道(자노)와 같은데 산골짜기에 만든 懸橋(현교).

○ 丹桂 — 계수나무의 일종인데, 또는 달의 代稱이기도 하다(詩語典故).

○ 婆娑(파사) — 흔들거리며 움직이는 모양.

## 【解義】

自然속에 自我의 心理가 沒入되어 있고 해와 달에 대한 美華된 표현이 詩想의 絶頂을 이루며 生動감을 結句로서 느낄 수 있다.

又

## 三寓 嚴 琦 燮

扶桑半輪掛高蠶

동해 떠있는 반달 높은 蠶頭峰(잠두봉)에 걸려 있는데

曙色蒼蒼闢斗南

맑은 새벽 하늘 경치 온 세상 활짝 열려 놓았네.

裊衣遍照長安一

요염한 옷차림 장안거리 휘날려

把酒難成彩石三

醉中生活 화려한 玉石 이루기 어렵다네.

婆娑影浴清江水

흔들거리는 그림자 맑은 강물 씻어내듯

濕映光籠遠市嵐

물방울 밝게 대그릇 비취, 멀리 푸른산기운 어울리네.

獨宿秋齋吾有感

가을날 서재에 홀로 감회 젖어

涼風不絕又淡淡

맑고 서늘한 가을바람 이어지네.

【字義】○ 蒼蒼(창창)——하늘이 맑고 푸른 모양。

○ 斗南——北斗星의 남쪽에 있는 별。 晉書天文志에 보면 「相一星、在北斗南」이라 했는데 轉하여 天下、은세상의 뜻으로 볼 수 있다。

○ 裊衣(요의)——요염하여 간드러진 옷。

○ 濕映——雨露에 달빛이 밝게 비침。

【解義】作者는 周圍自然現象에 興趣되어 視空間的으로 계절의 清涼感(청량감)을 맛보고 書齋(서재)에서는

홀로 自身の 內面心理로서 自然에 滿喫하며 感懷에 젖어 있다。

又

廉石樵先生

碧岫起頭似臥蠶

푸른 산봉우리 솟은 모습 누운 누에 같는데,

曉看明月滿烏南

새벽 밝은 달 烏棲山 남녘 가득하네.

俄過雲際輪懸半

구름사이 달은 반 가려진 채 비추고,

更入樽中影對三

다시 술통이속 비추어 달 그림자 마주하네.

曙色同流橫白露

새벽 경치 흰 이슬과 함께 어울려,

朗輝徧照掃晴嵐

밝게 비추는 달빛 맑게 갠 嵐氣(람기) 쓸어 주네.

粧罷素娥開寶鏡

단장 안해도 아름다운 달 거울같이 밝은 빛 내는데,

一天如水正淡淡

온통 하늘이 물처럼 맑고 깨끗하네.

【字義】

○ 俄—잠깐동안. △公羊傳V의 注에 보면「俄者謂須臾之間」이라 했다.

○ 素娥(소아)—달의 別稱. 달빛은 희므로 素라 하며 娥는 嫦娥임. 또는 달속에서 흰옷을 입은 仙女라고도 함.

李周翰의 注에 보면「娥、羿妻嫦娥也、竊藥奔月、月白色故云素娥焉」이라 했다.

【解義】

『푸른 산봉우리 아름답다. 어인의 일면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蠶頭峰(잠두봉)의 새벽달이 絶景을 이루니 이것을 詩의 美化된 表現으로서 描寫하고 있다.』

又

青蘿香泉里 三隱 李明烈

秀眉妍態畫奇蠶

누에 모습 그대로 그려놓은 蠶頭峰、

北斗低回雲盡南

北斗星 자루 하늘 돌때 구름은 남쪽으로 사라지네.

鍾落殘山僧一一

종소리 울려 산중에는 승려들 뿐이요、

鷄鳴幽巷屋三三

깊숙한 마을 닭소리 들리는 곳人家 나란하네.

清浮蓮脚含微路

清雅(칭아)한 연꽃줄기 작은 길인양、

照掛林端鎖半嵐

달빛 수풀가 비추어 푸른 안개 머물러 있네.

底景閒人應不寐

좋은 경치속에 사는 한가로운 사람 낮잠잘 겨를 없어、

琴心詩韻倍虛淡

즐거운 마음, 시의 운치 즐기는데 더욱 淸虛하고 담박해지네.

【字義】○ 鍾落—종소리가 울려 퍼지는것.

○ 殘山—고작 산에 남아있는 것이라느 뜻

○ 幽巷—산중의 깊숙한 마을. 巷은 村邑의 뜻.

○ 底景—좋은 경치속에서 머물러 삼의 뜻. 底는 止居也(段注) V.

【解義】

깊은 골짜기속 閑寂한 情景속에 風月을 읊는 이의 淸淡한 心思를 볼 수 있다. 우리는 世上의 蒙塵 속에서 詩의 心像을 통해 虛淡한 情趣感을 느껴 볼 수 있을 것이다.

又

保寧郡 大川面 蓼庵里 松溪 李 圭 祥

金蟾曉引起空蟄

새벽녘 밝은 달 누워있는 누에 일으켜

宛見鳥棲經始南

완연히 鳥棲山의 잘 가꾼 남쪽땅 볼 수 있구나!

盈虧不盡年千億

달이 차고 이즈러지는 변화 끝없이 변하고,

環照非徒夜二三

밝은 달빛 언제나 밤 비추어 준다네.

時近扶桑將曙日

때론 동해에서 밝은 햇살 떠오르고,

光凝丹桂杳生嵐

광채 덩어리, 밝은 달가에 아득히 달무리져 오네.

欲使畫工模此景

화공으로 하여금 이런 情景 그리게 하고 싶은데,

矇矓猶勝正淡淡

흐릿한 빛 꽤찰아 그저 담박할 뿐 이라네.

【字義】

○ 金蟾(금섬) — 달속에서 두꺼비가 산다고 하여 달의 異稱으로 씀.

△ 詩語典故 V 에서는 月亮이라고 했다.

○ 矇矓(모롱) — 흐릿한 기운을 말한다.

【解義】

해와 달을 통하여 自然의 消長盈虛(소장영허)란 끝없는 永劫의 循環的 宇宙攝理로서 自然의 道를 이루는데 이를 象徴的으로 描寫하고 있다.

又

保寧郡 珠山面 杞泉 金博士

山形繚曲飽春蠶

급이져 둘러싸인 산 형세 봄날 누에 배부르게 하듯,

曉月微明碧樹南

새벽달 남쪽 푸른 나무숲 가깝게 비추네.

氷鏡俄分岬岫半

투명한 달빛 어느덧 峨岬山 중턱 비추고,

衣鬚如畫虎溪三

그림같이 화려한 산골의 虎溪水 흐르네.

池魚疑釣歸滄海

연못 물고기 잡힐까 봐 넓은 바다로 돌아가고,

林鳥驚眠破翠嵐

산새들 잠깨 푸른 산 안개 흩어지듯.

世事盈虧元若許

세상사榮枯盛衰란 본디 무상한것,

停盃一問味淡淡

술잔 들며 물으니 싱거운 맛만 돈네.

【字義】

○ 繚曲(요곡) — 산이 굽이진 채로 둘러싸고 있음의 뜻. 「繚는 相纏繞也」라 했다. 〽說文〴.

○ 衣鬚(의수) — 산골짜기 모습을 형용한 것.

【解義】

自然의 神祕로운 현상도 오래 保全하기 어려운 것이며, 人間의 世上事 이치도 變化無雙한지라, 虛  
無한 느낌에 슬맛조차 싱거워지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又

洪城郡 洪東面 花新里 蘇山 金東軾

半輪斜掛峰頭蠶

반달은 蠶頭峰 누에 머리에 걸쳐,

晚拖下弦乍向南

할 시위 모양으로 남쪽 향하네.

照送歸鴻飛一一

달빛 바베 날아가는 기러기들 비추고

光侵列宿散三三

산새 보금자리 밝은 빛 비취지네.

樹陰隱映鳥驚夢

수풀속 비쳐지는 빛에 산새는 잠깨고,

海氣清涼谷罷嵐

바닷가 공기 맑아 골짜기 안개 거두어지네.

正是幽人眠獨起

산속 은거인 홀로 잠에서 깨었는데,

疎簾不下坐淡淡

굵은 발 내리지 않고 앉아 淸淡함 즐기네.

【字義】○拖(타)―당기는 것

【解義】이詩에서는 같은 의미들의 글자를 자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淸照、光、映과 夢、眠의 글자들이다.

同義語 疊用은 詩的 心像을 模糊(모호)하게 만든다.

산속에서 정겨운 풍경을 描寫하고 있다.



又

洪城郡 長谷面 智鼎里 朴 昌 和

月是蛾眉峰是蠶

미인 누썸같은 초승달 아래 누에 머리 형상한 봉우리 솟아있고,

幽人却罷夢柯南

은거인은 화려한 꿈속에서 깨어나네.

堪憐旁魄分爲半

정신 골몰해져 피곤해지는 듯 하지만,

貪看推窓再又三

그래도 창문 더듬어 더욱 새로움 발견하네.

雲化瑞光初霽雨

구름은 瑞光(서광) 만들어 비 거두고,

風含佳氣不成嵐

바람은 아름다운 기운으로 산속 안개 흩어주네.

欲識箇中真趣味

그러한 가운데 참된 정취 알고 싶었는데,

空山疊疊水淡淡

쓸쓸한 산 첩첩한 곳 시냇물 맑게 흐르네.

【字義】

○ 蛾眉(아미) — 누에나비의 누썸은 가늘고 길게 고부라져서 아름답다는 말로 고은 누썸을 지닌 美人을 말함. △ 詩經衛風碩人篇 巧笑倩兮, 美目盼兮라 하였다.

○ 柯南(가남) — 南柯의 倒置된 句. 南柯란 郡名인데 唐나라 淳于棼(순우분)이 자기집 남쪽에 있는 회화나무 밑에서 醉夢에 들었는데, 꿈에 大槐安國南柯郡을 다스리어 이십년간 富貴를 누리다가 깨었다는 故事. △ 異聞集 〽.

【解義】

轉句의 霽雨와 結句의 空山과 季節的으로 모수되는 표현이다. 空山은 겨울의 보잘것없는 산의 표현이다. 주위 情景에 銳利한 감각으로 山紫水明을 즐기고 있다.

又

保寧郡 嶺山面 勒田里 松菴 趙先生

扶桑曉月曲如蠶

동쪽바다 떠오르는 새벽달 모습 굽은 누에 같는데,

若木以西照極南

이에 神木은 서쪽에도 밝혀 南極星來照케 하네.

火精浮處精神一

불꽃의 精氣 펼쳐진곳 정신 집중되고,

水面來時影子三

물결 일때 밝은 光華 거듭 비쳐지네.

疎星漸落聞漁笛

어부 피리소리 들릴때 성긴 별들 떨어지고,

遠岫欲明收靄嵐

산중 푸른 안개 거칠때 먼산 밝아지네.

無睡光翁猶早起

새벽잠없는 늙은이 일찍 일어나,

東方曙色最淡淡

동녘 새벽경치 꽤청함 바라보네.

【字義】○極南—南極老人。별 이름으로서 이별이 나타나면 天下가 太平하다함。

△史記天官書△에 「狼比地有大星、曰南極老人」이라 했다.

○浮—散施의 뜻 △管子侈靡篇注△.

【解義】새벽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늘의 수놓은 듯한 화려함을 玩賞하면서, 이에 老人은 새벽잠없이 주

변 山水景色에 젖어있다.

又

保寧郡 熊川面 冠堂里 金 致 萬

鳥山樓月活如蠶

까마귀 달빛아래 깃든 산 모습 누에 같을데,

露白風涼雁指南

하얀 이슬 서늘한 바람에 기러기 남쪽으로 날아가네.

畫閣鍾鳴更報五

단장한 누대속 五更 알리는 종을리니,

碧天星轉影疎三

푸른 하늘의 별들 점점 멀어져 가네.

松聲清洒宜琴律

소나무 바람소리 맑게 씻어 주듯 거문고 가락 화음이루고,

夜氣虛明擁瑞嵐

밤 기운 고요하고 맑은데 상서로운 嵐氣(남기)안고 있네.

光景非徒於此了

빛나는 정경의 모습 이뿐만이 아니요,

千年龍沼水淡淡

천년부은 용이 노는 맑은 연못 있네.

【解義】

鳥樓山(오서산)속의 소나무 울창한 곳에서 거문고 가락 연주해보고 평량한 밤의 공기 마시며 즐기  
고 있는데 結句의 添加文章式으로서 光景을 極讚하고 있다.

又

青陽郡化城面山亭里 沈 晚 溪

曉黛妍粧笑蜀蠶

환한 눈썹 먹 단장하니 나비애벌레나 누에의 모습도 부럽지 않은데,

河涵銀色斗杓南

은색빛 물결은 가을의 북두칠성의 자루 세 별들 남쪽 가리키네.

清廻雁道蕭蕭一

청명한 하늘 기러기 가는길 분주한데,

明入鷄棲喔喔三

밝은 달빛 닭장속 비취 닭소리 울리네.

層阡影返傾寒樹

밭두둑 그림자 짊어져 쓸쓸한 나무 기울이고,

短巷輪生斂細嵐

작은 마을에 달빛 돌아 가는 다란 안개 거두네.

高懸半郭有何意

높은 달의 모습 왜 반만 보이냐?

崇嶽參差野水淡

들쭉 날쭉한 높은 산마루 아래 가을만 맑게 흐르네.

## 【字義】

○ 曉黛(효대) — 환한 빛의 눈썹만.

○ 蜀蠶 — 나비애벌레와 누에. 여기서 蜀蠶과 같은 美人의 눈썹. 나비애벌레와 누에는 서로 비슷하다 함. △淮南子△에「蠶與蜀狀相類而愛憎異也」라 했다.

○ 斗杓(두표) — 斗柄과도 같은데 북두자루 부분에 속하는 세 개의 별.

○ 喔喔(악악) — 닭 우는 소리.

## 【解義】

달 빛 아래 아름다운 情景을 노래하였는데, 한편 북두성의 자루가 남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한여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鶡冠子環流篇△에 보면「斗柄指南, 天下皆夏」라 했는데, 여기서 雁道蕭蕭, 寒樹라는 표현과는 서로 矛盾되는 듯 싶다.

又

靑陽郡 化城面 山亭里 徐 華 岨

消長宛如生死蠶

소멸하고 자라는 산 형세 누에의 살고 죽는 것 같은데,

幾時來去是烏南

이 烏棲山 남쪽 기슭 언제 다녀가 보려는가?

萬籟俱零更到五

모든 음향의 소리 五更에 사라지고,

一樽相對影成三

하나의 술동이 주위로 三人 마주앉아 술잔 권하네.

沙上能看人渡水

강물 모랫가 강 건너는 이 바라보고,

巖邊何記字上嵐

바위가 새겨진 글자 위 안개 어찌 기록할 수 있겠는가?

開簾愛舞下階拜

발걸 열고 뜰 아래에 춤을 추는데,

先後弦光同此淡

변화 심한 달빛 맑은 정경을 함께 하네.

【字義】○ 萬籟(만뢰)―모든 음향들。天籟(자연의 바람소리)와 地籟(土窟에서 울리는 소리)와 人籟(대로

만든 관악소리)의 모든 것들을 말함(莊子)。

【解義】寂寞한 새벽을 벗과 함께 술을 나누며 춤을 추는 風月客의 情趣를 느낄 수 있다。

又

靑陽郡 化城面 九在里 蔡 肖 巖

扶桑若曙起眠蠶

동녘의 曙光(서광) 떠올라 잠든 누에 일깨우니,

庾亮高樓恍在南

庾亮(유량)이 武昌에서 세운 누대 황홀히 남쪽 기슭에 있느듯.

減舊餘光弦稍下

등그달 모습 변하여 下弦달 되어가는데,

續遊幾處影成三

풍류 즐기는 곳에 세 그림자 비치네.

珠生蚌腹經寒汐

진주조개는 차가운 밤 바닷물도 겪어 내는데,

梳掛螺鬟斂翠嵐

빗은 靑山에 걸려있는 듯 푸른 안개 거두네.

大界汚塵如可洗

세상 더러운 티끌 씻어낼릴 수 있다면,

玉臺半面水淡淡

아름다운 누대의 한면이라도 맑게 해줄 수 있으리라.

【字義】

○ 庾亮(유량) — 東晉의 政治家。征西將軍이 되어 武昌에 있을 때 높은 누대를 세웠는데 庾樓라고도 한다.

○ 梳(소) — 빗.

○ 螺鬟(나환) — 螺髻(나헤)와도 같은 말인데 靑山을 비유한 말. △惠洪△의 山行詩에 「高秋霜葉魚腮赤、落日遠山螺髻靑」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解義】

정겨운 自然속에서 淸淨無垢를 강조하였고, 脫俗的인 詩的情感을 맛볼 수 있다.

又

磅礴山容臥翠蠶

층만한 산 모습 푸른蠶頭峰 누어 있는데,

寢宜曉月掛箕南

새벽달箕南山에 걸려있는 정영숙에 잠들만 하네.

明河雁影橫過半

맑은강물위 기러기 그림자 비껴지나고,

遠野鷄聲唱度三

먼들녘 닭우는 소리 자주 들려오네.

微分曙色稀星宿

섬세한 새벽 경치속 성긴 별 반짝이고,

洽受清光卷靄嵐

혼연한 淸光에 뿌연 안개 거두어 지네.

圓缺千秋藏不盡

달의 변화 千年동안 그지 없어,

寒泉照得益淡淡

차가운 샘물 달빛 기운 얻어 더욱 맑아지네.

【字義】 ○ 磅礴(방박) — 기운이 充滿한 모양. △ 韓愈의 送廖道士序에 「磅礴而鬱積」이라는 표현이 있다.

○ 圓缺(원결) — 달의 盈虧되는 變化

【解義】 밝은 달 하나로 인해 地上에 놓인 森羅萬像들은 제각기 즐거워 하며 造化功의 神秘로움에 感應하고 있다. 대저 日月의 道란 宏濶(광활)하여 四時와 더불어 永劫을 두고 끝없이 循環되는 것이다.

又

## 黃 梅 石

曉窓峰月掛於蠶

새벽창가 蠶頭峰에 걸려진 달 모습 보이는데,

佳景名詩擅自南

아름다운 경치와 좋은 시들이 남쪽 땅 지켜왔네.

清影方圓更徧五

맑은 달 그림자 새벽녘에 더욱 둥그러지고,

孤輪未沒日竿三

외로운 달 아직 지지 않았는데, 해는 벌써 세 장대만큼 올라왔네.

客酣卯酒紅生頰

나그네 아침 해잔술로 얼굴 붉게 달아 오르고,

僧汲星盆翠滴嵐

스님은 새벽에 물길러 푸른산 안개에 휩싸이네.

歲暮深山書可讀

이해도 다한 글은 사냥 독서할 만한데,

與君相對共淡淡

그대와 서로 대함에 꺼리질 게 없네.

【解義】 蠶頭峰에서 興趣에 젖어 아침 해잔술 한잔 들이키고, 좋은 글도 읽으며, 벗과 함께 청담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又

韓 廷 履

頭角嶄然似臥蠶

머리뿔 우뚝 솟아 누워있는 누에 같은데,

西窓曉月對山南

새벽 달빛 西窓 비치고 남쪽 산 마주 보고 있네.

人間隨影身千億

인간 쫓아 다니는 그림자 수많은 물체마다 딸리었고,

海外金輪夜五三

바다 밖 먼 곳까지 비추는 달빛 밤을 자주 찾아주네.

驚鳥出樓猜曙日

새는 잠자다 보금자리에서 깨어 새벽햇살 꺼려하고,

歸僧垂衲壓輕嵐

山寺 찾아가는 스님 옷자락 가벼운 안개 뿌리치네.

天公只怕頑雲蔽

하느님은 샘 많은 구름이 가리울까 걱정하는데,

却掃傾河冷復淡

제 모습 일흔 냇물 깨끗이 쓸어 더욱 맑아지네.

【解義】

日月의 광화본은 빛은 本然的인 현상이다. 뜻하지 않은 구름이 가린다면 하느님도 꺼려할 일인데

더우기 인간도 안타까워 질것이다. 自然의 純粹本然的 현상을 保全하고자 하는 詩的表現을 볼 수 있다.

又

洪城郡 洪東面 雲月里 晦誠堂 朱 碁 完

月似懸蟾蜍似蠶

달속 두꺼비 매달린듯, 메부리는 누에 머리 같는데,

名區始覺在高南

승지는 높은 남쪽 기슭에 있음 이제 알았노라.

晚戶鷄聲時夜五

五更의 깊은 밤에 닭소리 들리는데,

曙天雁影客秋三

나그네 가을心思 새벽하늘 아래 기러기 달그림자 비쳐지네.

寂寂山容微滴漏

고요한 산 모습속에 작은 이슬 방울 떨어지고,

依依樹色細生嵐

변함없는 나무숲속 가느다란 안개 피어나네.

素輪那得長無沒

밝은 달도 어찌 지는날 없겠으리요,

使我逍遙樂此淡

이런 정경은 清淡속에 마음껏 즐겨보게 하네.

【解義】

自然의 道는 인간이 갖고 싶다하여 누가 막는 이가 없고, 이를 마음껏 누린다고 해도 소모되거나

달은 일어난 것을 잊는다. 蠶頭峯은 四時의 風月을 즐길만한 名勝地이다.

又

保寧郡 鰲川面 烏浦里 屏巖 申禮湜

論景何論自養蠶

경치를 논함에 어찌 누에치는 일부터 논해야 하는가?

蠶頭曉月偃烏南

새벽 달빛 아래 蠶頭峰 烏棲山 남쪽 기슭에 누어 있기 때문이다.

影將入戶來隣西

달 그림자 방문에 들어와 이웃도 비쳐주며,

拘欲掛籬去逕三

을타리에도 걸어 놓고자 大門 안 뜰녘으로 옮겨지네.

濕氣同行終夜露

촉촉한 이슬 밤새 내리고,

隱光被出暫時嵐

은연중 섬광은 안개속에서 잠시 나타나네.

埒上黃鷄催曙告

햇대위 앉은 누런 닭은 날썬 소식 알리는데,

扶桑朝日庶乎淡

東天의 아침햇살 밝아오네.

【解義】黎明의 순간 변화되는 황홀한 아침의 情景를 노래하고 있다. 부지런한 새벽닭은 일찍부터 울고 있

는데 未來에 대한 새로운 自然變化의 暗示性(암시성)을 象徴的이고 繪畫的인 詩的比喻로 나타내고 있다.

又

## 月潭 申大湜

夜分霜落葉聲蠶

밤새 서리 맞은 나엽소리 들리는 蠶頭峰、

蟾魄烏山截彼南

두꺼비 정기어린 烏棲山 가파른 남쪽 기슭이여!

釧削溪峰輪掛半

각아 높은 듯한 산봉우리 등은 달 반쯤 걸려 있고,

酒闌江國影成三

술맛 무르익은 江村에 달그림자 저오네.

鷄鳴茅店清疑畫

화려하게 맑은 빛 돋는 띠집에 닭소리 들리고,

磬打雲林迴掃嵐

멀리 안개 개이는 雲林속 경쇠소리 자욱하는구나!

流照寒窓孤客枕

달빛 쓸쓸한 창가로 외로운 나그네 베개 비쳐주는데,

不成鄉夢意虛淡

고향꿈 꾸지 않지만 잠념없이 답답해지네.

【字義】

○ 釧削(소삭) — 평평하게 깎아 놓음. 釧(소)는 劑(완)也

△ 說文 V. 劑削이라고도 함.

○ 闌(란) — 熟也. 무르익음.

【解義】

외로운 나그네의心思마저 평온하고 답답해져 山中明月이 그려내는 새벽 정경을 볼 수 있다.

又

洪城郡 長谷面 蔡梅下

峰作物形可擬蠶

누에 형상한 산봉우리예,

蒼涼月下雁飛南

서늘한 달빛에 기러기 남으로 날아가네.

氷心不滯通明四

맑은 마음 널리 四方에 통하고,

鏡面無私過昧三

밝은 거울 비취 심오한 경지에 와본듯.

隱隱光沈深巷樹

달빛 기운은 숲속에 숨겨져,

娟娟影散遠山嵐

예쁜 그림자 안개 낀 산에 흩어지네.

誰家嬾婦昏昏寢

누구 집 아녀자 잠만 자는가!?

未覺金波漸向淡

동이 틀려는 것도 모르네.

## 【字義】

○ 通明四—널리 사방에 통함.

○ 過昧三—三昧境을 보게 됨. 過는 見의 뜻. (戰國策注). 三昧境이란 마음을 專一하여 道의 奧妙(오묘)함을 據得함. (詩語典故)

○ 嬾婦(나부)—게으른 여자

○ 金波—달빛의 환한 파장.

○ 漸向淡—달빛이 점차 엷어져 감. 날이 새어감의 뜻.

又

保寧郡 周浦面 新垆里 漁隱 韓 允 錫

千秋屹立似氷蠶

천년 우뚝 솟은 산 누에 형상하여

將吐銀經駐斗南

은하수길 토해 남쪽 하늘에 두었네.

茅屋鷄鳴俄一一

집마다 새벽닭들 울고,

霜天鴻語又三三

차가운 하늘 기러기 줄지어 가네.

光翻老石還疑雪

달빛 비친 암석은 눈인가?

影入疏林半雜嵐

안개 낀 숲속 달 그림자 비추네.

山鳥爾何驚出澗

산새 너는 왜 산골짜기에서 뛰쳐나왔나?

蒼穹曙色水如淡

새벽 하늘 경치 물처럼 맑은데.

## 【字義】

○ 氷蠶(빙잠)——산중 누에에서 고치짓는 누에。△拾遺記△에 「員嶠山有氷蠶、長七寸、黑色、有角有麟、以霜雪覆之、然後作繭」이라 했다.

○ 銀經——은하수길。누에가 토한 명주실을 비유.

○ 俄——한마리 닭이 울면 이윽고 다른 닭들도 따라 울기 시작함의 뜻.

○ 蒼穹(창궁)——푸른 하늘

又

洪城郡 龜項面 槐軒 徐承億

飛鳥棲盡出頭蠶

鳥棲山 다한곳 蠶頭峰인데,

月下青山曙色南

새벽달 남쪽 靑山 밝게 비추네.

寒江歸棹爭前後

찬강가 노 젓는 뱃소리 요란하고,

遠寺疏鍾落兩三

멀리 절 종소리 간혹 들려오네.

氷生底海分黃道

月出地는 태양 궤도와 다르고,

鏡掛西林映翠嵐

서녘숲속 달빛 푸른 안개 비추네.

螺黛微明蟾影薄

검푸른 산 밝아져 달 그림자 희미한데,

曉天一碧水淡淡

새벽 하늘 푸른 강물빛 더욱 맑네.

【字義】

○ 黃道—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天球上의 大圓(대원)궤도.

○ 螺黛(라대)—黛螺의 倒置. 靑靑색의 눈썹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검푸른 빛의 산을 형용하기 뜻.

○ 蟾影(섬영)—달빛. 달속에 두꺼비가 산다는 전설이 있어 蟾은 달의 代稱으로 쓰임.

又

小青 李 善 秀

山是鳥棲頭是蠶

오서산 머리는 누에 형상인데,

東來蟾兔轉西南

신화속의 저달 서남쪽으로 지네.

明必揚輝秋送九

가을날 달빛 다 하려,

朏初生魄日當三

급은 그믐달도 잠깐이네.

迎素樓中經宿雨

비내린 누대 달 맞이하고,

問青樽外捲晴嵐

술잔들며 안개 개였나 보네.

鷄晨坐了仍無寢

새벽 닭 소리에 잠 못 이루는데,

流照羈窓影色淡

창가 달 그림자 맑게 비추네.

## 【字義】

○ 秋送九—孟·仲·季로 나뉘는 九十일의 가을 한철.

○ 朏(글) — 廣雅釋義 V에 의하면 曲脚의 뜻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달의 급은 모습을 形容한 것.

○ 日當三—날이 오래가지 않음.

○ 羈窓(기창)—창에 매어짐.

## 【解義】

맑게 갠 가을밤 무르익은 달빛에 술잔들며, 가을의 정겨운情趣 즐기고 있다. 새벽 달빛의 회화적인 배경에 作者는 心醉되어 있다.



又

李 錫 範  
東 澗 亭

明鏡曲鉤纖若蠶

밝게 비추는 굽은달 누에갈이 고은데,

蠶頭作伴鎮東南

누에 머리같은 산이 東南으로 뻗어있네.

脈連天柱來賓幾

길게 뻗은 산맥 높이 솟아있는데,

影轉霓裳守卒三

달그림자 仙女의 옷에 비취지네.

寒氣砭時疑水國

차가웁스치는데 바다가 가까운 곳인가?

晴光觸處罷山嵐

달빛 맑게 개어 안개 거치네.

乾坤萬古隨長在

天地는 오래도록 悠久한데,

徧照中心共味淡

하늘 복판 환하여 淸淡해지네.

【字義】

○ 鎮—늘리 이음.

○ 天柱—하늘을 받치고 있다는 기둥.

○ 霓裳(예상)—仙女의 옷.

○ 砭(핼)—돌침. 여기서는 자극의 뜻.

○ 水國—川澤이나沼池가 있는 땅.

【解義】

하늘에 이어질듯한 蠶頭峰에 맑은 달빛에 作者의 마음은 淸淡해진다. 天上世界를 방불케하는 光景 속에서 自然을 노래한 것이다.

又

輪是金蟾峰是蠶

등고달 蠶頭의 봉우리 비추는데,

何如庾亮好樓南

어찌 庾亮(유량)은 남쪽 庾樓를 좋아했는가?

銀橋形出飛登二

먼 하늘은 은하수 자주 떠 있는데,

玉屑飯成分食三

옥알은 누이로 밥그릇에 담아볼까?

缺半顯無人破鏡

반달 가려진 부반은 반쪽 거울 같네,

明中所有谷含嵐

밝은 빛 아래 골짜기 안개 일어나네.

漢回星落鷄聲乳

은하수 옮겨지고 별도 사라져 닭울며 알 낳는데,

宛似東天曙色淡

완연한 동녘 새벽하늘 맑기만 하구나.

## 【字義】

○ 金蟾(금선) — 달의 異稱

○ 庾亮(유량) — 東晉의 政治家。征西將軍이 되어 武昌에 있을 때 세운 거닐을 庾樓라고 한다.

○ 玉屑(옥설) — 누이의 異稱

○ 缺半 — 반달 모양이 됨.

○ 乳(유) — 여기서는 알을 낳음의 뜻。△呂覽季冬紀△에 보면 「鷄伏卵亦曰乳」라 했다.

○ 宛(완) — 완연한.

# ◎ 牛峴暮雲

晚 圃

郁郁亭亭碧落雲

아름다운 모습 우뚝 솟은 푸른 산 구름 가라앉았는데,

斯須變改自爲分

순간적인 변화속에 저절로 형성되네.

觸生怪石莓苔濕

괴이한 암석에 寄生하는 촉촉한 이끼들,

飛襲疎松錦繡紋

성긴 소나무사이 날아드는 비단무늬 안개 구름들.

萬里流蹤蒼狗見

머나먼 곳 돌아다니는 자취를 어린 강아지도 지켜보고,

千尋浮影老猿聞

천길 밖 펼쳐진 그림자 늙은 원숭이도 알아보는 듯,

如車如盖知來處

수레 덮개 같은 구름 어디서 왔는가?

遍狎山巔虎兕群

두루 산마루의 날짐승들과 정겹게 즐기네.

【字義】

○ 郁郁(우욱) — 아름답다는 무늬를 갖고 있는 모습.

○ 莓苔(매태) — 이끼. △杜甫△의 詩에 「隨意坐莓苔」라는 표현이 있다.

○ 千尋(천심) — 천길. 尋은 八尺.

【解義】

牛峴山에서 형성되는 구름들은 순간적인 변화속에서 산과 어울려 정겨운 듯한 詩的 美化된 表現들을 느낄 수 있다.

又

石 農

一牛鳴地一端雲

한마리 소울음소리 땅울리고 한뫼치 구름떠 있는데,

影裏靑山路半分

그림자 비치는 靑山길 양쪽으로 나뉘네.

時來時去能成雨

오고가는 구름은 비만들네,

間碧間紅不織紋

구름사이 푸르고 붉은 빛돌지만 비단 무늬 아니네.

嶺上多歸巖穴暝

산마루 구름모여 바위굴 어두어지고.

沙門忽暗磬鍾聞

山寺어둡지만 경종소리 들려오네.

悠悠千載無心處

유유히 흐르는 千年歲月 무정한데,

幾度秋風送雁群

가을바람 기러기떼 보내지 몇해나 되었던가?

【字義】

○ 沙門—중을 이름. 여기서 중이 있는 山寺. 〔後漢書郊祀志〕의 注에 보면 「沙門漢言息心、削髮出家絶情洗欲、而歸于無爲也」라 했다.

【解義】

悠悠自適한 山中人의 情恨을 읊은 詩로서 어두운 가을데 들려오는 山寺의 경종소리는 時間的 흐름을 알 수 있게 하고, 바삐 날아가는 기러기 바라보며 가을날의 쓸쓸함을 변함없는 歲月속에서 切感

하고 있다.

又

## 嚴 三 寓

剡刻奇形接暮雲

칼로 깎은 듯한 기이한 형상의 牛峴山 저녁 구름 끼었는데,

有時合勢有時分

때때로 모였다 흩어졌다 한네.

就閒何至千年辱

한가로움만 누리다 어찌 치욕스러운 삶 되게 하겠는가,

得處常徒五色紋

그래도 가는 곳마다 오색의 화려한 구름무늬 볼 수 있구나!

半失山村歸處遠

山村에서 헤매다 돌아갈길 더욱 멀어지 듯,

雙來牧笛影中聞

짜지어 부르는 목동의 피리소리 그림자 속에서 들려오네.

松柵起作晴餘景

소나무 울쌍에는 쾌청한 햇살 비추어 지는데,

徃徃欺飛野鶴群

이따금씩 나는 듯 뛰는 듯한 학의 무리를 볼 수 있네.

【字義】○ 剡刻(소각) — 깎아 새김

【解義】 자연에 대한 지나친 耽美的(탐미적)인 생각으로 자칫 自由奔放하게 된다면 恥辱(치욕)된 삶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지나치지 않은 自己節制속에서 山水風月을 玩賞(완상)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又

## 廉 石 樵

西風遙指暮歸雲

서녘에 부는 바람 멀리 저녁구름 가리키듯,

林靄村烟總未分

길은山村 안개연기 흠어지지 않네.

鋪近碧空天共色

푸른 하늘가 펼쳐진 구름 一色인데,

捲來絕壁錦生紋

절벽에 말아 오른 비단무늬 구름이어라.

亂鴉飛沒遙難見

어수선히 날아가는 까마귀떼 멀어져 보이지 않고,

叫雁穿過寒可聞

떠들썩한 기러기 소리에 쓸쓸함 느껴지네.

聚散無心摸此得

모였다 흠어짐, 마음으로는 형상화 할 수 없는데,

俗塵不染獨離群

세속의 티끌 오염되지 않으려 홀로 무리속에서 벗어나네.

【字義】○鋪(포)―펼쳐지는 것

○穿過(천과)―힘나한 것을 헤쳐 지나감의 뜻. 穿은 開通의 뜻.

【解義】作者는 脫俗的인 境地에서 純粹한 性情을 保全하고자 詩은 秀속 구름안개 詩은 곳에 머물러 詩새와

더불어 世界의 變化를 느끼고 있다.

又

李 三 隱

太古山心薄暮雲

오랜 세월 흘러 산봉에는 黃昏 구름 떠있는데,

七分奇態畫三分

일곱 갈래의 기이한 모습 세 갈래 곱게 그려진다.

斜回林角鱗千點

수풀가 비껴 도는 비늘같은 구름이 천점이요,

幻出巖端錦一紋

바위끝 황홀히 솟아나는 비단무늬 한점구름 보이네.

蟾負月光宵欲晚

두꺼비는 月光 지고 밤 무르익어가고,

龍含雨意曉將聞

용이 머금은 빗소리 새벽녘에 들려오네.

半空半地浮沈樣

天地間 뜨고 가라앉는 변화속에,

知有歸仙駕鶴群

신선이 학 무리들 타고 돌아간 뜻 알겠노라.

【字義】○山心—山中과 같음。〈字典〉에 보면 中央曰心이라 했는데 〈古樂府詩〉에 「日出當心(謂日中

也)」이라 했다.

【解義】世俗의 盛衰의 變化를 超越하고 高踏의 境地에서 弄月吟風하여 보니 神仙의 隱遁의 삶의 價値를 吟味해보고 있다.

又

李 松 溪

夕陽牛臥峴頭雲

석양빛 아래 구름끼고 갯머리에 소 누워 있는 듯,

郁郁英英渾不分

몹시 아름다운 모습 조금도 흠여지질 않네.

重疊時成蒼狗影

중첩한 구름 강아지 그림자 모습 만들고,

輕浮或作活龍紋

가벼이 허공에 떠 용무늬 그려보네.

別有仙鄉如可見

다른 신선 사는 곳을 어찌 볼 수 있으리요,

穿來樵笛亦堪聞

樵童(초동)의 피리소리 또한 들려오네.

何處放羊迷失道

어느곳에 자유로이 양을 방목할까?

彷徨躑躅欲爲群

이곳 저곳 배회하며 양떼를 무리져 보게 하고 싶네.

【解義】한적한 산중에서 樵童의 피리소리 들려오고, 양떼 방목하며 정겹게 지내는 山中生活를 노래했다.



又

## 金 杞 泉

小峴牛眠暮起雲

자그마한 산고개 소 잠들고 황혼녘 구름일어나

西南出岫畫三分

西南쪽 솟은 멧부리 셋으로 갈렸네.

遮如鵬翼成千點

봉새 날개처럼 가려진 구름 천점이요.

薄似魚鱗織五紋

고기 비늘처럼 섬세한 오색 구름무늬 만드네.

石觸枯節行旅急

돌산 쓸쓸한 계절 나그네 걸음 서두르고,

鍾鳴古塔老僧聞

종소리 옛탑에 울리니 늙은 중 귀기울이네.

松間白鶴空相覓

소나무 사이 白鶴은 공영히 서로의 날개 가뻗게 쳐보는데,

喚起群禽獨下群

여러 새들 부르며 홀로 무리속으로 내려가네.

【字義】○覓(알)——가뻗게 두드리는 것.

【解義】 구름은 봉새 날개처럼 넓고, 또한 물고기 비늘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워 산새들 지저귀며 모여있는 곳에 白鶴도山中情景에 同醉된 듯 즐겁게 노닐고 있다.

又

## 金 蘇 山

牛峴蒼蒼暮起雲

牛峴山 푸른곳 黃昏의 구름 피어나고,

依稀烟樹正難分

안개 걸친 모습 어렵듯 분간해보기 어렵네.

含雨初濃方有色

빗방울 질어 생기있는 빗알 돌아나는데,

隨風微散自成紋

구름 쫓다 흩어진 구름 비단 무늬 이루어 놓네.

亂笛吹喧樵子返

요란한 피리소리 내며 樵童은 돌아오고,

哀猿啼罷旅人聞

서글픈 원숭이 울음소리 그쳤지만, 나그네만 들려오네.

俄而披盡山孤立

하얀 구름 흩어지니 산 홀로서 있고,

海際晴天送雁群

바닷가 맑게 갠 하늘 아래 기러기 행렬 지나가네.

【字義】○依稀(의의)——어렵듯한 모양。△集韻△에 보면「髣髴之貌」라고 했다。

【解義】안개 자욱한 산중에서 어렵듯이 仙境에라도 온듯 분간하기 어려워 恍惚(황홀)한 세계에서 風雨를 만나보고 樵童의 피리소리 들으며, 하늘가 철새의 기러기들 행렬에 感懷가 젖어있다。

又

朴 昌 和

君試看牛峴暮雲

그대 시험삼아 牛峴山 저녘구름 살펴본다면,

暮雲牛峴不相分

끝내 雲山을 구별하지 못하리라.

陶手曰高難題意

응기장은 높은 바위에 자기 뜻 새겨 놓기 어렵다 하며,

摩圖雖巧未備紋

畫工의 좋은 솜씨로도 화려한 무늬 흉내내지 못한다 하네.

掩卷窓前客郎至

창문앞에 책 덮어두니 나그네 모습 보이고,

捲簾園裏鳥聲聞

정원속에 발 거두니, 새소리 들려오네.

八景烏南如欠一

烏南八景중 하나만 이라도 없다면

世無伯樂馬空群

세상에 훌륭한 말 사육가 없이 말들만 무리져 다니리.

【解義】烏南八景은 造化功이 神祕롭게 調和시켜 地上에 만들어 놓은 勝地로서, 훌륭한 말 사육가인 伯樂과

비유시켜 八景의 相關性을 強調하고 있다.

又

趙 松 菴

牛山落日暮起雲

牛峴山 저녁 구름 일어

一色蒼圓猶未分

一色の 푸른 경치 모여져 있네

形如太極鴻濛界

외형은 太極을 상징하듯 天地間 元氣 서려있고,

影若玉京仙女紋

하늘나라 그림자 형상은 仙女의 비단무늬라네.

三千粉黛宛然見

삼천가지 곱게 물든 검푸른 모습 여전히 볼수 있고,

九幅美鬟的所聞

아홉폭 예쁜 쪽같은 산의 형세 뚜렷이 느껴지네.

短髮牧童驅羊下

단발한 목동은 양을 몰고下山하는데,

桑麻烟逕自成群

뽕과 삼자란 안개길 양떼무리 저절로 이루었네.

【字義】

○ 鴻濛(홍몽) — 鴻夢과도 같은데, 天地自然의 元氣를 말함. △ 莊子在宥篇 V 에 「鴻蒙方將拊脾雀躍而遊」라 했다.

○ 玉京(옥경) — 玉皇上帝가 산다는 서울. 하늘나라

○ 粉黛(분대) — 섬세한 검푸른 모습.

○ 美鬟(미환) — 靑山을 美化한 表現

【解義】

牛峴山에 黃昏의 구름 피어나는 모습은 脫俗의인 仙境을 彷彿(방불)케 하는데, 목동은 양떼를 따라 돌아오는 모습이야 평온한 정경의 一面이라 할 수 있다.

又

金 致 萬

田臨牛畝可耕雲

牛峴山 구름속에서 밭을 가는데,

林市元來路自分

산간 숲속은 원래 길 나 있었다네.

俄從樵叟頭邊白

나무하는 노인장 따르니 내 머리도 희어지는 듯,

更擁山僧衲上紋

산중 스님과 정겨움에 내 옷자락 화려해 지듯 하네.

深處誠難尊士訪

깊은 산골 높은 선비 찾아보기 어렵고,

罷時容易杜鵑聞

時候 바뀌는 春三月 두견새소리 들려오네.

趣味又多吟咏裏

시를 읊조리는 속에서 더욱 정취의 맛 즐기는데,

騷擅甲乙幾賢群

떠들썩한 아무개 어진이들 몇사람이던가?

【字義】 ○ 騷擅(소찬) — 시끄럽게 떠들며 마음껏 즐길의 뜻.

【解義】 人蹟드문 山中에서도 同好人들간의 서로 風月을 읊조리노라 떠들썩하게 정겨운 이야기들 나누는情

趣感을 엿볼 수 있다.

又

沈 晚 溪

晚把清琴愛看雲

黃昏 구름보며 청담한 거문고 타는데,

暗淡難描畫七分

암담한 경치 모습 묘사하기 어렵네.

誤認煙霞均作態

안개와 저녁놀 고르게 피어날 수는 없을까?

還疑錦繡細生紋

비단폭 같은 구름속 섬세한 무늬 피어나는 듯.

仙境鶴飄猶可見

신선사는 곳에 白鶴이 나부끼고,

梵宮鍾落且堪聞

한적한 山寺의 종소리 울려 퍼지네.

渠本無心閒敍倦

별다른 관심없이 한가롭게 지내는 데

耕樵暮景與同群

밭갈며 나무하느니 저녁경치 속에 벗들과 함께하네.

【字義】 ○ 梵宮(범궁) — 寺刹을 이룸.

○ 渠(거) — 其와 渠의 의미의 어조사.

【解義】 黃昏녘 西天하늘 놀빛이 아름답게 좀더 정교로운 모습이 될 수 없을까 하는 感情이 기승하여 있으며,

山寺의 종소리 들으며 한가로이逍遙하고 있다.

又

徐 華 岨

日暮還歸曉發雲

새벽에 피어오른 구름 黃昏으로 돌아가고,

雲山何意夜難分

한밤중 雲山은 구별이 안되는구나。

初籠巖背成綿絮

암석 뒤로 구름 수레를 솜뭉치로 만들고,

更繞楓林織錦紋

단홍진 수플 두른 구름 비단무늬 짜아 놓았네。

鶴眠松樹深難見

소나무에 학이 잠들어 깊은 숲 보기 어렵고,

犬吠仙家遠可聞

신선 사는 집 개짖는 소리 멀리까지 퍼지네。

此地元來市朝遠

이곳은 도회지와는 멀어진 곳,

幾人留住自離群

몇 사람들을 스스로 대중을 떠나 이곳에 산다네。

【字義】

○籠(롱)——대나무로 만든 수레。여기서는 구름 수레의 뜻。

○繞(요)——주위를 두름。

○市朝——저자와 관청이 있는 곳。도회지

【解義】

이곳山中은 번화한 도회지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閑寂한 곳에서도 오히려 정겨운 삶을 누리고 있다。

又

蔡 肖 巖

片片無心峴上雲

牛峴山 위에 한가로이 조각구름 떠 있어,

慣看自有暮朝分

가만히 보니 아침저녁 다르게造化된 구름이네.

樹梢攢合傾團盖

나무끝에 모인 구름 등은 덮개 기울여 놓은 듯,

石壁浮過錯繡紋

암벽위로 지나며 비단 무늬 놓은 듯.

靄彩訝從夕暉見

상서로운 구름은 黃昏 햇살에 곱게 비쳐지고,

淪淪喜得雨聲聞

뭉게 구름 피어올라 빗소리 반갑게 들려오네.

駕言易覓梯天路

수레라고 하늘 오를 수 있는 사다리 찾아 보는데,

星月仙官可與群

별과 달빛아래 仙境 官員과 함께 해보리.

【字義】

○ 攢合(차합) — 모여집의 뜻

○ 靄(홀) — 廣韻에 보면 瑞雲(상서로운 구름)의 뜻이라 했다. 古詩에 「何山靄雲臥眞仙、

寶訣青囊歸問之」라 했다.

○ 訝(아) — 迎也.

○ 淪淪(엄서) — 구름이 피어나는 모양. 詩經에 「有淪淪淪」의 줄임말

○ 駕言(가언) — 수레를 타는 것. 唐代詩詞典故에 뜻을 밝혔는데, 여기서 言字는 무의미의 어조

사라 했다.

【解義】 幻想의 仙境의 憧憬心으로 超越한 詩的 心像을 볼 수 있다.



又

李 澗 清

牛峴暮天常有雲

牛峴山 黃昏녘 구름이 항상 떠 있는데、

彌綸起處萬形分

天地 網羅하는 造化 생겨난 곳에 만물 형상이 나뉘네。

因風搖曳飛華蓋

바람은 꽃 날리듯 구름덮개 흔들여 모으고、

伴月霏微散繡紋

달빛 아래 가랑비는 비단 구름 흩어놓네。

不雨從龍難畫得

빗물없이 나는 용으로는 좋은 그림 얻기 어려운데、

避烟歸鳳但聲聞

안개 헤치며 돌아가는 봉황새소리 들려 오네。

不爲巖岫無心出

山中 巖穴 아니고서도 구름은 유유히 떠오르는데、

也應幽人友鹿群

깊은 山中人은 사슴떼들과 벗하며 즐기네。

【字義】

○ 彌綸(미륵) — 天地를 網羅하여 두루 다스리는 것。△ 詩詞典故 V 에서는 「包羅覆蓋」의 뜻이라 했다。

○ 不爲巖岫無心出 — 陶潛의 「雲無心以出岫」에 대한 표현에 대하여 좀더 敷衍(부연)된 周邊擴張의 表現

【解義】

만물은 造化의 本來的으로는 하나의 造化功의 氣運을 받고 생성된 것이다。구름이 悠悠히 떠오르는 光景을 지켜보며 산 짐승들과 정겹게 즐기고 있다。

又

## 黃 梅 石

瞻彼溶溶嶺上雲

저기, 마음 차분하게 해주는 봉우리 위 구름을 보라!

無心聚合或相分

悠悠히 떠있어 모인 구름도 흩어지기도 하네.

黑禽細雨將橫縷

빨간 응급열매에 가람비 내리고,

紅斷斜陽自織紋

지는 석양 붉은 빛은 비단무늬 수놓네.

神功如有飛龍隱

신비로운 조화는 날아가는 용의 숨은 재주와 같고,

仙標應多唳鳳聞

신선의 자취 봉황새 우는 곳에 볼 수 있네.

處士家中貽悅者

처사의 집안 즐거움 주는 자,

世塵不染亦超群

세상 티끌에 오염되지 않고 또한 出衆함이네.

【字義】 ○ 溶溶(용용) — 마음의 차분해지느 모양。〈楚辭〉에 「心溶溶不可量兮」라는 표현이 있다.

○ 黑禽(흑금) — 黑禽과 같은데 빨간 구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 仙標 — 신선이 나타나게 된 자취를 말한다.

【解義】 世俗의 汚穢(오예)에 물들지 않고 自然의 情景속에서 滿足을 하며 仙境에 優游하고 있다.

又

韓 廷 履

牛峴崔嵬暮起雲

山峴山 가파른 곳 黃昏 구름일어나,

東南英郁各相分

東南方 아름다운 빛 제각기 흩어지네.

晚風吹處成衣態

저녁 바람에 옷자락 나부끼고,

夕雨啣時潑黑紋

비 구름속 검은 무늬 빗발 치네.

白日昇仙淮竈去

밝은 햇살 아래 登天하는 신선 淮南당 竈神(조신)되어 떠나가고,

平朝幻女楚臺聞

아침날 환상의女神 노래소리는 楚나라 누대에 들려오듯 하네.

來遮落照收人淚

눈앞에 보이는 저녁놀은 사람의 눈물 거두어 주는데,

千古景公獨出群

오래도록, 日神은 홀로 出衆한 道를 지녔다네.

【字義】

○ 崔嵬(최외) — 높고 가파른 모양.

○ 啣(함) — 銜과 같은 字。包有의 뜻。△ 范仲淹의 詩에 「銜遠山吞長江」이라 했다.

○ 潑(발) — 四散注也(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의 뜻.

○ 淮竈(회조) — 淮南당의 竈神(조신 — 부뚜막신)。△ 淮南子에 보면 그믐달은 밤에 부뚜막에서 하늘에 오른다고 하였다. 여기서만 단지 昇天의 의미를 강조했다.

○ 景公 — 日神을 말한다. 公은 神의 代稱(稱神曰公)。

又

朱 晦 誠 堂

日斜牛峴暗生雲

黃昏녘牛峴山에 어두운 구름 생겨나는데,

莫使遊人教手分

雲山 모습 억지로 갈라 놓으려 해서는 안 되리.

時與東風歸作雨

봄바람 구름모아 비 내리고,

每隨落照著成紋

저녁놀 따라 무늬 놓은 구름 만드네.

巖間深鎖疑仙在

바위속 깊이 잠긴곳은 신선 사는듯,

嶺外高飛遠世聞

먼산 봉우리 구름날려 다른 세상에도 전해지리.

縱好此中怡悅意

이런 좋은 곳에 기쁜 마음으로,

將何鳥獸戒同群

같은 무리속 날짐승들 어찌 서로 경계하리요.

【解義】

雲山間의 정겨운 모습에 魅了(매료)되어, 누군가 이 光景을 깨지는 念慮하면서, 自然에 대

한 喜悅感을 同族性이 강한 날짐승간의 愛情으로 比喻하여 表現하고 있다.

又

## 申 屏 巖

淡氣油然作暮雲

청담한 기운 뭉게뭉게 일어 저녁구름 지어,

留情牛峴不相分

牛峴山에 대한 그리운 감정 오래 남아있네.

低臨人界遮塵累

인간세계에서 올려다보니 세상걱정 막아주듯,

高護仙區造壁紋

신선사는 성역 지켜 암벽 무늬 조각하네.

層彩濃邊花欲發

질들은 채색 구름가에 꽃이 피고자 하고,

奇峰起處鳥將聞

기이한 산 봉우리 웅숭음 친콧새는 날아가 보려하네.

影裏何聲天外返

해 그림자 속 형체없는 소리 하늘 끝으로 사라지는데,

數雙叫鳳又成群

수쌍의 부르짖는 봉황새 또 무리지었구나.

【字義】

○ 塵累(지루) — 티끌과 허물.

○ 鳥將聞 — 새도 장차 알게 되어 날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뜻.

【解義】

神仙이 사는 聖域은 汚染된 人間世上과는 懸隔하여 平穩하고 安樂한지라, 稀貴鳥인 鳳凰새도 자유

로이棲息(서식)할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又

## 申 月 潭

牛下夕陽峴上雲

석양빛 아래 산고개에 떠있는 구름으로 소 내려가는데,

似烟非霧杳難分

연기인지 안개인지 분간하기 어렵네.

寒鴉翻動山川氣

차가운 날 까마귀는山川기운 움직여 놀듯,

宿鳥投穿錦繡紋

지난밤 산새는 비단무늬 구름헤치며 날아가네.

巫峽雨來神女化

巫峽땅 神女의 조화로 비내리게 하고,

商岑棋落四人聞

商山の 네 老人들 바둑소리 즐겨 듣네.

箇中採藥誰知處

깊은 산중에 약초 캐면 누가 그곳을 알리요,

盡日歸郎俗不群

종일 노닐다 돌아오는 이 세속과 무리지지 않네.

## 【字義】

○ 寒鴉(한아) — 겨울의 까마귀(寒天의 烏鴉).

○ 宿鳥(숙조) — 하루밤 지낸 새.

○ 巫峽(무협) — 三峽의 하나. 湖北省 巴東縣 서쪽에 있음.

○ 四人 — 商酸四皓를 말함. (東園公·夏黃公·綺里季·用里先生(녹리선생)). 이들은 秦國末에 戰亂을 피하여 陝西省 商山에 은거하였는데 모두 白髮이어서 四皓라 한다.

【解義】 巫峽地方의 神女나 商山の 네 老人들이 있었던 곳처럼, 한가롭고 평온한 정경임을 읊고 있다.

又

蔡 梅 下

牛山無日不浮雲

牛峴山은 뜬구름 자주 찾아와,

萬像林梢別有分

森羅(삼라)한 숲속과는 달리 나뉘 곳.

鳳眠窈窕英英態

잠자는 봉황새 예쁜 모습,

龍起蜿蜒郁郁紋

꿈틀대는 용의 무늬 아름답네.

客郎奔走從何去

나그네 바삐 어디로 가나?

兒笛淒涼自此聞

아이 쓸쓸한 피리소리 들리네.

如霧非烟如許裏

자욱한 안개속,

夕陽在樹散鴉群

석양빛에 까마귀들 흩어지네.

【字義】○窈窕(요조)——예쁜모양

○蜿蜒(원연)——용이 꿈틀대는 모양。△易林△에도「蛇行蜿蜒」이라는 표현이 있다.

○郁郁(우우)——무늬있는 모양。

【解義】牛峴山에 용이나 봉황새 찾아드는 정경은 숲속에서 나그네는 분주한 밤방랑생활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적막한 사중에는 자욱한 안개속에 까마귀떼들만 쓸쓸히 날아다니고 있어, 나그네는 더욱 더 외로워진다.

又

韓 漁 隱

朝不爲雲爲暮雲

구름은朝夕으로 변하는데,

爲誰日日未層分

누구위해 날마다 뭇게구름 피어내는가!

光非夾峽仙靈幻

빛 신선의 황홀한 조화인것,

影異茫岑瑞彩紋

그림자 화려한 채색 무늬 같네.

依巖郁郁從龍起

자위속 용을 따라 나오며,

擁樹冥冥啼鳥聞

어두운 숲새소리 들리네.

石逕轉迷猶漸濕

촉촉히 저즈 돌길 해매고,

下山樵笛亂相群

下山하며 피리부는 초동서로 어울리네.

【解義】牛峴山에 날아오는 뭇게구름은 어떤 존재를 위해서 구름뭉치를 피어내는것하다. 햇빛의 황홀함은 신선

의 조화인것 같아 찬란한 빛의 그림자도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운 정경속에서 하루일과 마치고 피리부며, 돌아오는 초동의 모습들이 더욱 정겹게 느껴지도록 하는 詩的描寫가 表現되었다.



又

徐 槐 軒

歸牛峴上遠生雲

멀리 저 구름 牛峴山으로 돌아가고,

卽看如烟暮色分

안개 낀 저녁 경치가 눈에 들어오네.

光從霽樹開圖面

밝은 햇살 숲속 아름답게 비추는데,

影帶斜陽動繡紋

석양의 해 그림자 비단무늬 춤추듯.

山晴一抹烏頭見

산속 맑게 개니 바곶플 보이고,

風掃中空唳鶴聞

하늘가 바람에 학우는소리 들리네.

童子松門人寂寂

동자는 소나무 문고요히 지키는네,

這間採藥倘仙群

이 가운데 약초캐며 신선과 함께 노니네.

【字義】

○ 暮色分—저녁 경치가 뚜렷이 나뉘어짐.

○ 一抹—한번 그림자를 칠해 놓은 것 같음.

○ 烏頭—성.란꽃과에 속하는 宿根草. 바곶. 毒草로서 風濕症이나 半身不遂에 씀.

【解義】

구름과 안개 자욱한 산속 隱者는 童子홀로 집지키라하고, 藥草캐며 신선들과 노닐고 있다. 바곶플도 발견하고 학소리 들으며 悠悠自適하게 脫俗의인 仙境에서 自然과 同遊함을 노래하였다.

又

李 小 青

山人相對暮雲歸

산중에 사는이 저녁구름 바라보며,

閒意無差一半分

한가로운 정서 마음껏 즐기네.

許同茅嶺多千片

우거진 산봉우리들 천조각인데,

羞近芒岑鎖五紋

뾰족한 산 화려한 무늬 놓였네.

靑浮洛水何須說

洛水(낙수)의 푸른 물결이느니,

紅隱蓬萊但所聞

蓬萊山속 붉은 경치 아름답다우리.

仙鶴爾能知此景

仙鶴도 이 경치 즐기텐데,

不從塵舊立鷄群

닭모여 사는 티끌진 세상 벗어나리.

## 【字義】

○ 茅嶺(모령) — 띠를 덮어 높고 험한 우거진 산봉우리.

○ 芒岑(망잠) — 가시처럼 뾰족한 산봉우리.

○ 鎖(쇄) — 머물러 있는것.

## 【解義】

洛水물결 같은 산출기에蓬萊山을 방불케하는 아름다운 경치속에서 作者는 어지러운 세상을 잊고  
仙鶴과 함께 즐기려는 脫俗의인心情을 노래하였다.

又

巫峽雲前不是雲

巫峽의 구름은 이곳 구름경치만 못한데,

也應一朶到斯分

한떨기 구름여기에 와 흠어지네.

孝誠誰望孤飛白

효성된자, 누가 외로이 나는 흰 구름바라보리,

歉稔吾占五色紋

凶년에 五色구름무늬 점쳐 보네.

林鶴縱心聊可見

숲속 白鶴은 마음껏 즐거워 하는듯,

劉鷄響遺亦如聞

햇대의 닭우는 소리 들려오네.

怡悅意無持贈帝

기쁜 마음 하늘에 전할 수 없지만,

囂塵焉敢雜爲群

시끄러운 세상과 어찌 어울릴수 있겠나!

## 【字義】

○ 巫峽(무협)——三峽의 하나. 巫山の 구름과 비유하기 위해서 쓴 표현인 듯함.

○ 歉稔(점임)——凶年을 말함.

○ 劉——劉杙。여기서는 楓대의 뜻이므로 櫟로 본다. △爾雅釋宮▽。△說文▽에서는 弋은 櫟也라 했고, △爾雅▽에 「雞棲於弋爲櫟」이라 했다.

○ 囂塵(효진)——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말함.

又

他山之石起朝雲

다른 산에서도 아침 구름 일어나는데,

當暮無餘萬一分

해 저물어 모두 사라졌네.

出岫多情頻送雨

巖穴에서 나와 비 내리고,

從龍變態自成紋

용을 따라 화려한 무늬 만드네.

彩凝芒澤猶堪說

멀리 연못위 채색 구름 떠 있는데,

靑繞洛橋不足聞

행길 다리에는 풀빛 전혀 없네.

牛峴在耶天地沒

牛峴山 남아 있고 天地만 사라진 듯,

人間何物敢能群

인간 세상 어떤 사물이든 무리질 수 있겠는가?

## 【字義】

○ 芒澤(망택) — 멀리 보이는 연못. 茫은 遠也의 뜻.

○ 靑繞(청요) — 푸른 풀빛이 둘러쌈. 靑은 色.

○ 洛橋(낙교) — 행길가에 있는 다리. 洛猶路也 〽文選〽.

○ 天地沒 — 해가 지게 되어 天地의 모습이 안보임.

# ◎ 黃龍朝雨

晚 圃

潛伏龍兒口乳朝

숨어있는 용새끼 아직 젖떼기 이른데,

雲膚雨足共飄飄

구름같은 살결 빗줄기 같은 가는 발로 함께 나부끼네.

簸盡圓紋難破塊

먼지 털구어 내도 등은 무늬 화려한 덩어리 깨지기 어렵고,

皺回斜影漸通潮

주름진 햇살, 기울어지는 그림자 점점 바닷물에 이어지네.

潤聲玉散迎梅地

매화나무에 옥같은 빗방울 뿌려지고,

雜色珠聯折柳橋

버드나무다리에 화려한 구슬방울 매여져 있네.

幾處管絃多韻咽

관현악 연주하여 운치있는 목소리 들려오는데,

向山神女坐無聊

山中神女는 앉아있기 한가롭네.

【字義】○簸盡(파지)——키로 파붙듯이 먼지를 털어냄。「凡物翻播曰簸」라 했다。△說文▽。

【解義】어린 용이지만 아름다운 몸집으로 바람에 날리듯 나부끼고 있다. 용의 조화로 화려한 빗줄기의 구슬  
비 내리지는 속에서 음악연주하며 詩的 韻致를 즐기고 있다.

又

石 農

千載黃龍雨一朝

천년 무은 황룡 하루 아침 비 내려

昨紅葵朶盡飄飄

어제 핀 붉은 해바라기 꽃가지, 바람에 나부끼네.

急注竹樓聲是瀑

대나무 누대위 쏟아붓는 빗소리 요란하고,

飛流銀漢氣通潮

날아드는銀河水의 기운 바닷물위로 이어지네.

長峴牧童纔住谷

긴 고개 골짜기에 목동은 잠시 머물러 있고,

玉溪漁客促登橋

玉溪川 고기잡는 나그네, 다리오르기 재촉하네.

問爾負舟何意思

물건데 그대는 어떤 의미로 배를 지고 옮겨 다닌는가?

悵望禹穴坐無聊

하는 일 없이 앉아 슬피 禹穴 바라보네.

【字義】

○ 葵朶(구라) — 해바라기의 꽃가지.  
 ○ 纔(재) — 잠시.  
 ○ 禹穴 — 神祕로운 책이 가득어진 곳.

【解義】

黃龍이 비를 내린 뒤 갠 하늘가에는 銀河水 펼쳐져 바다와 이어지고, 배를 지고 옮겨 다니는 어부의 발걸음 부추한다. 그러나 한가로운 作者의 心情은 좀더 색다르게 시비한 서적을 갖고 싶어한다.  
 禹穴(우혈)에 대하여 살펴보면 藏書之地를 말하는데, 〆九土文括略〆에 「禹禪會稽山、有一石穴委曲、黃帝藏書于此、禹得之」라 했고, 〆李白·送二季之江東〆에 「禹穴藏書地、匡山種杏田」이라는 표현들이 있다.

又

## 嚴 三 寓

杳日江天柳色朝

어두운 햇살아래 江天의 버들잎 파란 아침,

隨風霏霏引飄飄

바람결에 가람비 나부끼네.

旅裝久竚難行路

나그네 옷차림으로 우두커니 험한 갈 길에서 있고,

醉睡殘醒暗听潮

술취해 잠자다 보이지 않는 징후 느껴 잠 깨네.

牧豎輕簑烟浥崖

목동은 안개 축축한 언덕위에 가벼운 도롱이 차림으로 오르고,

釣翁小笠露沾橋

고기 낚는老人은 이슬 젖어든 다리를 작은 삿갓쓰고 선고 있네.

詩情憑得霏霏處

시의 정저로움을 보슬비 내리는 곳에 의지해 보며,

坐納微涼意自聊

산들거리는 청량감에 마음 저절로 즐거워 지네.

## 【字義】

○ 霏霏(맥묵) — 가람비.

○ 竚 — 우두커니 서 있는 것.

○ 暗听潮(암안조) —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들려오는 微候。听은 聲也。潮는 외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凡物於木質之外、有所加染者)。

【解義】바람결에 가람비 내려지는 속에서 詩的情趣感이 무르익고 있다. 안개속에서의 목동과 이슬맞는 고기잡이 老人을 통하여 閑寂한 情景를 더욱 느낄 수 있다.

又

## 廉 石 樵

柳色新青一雨朝

비내린 아침 버들잎 푸른빛 더욱 새로워,

古湫腥氣伴風飄

옛 연못 비린냄새 바람과 함께 나부끼네,

溪流激石噴飛瀑

시냇물 흘러 세차게 밀치는 바위돌 사이 폭포수 뿜어 내듯,

野渡橫舟帶晚潮

들녘 나루터 가물건너는 배 저녁기운 서려 있네.

急注雷鳴聞遠鼓

우뢰소리 내며 쏟아지는 빗줄기 멀리 북소리 울리듯,

乍晴虹飲作仙橋

잠시후 갠 하늘가, 구름속 무지개 잠겨 신선의 다리 만들어 놓았네.

滿村古木炊烟裏

마을古木들마다 안개 자욱한데,

愁濕鶯聲堪聽聊

마음의 시름 괴괴리 소리에 젖어들어 즐겁게 들려오네.

【字義】

○ 激石(격석) — 물살에 세차게 밀치는 바위돌.

○ 虹飲(홍음) — 무지개가 구름속에 잠겨 있음의 뜻. 飲은 沒也. △漢書朱家傳V의 注에 보면 「虹, 沒也, 謂不稱顯」이라 했고, △後漢書蔡邕傳V의 注에는 隱의 뜻으로 보았다.

【解義】

요란한 소리내며 내리는 빗줄기도, 거치면 아름다운 무지개로 하늘아래 신선의 다리가 되어 차란한 모습을 이루어 놓는다. 근심하던 차에 괴괴리소리 듣고 나면 절로 마음은 흐뭇해지다는 것이다.



又

李 三 隱

曉起黃龍雨送朝

새벽녘에 일어난 黃龍, 아침에 비를 내리는데,

虛涼風物轉飄飄

서늘한 감주는 風景들 바람에 나부끼듯.

竹韻成簫仙駕鶴

대나무 발은 피리소리 내듯, 신선은 학타고 가며,

松濤如海客聞潮

솔숲 물결이 루어 바다같은데 나그네 潮水물결 알아보네.

微浥精神懷柳舍

정신을 윤택하게 하여주는 버드나무집 생각하고,

早躋消息問虹橋

이른 소식 알고 싶어 부지개 다리에 묻노라.

點點零零清爽意

점점 떨어지는 빗방울에 기분 상쾌한데,

聽來不覺坐無聊

홀로 적적한 감의식하지 못하네.

【解義】

清涼한 風物들이 나부끼는 모습 지켜보며 自然과 정다운 이야기들 나누고 있다. 영웅이 적셔주는 빗

방울에 기분 상쾌해지고 홀로 無聊함 마저 의식할 수 없게 된다.

又

李 松 溪

黃龍戲水又今朝

黃龍은 오늘 아침 비 내려,

雲霞昏沈風且飄

구름 안개 침침하지만 바람에 나부끼네.

浹洽前郊能潤物

뜰앞 촉촉한 기운 만물을 적시고,

滂沱平地忽生潮

빗물 밀물처럼 평지에 밀어닥치네.

鳥嫌林濕依牆壁

비젖은 수풀가 산새끼려 담장벽 기대고,

魚喜溪深度石橋

깊은 냇물 고기들 즐겨 돌다리 지나네.

若使茫增望是氣

만약 아득한 이런 기운들 바라보게 한다면,

以爲五采坐無聊

한가로운 가운데 찬란한 光景이 되리라.

【字義】

○ 浹洽(협합) — 사방에 널리 퍼짐。

○ 滂沱(방타) — 비가 쏟아지는 것(沛然)

○ 五采(오채) — 靑、黃、赤、白、黑의 다섯 색。

【解義】

뜰앞 草木에 촉촉히 내린 비만물에 作者는 興趣感에 젖어 있고, 화려한 萬物靜觀을 볼 수 있다。

又

## 金 杞 泉

黃龍崛起雨平朝

黃龍은 거세게 아침비를 내리는데,

忽送風雷葉自飄

바람과 우뢰로 초목 잎새 뒤 흔들리네.

愁濕嬌鶯穿遠樹

근심스런 예쁜 피꼬리 멀리 나무숲 헤쳐가고

詫肥老鰕上新潮

몸 불어난 듯한 늙은 쏘가리 밀려오는 물결위로 오르네.

漁舟網泄桃花浪

고깃배 그물치며 복사꽃잎 떠있는 물결로 떠가고,

客舍盃停柳色橋

나그네 술잔들며 버들잎 파란 다리가 에 머무네.

灌稻村翁因種樹

논에 물대는 시골노인 나무도 심어 가꾸는데,

十年營計詎無聊

十年 계획에 어찌 즐거움이 없겠는가!

【字義】○ 網泄(망설)——그물을 넓게 치는것. 泄은 散也(管子注)。

【解義】아침나절의暴雨로草木들은 놀라듯, 잎새 뒤흔들리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것은 늙은 쏘가리이다.  
맑게 갠 뒤山村老人은 논에灌溉에 힘쓰고 또한十年之計를 위하여 나무를 심고 가꾼다.

又

金 蘇 山 先生

雲黑黃龍浦上朝

아침 黃龍村 갯가 검은 구름일어

霏微雨色更飄飄

가람비 내리며 나부끼네。

拾收魚網方回棹

고기 그물 거져 노저어 뱃머리 돌리고,

噓盡蜃樓也漲潮

임김불어 蜃氣樓(시기루) 사라지니 밀물이 불어나네。

鳴鶴低飛蘆外埗

황새는 울며 갈대밭 두둑으로 날아가고,

起虹忽插柳西橋

무지개는 서쪽 버드나무 다리에 꽃혀있네。

釣叟烟波何趣足

안개이는 물결 낚시하는 老人은 어찌 만족스런 정취감 있겠는가?

獨垂簑笠坐無聊

홀로 도롱이와 삿갓쓰고 한가로이 앉아있네。

【字義】○噓(허)——임김으로 부는것。

○蜃樓(시루)——詩文典故에는「바닷속에서 사는 一種의 동물로서 古代傳說에는 이 동물이 누대 모양과 城市의 형상을 토해 냈다고한다. 실제로는 光線의 파장이 공기층에서 밀도가 달라 굴절 현상이 일어남」으로서 공중, 지면, 해변, 사막등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했다.」고 기록되었다.

【解義】自然속의 황홀한 현상들을 一時的이어서 그러한 상황이 경과한 후에는 虛無함이 남겨져 쓸쓸한 老人의 心思는 더욱 한가로워지는 듯하다。

又

朴 昌 和 先生

芳草萋萋浥雨朝

아침비 젖어든 꽃다운 풀들 무성한데,

風前楊柳正飄飜

바람에 산들대는 버드나무 잎새들.

三春遊客鞭征馬

봄날 즐기는 나그네 말 채찍질하며,

一片漁舟逐上潮

한 조각 고깃배 바닷물결 거슬러 오르네.

黃鸝愁濕坐高樹

괴꼬리 높은 나무에 앉아 근심 젖어있고,

白鳥飛底過斷橋

백조는 높다란 다리아래로 날아가네.

潤氣施流滋萬物

윤쾌한 기운 널리 만물을 양육하는데,

在田龍德不無聊

토지에 미친 임금님은 은혜에 모두들 즐거워하리.

【字義】

○ 萋萋(치치) — 무성한 모양.

○ 黃鸝(황리) — 괴꼬리. 黃鳥。

○ 龍德 — 임금님의 은혜

【解義】

아름다운 경치속에서 고기잡는 어부의 모습과 산새들 지저귀는 모습보며, 또한 편안히 살게 해주신 임금님의 德性을 찬양하고 있다.

又

## 趙 松 菴

烟雲漠漠黃龍朝

黃龍村 아침 아득히 안개구름 끼어,

秋雨蕭蕭灑落颿

가을비 쓸쓸히 바람에 휘날리네.

眼界直飛千尺瀑

千尺의 폭포같은 빗물 시야에 들어오고,

風外驅來萬里潮

넓은 바닷물 모여려 바람은 먼데서 구름 몰고 오네.

扶桑霧鎖翻起雷

동해 자욱한 안개에 번뜩이는 우뢰소리,

遠水蟬橫轉作橋

먼 강물이 위로 무지개 다리가로 질렀네.

誰識天翁造化力

누가 하늘의 造化功을 알 수 있을까?

默量一一坐無聊

일일이 기쁨은 생각에 한가로워지네.

【字義】○ 蟬(체) — 무지개.

【解義】造化功의 神祕로움에 沒入되어 變化되는 恍惚(황홀)한 理致를 생각하느라 悠悠히 愁悶을 지키며 繪畫的인 心像으로 自然을 描寫(묘사)하였다.

又

## 金 致 萬

遙看黃龍雨細朝

멀리 黃龍村 아침 가랑비 내리는 정경 바라보니,

亂隨風力與烟飄

어지러이 바람안개 뒤섞여 나부끼네.

雲影況如山吐靄

구름 그림자는 산이 가득 토해낸 듯.

溪聲完似海喧潮

시냇물 소리 바닷가 밀물소리 같구나.

樵童停笛屯巖穴

樵童(초동)은 피리 불며 바위굴에 머물러 있고,

釣子穿魚喚柳橋

고기 낚는 아들 녀석 고기 꿰어 버드나무 다리에서 부르네.

管來容易閒情得

내포된 心情속에 한가로운 정을 얻기 쉬운데,

助我心神耳自聊

나의 心神은 저절로 즐거워질 뿐이네.

## 【字義】

○ 況如(황여) — 더욱 : 과 같다. 況은 강조하기 위한 표현.

○ 屯(둔) — 머무는 것.

○ 管來 — 內包된 心情을 가져오는 것. 管은 包也.

## 【解義】

內面の 心理는 外部的 景色의 情趣感에 자극을 받아 心神이 즐거워지는데 樂觀的으로 自然景觀을 驅使(구사)하였다.

又

## 沈 晚 溪

頃刻霏微是會朝

아침나절 잠깐 가람비 내리고,

誰教石燕舞飄飜

누가 바람 타고 다니는 돌로 하여금 춤추듯 나무끼게 할 수 있겠는가?

潤生草木能施峰

생기둥은草木들 산봉우리 에 돋아나 있고,

漲落川渠未作潮

시냇물 불어났지만 범람하지는 않네.

霽應斯速徒盈耜

맑게 갠 하늘 밝은 빛 보습 가득 비추고,

注但其崇詎沈橋

굵은 빗발 내렸지만 다리까지 잠기진 못하네.

所懷何在人爲滯

회포란 어찌 사람의 마음에 宣暢되지 못하겠으리오만,

獨坐虛堂自不聊

홀로 빈 집에 앉아 즐거움 나누지는 못하네.

## 【字義】

○ 石燕—零陵山の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날으는 돌。△北齊書樊遜傳△에 「湘中石燕、沐風雨而群飛」 또 △初學記△에 「零陵山有石燕、遇風雨即飛、止還爲石」이라 했다。

○ 崇—빗방울이 굵은 것(厚也)。

○ 滯(체)—여기서는 감정이 宣暢되지 못하는 것。△後漢書△注에 「滯는 不達也」라고 했다。

## 【解義】

비가 갠晴天 아래 축축하게 젖어든 山川속에서 햇빛에 비추어진 은택한 光景을 玩賞하고 있다。하지만 作者의 외로운 심정은 쉽게 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又

徐 華 岬

天不清明會是朝

오늘 아침 맑지를 못하는데,

悠然雲葉正飄颻

한가로이 구름은 잎새처럼 나부끼네。

點點落窓疑散玉

옥알은 구름 창가에 내려 앉은 듯,

蕭蕭入樹忽聞潮

고요한 숲에도 구름 자욱 큰비 내리려는가?

驚過箏笠誰垂釣

백로는 대 삿갓위 지나 누가 낚시질 할 것인가?

驢背油衣客過橋

당나귀는 油衫(유삼)을 등에 지고 나그네와 함께 다리를 지나네。우

天不清明會是朝

오늘 아침 맑지를 못하지만,

吾人初遣那無聊

내 처음 나들이 하는 지라 어찌 즐겁지 않았겠는가?

【字義】

○ 油衣—油衫(유삼)이라고 하는데, 기름을 막역한이나 비를 막을 수 있게 만들어진 입근 다디단 옷。

【解義】

질은 구름끼어 큰 비를 예상하게 된다. 백로가 노는 곳에서 낚시질이 안되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뜻이 情景를 즐겨보려는 의도가 보인다。

又

蔡 肖 巖

龍氣濟西見早朝

용의 기운은 서쪽 하늘 이른 아침에 보이는 듯,

雲生黑葉遠飄颻

지름은 구름 저 멀리 나부끼네.

山橫露脚輕沈煦

산중에 깔려있는 이슬 햇살에 잠겨,

水點錢紋細聽潮

가물에 동전같은 원두니 퍼져 밀물이 그럭 높을 것인가?

汗應齊道揮沾袵

빠른 걸음 재촉하며 옷기름뻑 적시고,

車或星河洗渡橋

은하수 건너는 수레로 다리지나네.

普洽公私忻慰望

安樂한 바램에 物我는 하나 되어,

稻概繁實等椒聊

백백한 곡식 열매 알알이 여는 산초나무 갈무리.

【字義】

○ 濟(제) — 昇也(오름).

○ 露脚 — 草木에 이슬이 젖어 있는 아래부분. 脚은 「物之低下處」라 했다.

○ 煦(후) — 日光. ○ 齊道 — 갈리길 서두름. 齊는 疾也. ○ 普洽 — 널리 안락함.

○ 忻(흔) — 기쁨의 뜻

○ 概(개) — 稠(빽빽한) 주(주)와 같음의 뜻

○ 椒聊 — 山椒(산초) 나무 열매인데 무성하게 열매가 알알이 맺힌다. 聊(료)는 의미없거나 어조사의

데, 毛傳에 「椒聊曰山椒也」라 했다.

又

李 澗 清

雲雨黃龍待崇朝

구름비 품은 黃龍 아침 되기 기다린다.

始然瀟灑更飄飄

비바람 치며 나부끼네.

遶樹生冥輕合霧

침침한 안개 나무 두르고,

橫江打白忽驅潮

강물 위 흰구름 흘리는 바람 밀물 몰아내듯.

歸船收網翻魚浪

그물 걷지는 어선 고기 출주는 물결 타고 돌아오고,

行客休鞭立馬橋

길가는 나그네 다릿가에 말 매두고 쉬어가네.

晚來去作甘霖用

해 저무는 때 장마비 내리니,

庶使斯民樂且聊

사람들 즐거워 어쩔줄 모르네.

【字義】

○ 瀟灑(소쇄) — 비바람 치며 비를 뿌림.

○ 遶 — 둘러싸고 있는 것.

○ 甘霖 —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장마비.

【解義】

承句의 生冥과 打白 표현이 장마비 내릴것을 豫見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루 일과 마친 뒤 서늘한 빗 소리에 즐거워하며 詩의 情趣感을 느낄 수 있다.

又

## 黃梅石

今雨尚如舊雨朝

오늘 아침 예전날은 비 내리는데,

黃龍這裏白鷗飜

黃龍있는 곳 흰 갈매기 날아드네.

流聲添漲千溪腹

시냇물 세찬 소리 감물마다 불어나고,

盈科將通萬里潮

웅덩이가득찬 물도 먼 바다까지 흘러가리.

未歸旅橐留孤店

나그네 전대메고 외딴 전방에 머물러,

却理漁簑下短橋

도롱이 쓴 어부 짚막한 다리에서 내려오네.

纔浥輕塵猶不足

가람비는 겨우 먼지 적실만한데,

占年野老坐無聊

한해 점치는 들녘의 노인 한가로이 날을 보내네.

【字義】

○ 這(저)——이것.

○ 千溪腹——모든 시냇물의 水心。

○ 盈科(영과)——웅덩이에 물이 가득참. 科는 坎也。△孟子△에『盈科而後進』이라는 말이 있다.

○ 旅橐(여탁)——나그네의 전대

【解義】

가람비 내리는 수에서도 감물마다 불어나는데, 주위들녘에서 사는 노인은占이나 쳐보며 한가로이 지내고 있다.

又

韓 廷 履

龍氣滿空雨會朝

용의 비내릴기운 하늘에 가득한 오늘 아침,

風前木葉散飄飄

바람에 산들대는 나뭇잎 나뭇잎네.

懸崖頃刻翻新瀑

높은 언덕가에 갑작스런 폭우 쏟아지고,

絕澗疏通退急潮

가파른 계곡의 세찬 물결 밀물도 물리칠듯.

刺意方濟鄜上蝦

무정함도 鄜邑 땅 무지개 아래 다정해지듯 하고,

囂塵初浥渭西橋

어지러운 세상 티끌 渭水 서녘 다리에 젖어든듯 하네.

地黃美酒趁晴熟

맛좋은 地黃酒 잘 익어가는데,

醉坐東窓與子聊

東窓 아래 그대와 함께 슬취하며 즐거워하네.

## 【字義】

○ 絶澗 — 가파른 계곡의 물가.

○ 刺意 — 자극적인 의도. 매정함. 刺는 「不思念」 또는 「暴戾無親」의 뜻이라 했다 〔周書注〕.

○ 鄜 — 殷紂王(주왕)의 都城의 일부분.

○ 囂塵(효진) — 시끄러운 세상의 티끌.

○ 浥 — 젖어 드는 것.

○ 地黃美酒 — 생지황으로 담그는 술.

## 【解義】

山野의 화려한 情景속에서 風流를 즐기기도 좋은 약주 한잔에 더욱 정겨운 詩的인 맛을 볼수 있음을 이다.

又

## 朱 晦 誠 堂

地在黃龍雨在朝

땅에는 黃龍村 있고 비는 아침나절 내리려는데,

雨餘風葉轉飄飄

비바람에 나뭇잎새 나부끼네.

行潦縱橫迷失路

진창길 우왕좌왕 길을 헤메는데,

澗流翻漲急生潮

계곡 물살 세어져 밀물 같음 세력 생겨나네.

芳草原頭翁聽水

꽃다운 풀의 들녘 늙은이 물소리 듣고,

杏花村外客登橋

살구꽃 핀 마을밖 나그네 길 떠나려 다리에 오르네.

天猶難盡人人悅

하늘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줄수 없거니와,

遠旅歸愁不自聊

먼길 떠나는 나그네心思 과로워 즐겁지 못하리.

【字義】○ 行潦(행료)——진창길.潦는 빗물이 많아 땅에 고여있는 모양. △通訓定聲△에 「雨水大貌」라 했다.

【解義】하늘은 萬物을 化育하고 人間에게도 幸福을 내려주지만, 개개인 모두다 滿足스럽게 欲求를 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의 處地에 대한 不遇함에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오직 自己努力에 힘써야 할 것이다.

又

申 屏 巖

風吹幾時雨一朝

언제 바람 일었나? 하루 아침에 비내리는데,

黃龍物色帶飄飄

黃龍의 화려한形色속에 바람결 나무끼네.

紅日天心低接岫

中天의 붉은 햇살 산봉우리 비추고,

蒼苔溪面急成潮

푸른 이끼진 시냇물 세찬 물결되어 흐르네.

荷鋤人歸沙汰路

삼 등에 진 사람은 모랫밭 날리는 길로 돌아가고,

撈竿誰向水沈橋

낚시대 끌고 누가 다리 잠긴곳에 고기 낚으리요.

又有隣翁纔罷睡

이웃집 老人 잠에서 깨어났는데,

閒聽簷滴坐無聊

처마 밑 낙수 소리들으며 한가로이 날을 보내네.

【字義】

○ 荷鋤(하산) — 산을 등에 지고 일터감。

○ 撈(수) —引의 뜻(集韻)。

○ 沙汰路 — 모랫밭의 길을 씻어 내듯이 일어난다는 뜻

【解義】

갑작스런 빗물로 시냇물은 크게 불어났는데, 사람들의 동작은 멈추어지고, 한가로이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自然의 詩의 情感을 描寫하였다.

又

申 月 潭

黃龍里落趁崇朝

黃龍村 아침이 밝아오자,

雨下霏微樹下飆

가랑비 내려 숲속에서 나무끼네.

已自平明能潤物

밝은 햇살 돌아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듯,

未過半晌忽聽潮

정오의 반도 되지 않은 때 무득 밀물 소식 들네.

催炊野老奔簑笠

장작불 피우려 들녘 노인은 도롱이와 삿갓쓰고 달려가고,

臨發行人滯柳橋

길떠나는 나그네 버드나무 다리에서 쉬어가네.

灌圃山翁巾角墊

채소밭 물대는 산옹(산옹)의 두건 축쳐져 있는데,

待其晴午坐無聊

한가로이 맑게 갠 하늘 기다려보네.

【字義】

○ 崇朝(승조) — 새벽부터 조반먹을 때까지의 사이. 즉 아침.

○ 晌(상) — 正午.

○ 墊(접) — 꺾이는 것. 角墊(각점)이란 두건이 땀에 젖어 그 모난 모양이 축쳐진 모양.

【解義】

山中田園속에서 비가 갠 뒤 다시 山村 사람들은 활동을 시작하는데, 淸閑한 自然景觀속에서 素泊한

隱人들의 生活狀을 느껴 볼 수 있다.



又

蔡 梅 下

黃龍崗上雨終朝

黃龍村 산에 아침비 개었는데,

風自何方樹葉飄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 나뭇잎흔드나!

蕭洒滌塵山入畫

산 먼지 씻어내니 그림속의 산되고,

霏微潤磴野生潮

물이 가랑비에 들녘안개 오르네.

牛羊冒立青泥坂

뛰는牛羊들 언덕 진창길도 모르고,

鷗鷺衝過白石橋

갈매기, 백로 흰돌다리위로 곧게 나르네.

客滯江亭歸不得

나그네 강가 정자에서 돌아갈줄 모르고,

愁聽滴滴坐無聊

낙수소리에心思 슬퍼지네.

## 【字義】

○ 山入畫—그림같은 산경치。

○ 野生潮—들녘안개 기운이 피어남。潮는 微候의 뜻。

○ 冒立(모립)—어려움에도 무릅쓰고 심。

○ 泥坂(니판)—지혈기의 언덕。

○ 衝過(충과)—돌지하며 지나감。衝(충)은 向也 〓山海經注〓。

○ 滯(체)—머물러 있는 것。

又

韓 漁 隱

靄靄霏微終一朝

가람비 아침에 그치고,

隨風山爾片雲飄

산위 구름 바람에 나부끼네.

柳色漸新隣客舍

이웃客舍 버들잎 더욱 푸르고,

溪聲稍大帶春潮

시냇물 불어 봄날 바다에 가려하네.

倦娥汲轆爭來鼎

예쁜 여인 물길어 솔 채우려,

遠客征驢急渡橋

나그네 당나귀 타고 다리 건너 급히가네.

人散江亭猶未歇

사람들 강가 정자에서 즐기는데,

鶯何愁濕坐無聊

그심찬 피꼬리 소리 들려오네.

【字義】

○ 靄靄(맥묵) — 보슬 보슬 내리는 가람비。

○ 汲轆(급록) — 물을 길어 올리는 기계。轆(圓轉木)으로서 도르레를 말한다。

○ 鶯(앵) — 피꼬리

【解義】

가람비 내리는山村마을에서 봄이난 가을보며 정자에 모여 즐기는 마을사람들의 모습이 정겨롭다。

又

徐 槐 軒

一天龍氣雨崇朝

하늘가 용서린 기운 아침비 내리고,

黑葉雲心海上飄

바닷가 먹구름 나부끼네.

田家遲餉催烟火

인가에는 불때며 밥짓는데,

野瀆增源宛水潮

들녘의 도랑물 불어나네.

杏花停馬山頭店

살구꽃핀 높은산에 말매두니,

柳色行人渭上橋

버들잎 나부끼는 다리에 나그네 지나네.

穩注不長能潤物

잠깐내린 가랑비 만물을 적시고,

寒窓睡罷坐無聊

쓸쓸한 창가에 잠깨어 외로이 앉았네.

【字義】

○ 崇朝—아침나절.

○ 黑葉—뭍게진 먹구름.

○ 遲餉(지향)—식사준비가 잘 안됨.

○ 山頭店—산에 말을 매두니 그곳이 마치驛站(역참)같이 느껴진다는 뜻. 店은驛站의 뜻.

【解義】

山中의 高孤한 생활속에서 나그네가 한가로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촉촉하게 내린 가랑비에 만물이 생기는 듯 한데 작자는 외로이 앉아 창가를 마주 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又

李 小 青

蝥螋在東注頡朝

아름다운 무지개 동쪽하늘에 펼쳐져,

滿庭花葉共飄飈

뜰안 꽃잎도 함께 나부끼네.

懸崖散出無中石

산 언덕에 흩어지는 굽은 빗발,

斷壑翻生料外潮

깊은 골짜기물 갑자기 불어나네.

野老聽沈依短杖

들녘 노인 짚은 지팡이 짚고 귀기울이는데,

漁郎病涉從橫橋

어부 괴로워 다리에서 배회하네.

鄉隣咫尺還相阻

이웃 길 가까우면서 험한데,

空使詩人坐自聊

풍월 읊는 이 정겨워 하네.

【字義】

○ 蝥螋(철노) — 무지개

○ 注頡(주힐) — 길게 펼쳐짐.

○ 無中石 — 서로 부딪쳐 맞지 않는 돌. 굽은 빗발에 험명한 것.

○ 料外(요외) — 생각밖으로. ○ 從橫 — 우왕좌왕

○ 阻 — 굽은 길의 사잇길의 막힘.

【解義】

무지개 뜨고 꽃잎도 나부끼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자 모두들 놀라는 모습이다.   
 詩想에 젖어든 나그네 홀로 즐거워 하고 있다.

又

洞設龍宮遠市朝

외진 산골짜기에 龍宮 만들어

朝朝佳景雨絲飄

아침마다 아름다운 경치속에 빗줄기 나부끼네.

終始無聲徒潤物

고요한 가람비 만물적시고,

去來有信不羞潮

맑고 갠 분명하지만 물 범람하지 않네.

連日原頭封蟻垤

들녘 개미들 득쌓느라 바쁘고,

隨時天畔掛虹橋

하늘가 때로는 무지개 걸려있네.

荷杖往聽田水響

지팡이 메고田地 물소리 들으며,

扶吾藥餌以行聊

내 약과 음식으로 즐기 날을 보내네.

【字義】

○ 市朝—도회지。도시

○ 去來有信—비가 오고 갠이 확실한 것.

○ 封蟻垤(봉의지) —개미더미를 쌓음。

○ 天畔(천반) —하늘 끝。

○ 藥餌—약과 먹음。

【解義】

郷土의 인 僻村의 비내리는 정경속에서 作者는 純粹한 自然現象들을 보고, 불어날 물소리 들으며 즐기 이 藥物과 음식으로 老後를 靜養하고 있다.

又

黃龍雨亦渭城朝

黃龍村의 비는渭城朝雨와도 같아,

洞壑輕塵不起飜

골짜기 먼지 일지 않네.

荷葉池塘成碧玉

연못의 연꽃잎 푸른 옥빛 띠고,

桃花院落作紅潮

집안의 떨어진 복사꽃잎 붉은 바다 같네.

養生萬物均沾塊

흙을 적시며 만물을 기르는데,

適中三農未漲橋

농사철에 제때 내려 범람하지 않네.

借問誰亭名以喜

문거대 누가 흥亭이라 이름졌나?

一時微事反無聊

일없을 때는 도리어 지루해 지네.

## 【字義】

○渭城朝——王維의 詩中「渭城朝雨浥輕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黃龍朝雨와 비교하고 있다.

○三農——春·夏·秋의 농사.

○微事——일이 없음.

## 【解義】

黃龍村의 아침비는 中國渭城의 朝雨를 방불케 하는데, 축축한 물방울이 大地를 적셔 五穀百花를 풍요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春·夏·秋 三農事에 한발이 들지 않고 농사에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됨을 노래하고 있다.

◎ 玉溪落照 晚 圃

黃金輪落赤波溪

붉은 물결 시냇가 달빛 비추는데,

自樂園禽上下啼

정원의 새들 즐거이 지저귀네.

杵鳴遠驛聲相急

다듬이 소리 먼驛站(역참)까지 들려오고,

雲簸殘山影不齊

구름은 초라한 산에 흩어져 해 그림자 어수선하네.

鴉避炊烟投巷北

까마귀는 안개연기 피해 북쪽 마을로 날아가고,

牛隨牧笛入村西

소는 목동을 따라 서쪽山村으로 가네.

何事斜風簑笠客

어째서 저녁 바람은 도롱이와 삿갓쓴 나그네에게 몰아닥치나?

行吟澤畔得棲棲

연못가에서 시 읊으며, 이곳저곳 옮겨 다니네.

【字義】

- 黃金輪——황금으로 된 수레바퀴. 즉 달을 말한다.
- 杵(지)——다듬이 방망이
- 雲簸(운파)——구름이 흩어짐 (翻播)의 뜻
- 唼(금)——△漢書△에 「秋風爲我唼」이라 했는데, 그注에 보면 唼字는 옛 吟字였다고 한다.
- 棲棲(서서)——일정한 곳에 안정됨이 없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 △論語△에 「丘何爲, 是栖栖(棲棲)者與」라 했다.

【解義】

夕陽의 노을진 하늘 아래에서 鄉土의인 田園의 情景를 描寫하고, 季節感覺에 銳敏한 放浪人을 노래하였다.

又

石

農

落照照吾下玉溪

저녁 노을빛 내게 비치지는 듯, 玉溪川에 내려가 보니,

哀猿何事向人啼

애처로운 원숭이 어째서 사람보고 슬피우는가?

青山隨影三分倒

青山의 그림자는 흘러져 거꾸러져 있고,

大陸皺回一抹齊

大陸(대륙)의 어수선향도 가지런히 하네.

雁聲高起歸雲北

이러기는 소리내며 구름진 북녘을 향해가고,

鷺背劇乾入塞西

백로는 험한 하늘 등지고 서쪽 변방으로 날아가네.

懶收蓑笠來而已

나른히 도롱이와 삿갓으로 돌아올 뿐인데

忽覺浮生此地棲

문득 덧없이 이곳에서 삶을 깨닫네.

【字義】

○皺回(추회)―구름진 모습으로 어수선향게 벌려져 있음의 뜻. 回는 亂의 뜻으로 봄.  
○浮生―덧없는 人生 〵詩文典故〵에 「虛浮無定的人生」이라 했다.

【解義】

애처로운 원숭이 울음소리에 서늘퍼지고, 철새들 음직임에 계절의 감각을 느끼며 한가로이 덧없이 삶을 깨닫는다.



又

## 巖 三 寓

依山一色返沈溪

맑은玉溪川은 산과 一色 이루고,

溪樹蒼蒼鳥亂啼

숲속에 찾아든 새 슬피 지저귐다.

鳥喙遺書嘆有越

까마귀 제 부리로 책을 전해 주니 영탄스럽고,

牛岑獨步泣其齊

牛峴山에서 홀로 걸으며 눈물을 흘리네.

杳如漁艇江天末

江天에 멀리 고깃배 보이고,

井下樵歌澗峽西

서쪽 계곡에는 나뭇꾼 노래소리 들리네.

靑烟遠驛稀迷裏

푸른 산 안개 낀 먼驛站(역참)길 희미한데,

况復彷徨客杖棲

방황하는 나그네 지팡이 집고 머물곳 찾네.

【字義】 ○ 鳥喙(오뎅) — 까마귀 부리.

○ 嘆有越 — 영탄스럽고 더욱 황홀해짐의 뜻

○ 泣其齊 — 눈물을 금하기 어려움. 齊는 難禁의 뜻(韓非子)

○ 稀迷(희미) — 어렴풋이 분간하기 어려움. 唏는 彷彿(방불)의 뜻.

【解義】 까마귀도 책을 물었다 전해 주고, 산속 풍경을 즐기며 感懷에 젖어있다. 일정한 거처없이 나그네의  
 心은 아랑곳없이 荒涼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又

## 廉 石 樵

白石層層一玉溪

玉溪川에는 하얀돌 쌓여있어

沙明日落鳥來啼

夕陽의 맑은 모래에 새 찾아와 우네.

揮戈曾有功歸魯

전쟁에 공을 세우고魯나라로 돌아왔던 옛武士들,

下淚空悲客宿齊

회한에 젖은 나그네들齊나라땅에 머물렀으리.

楓葉流丹深巷北

부녀 우거진 거리 붉은 단풍잎 밝게 빛나고,

烟光凝紫暮山西

서산 황혼의 노을 빛 화려한네.

斜暉漸掇隨雲盡

저녁 햇살은 구름과 함께 사라지는데,

故教鷄孫升櫟棲

일부러 병라리들도 화에 올라 잡들게 하네.

【字義】 ○掇(철) — 여가서는 햇살이 모이는것.

○櫟(갈) — 화

【解義】

黃昏의 夕陽에 지는 노을의 光景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이 화려하다. 장차 사라지는 저녁 놀이 아쉬

워 병라리들도 구경시켜 주고자 높은 화에 앉아 있게 해놓았다. 해학적인 표현으로서 自然景觀을 美化하고 있다.

又

李 三 隱

遙望金鳥下玉溪

太陽빛은 玉溪川을 밝게 비추어,

浮霞點點淡烟啼

노을 빛 점모양 안개의 눈물인듯.

俠心慷慨悲歌趙

호협한 사나이 趙나라에서 슬픈 노래 불렀고,

世事差遲感淚齊

어려운 인생살이 齊나라에서 눈물 흘리던 옛생각 나네.

一三星彩懸生北

화려한 별빛들 북녘땅에 반짝이고,

千百山心擎在西

수많은 산줄기들 서쪽으로 뻗어있네.

緩步從容歸意晚

황혼녘 느린 걸음이라,

佇看幽鳥共投棲

산새나는 모습 보며 함께 보금자리로 돌아가네.

【字義】

○ 金鳥(금오) — 태양을 말함. 태양속에 세발달린 까마귀가 산다고 함. △淮南子精神訓△에 「日中有跋鳥」라 했고, △漢書高誘注△에 「跋猶蹲也, 謂三足鳥」라 했다. 여기서 三足이란 陽의 奇數를 상징함.

○ 擎 — 드는 것.

【解義】 찬란한 햇빛을 金鳥란 표현으로 더욱 美化시켰다. 自然의 情景에 흥겨워 산새와 함께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又

## 李 松 溪

蒼蒼返照玉沈溪

맑은 햇살 玉溪川에 비치는데,

陰翳樹林禽鳥啼

음침한 숲속 산새 지저귀네.

浮光隱映金精躍

반짝이는 金星은 약동하듯,

倒影虛明鏡面齊

밝은 해그림자 거울속에 선명히 비쳐지네.

亂起炊烟村上下

자욱한 안개연기 마을에 가득,

歸來樵笛巷東西

돌아오는 樵童의 피리소리 온동네 들러오네.

水勢玲瓏流曲曲

굽이진 영롱한 물결,

幽人不必碧山棲

隱君子, 굳이 산속에서만 살필요 있었나!

【字義】○ 金精—金星의 異稱

【解義】햇살에 비친 玉溪川의 영롱한 비다들결은 금성이 뛰어나듯 거울에 비쳐지듯 하여 詩의 情感에 陶醉되었다. 靑山の 경치만 좋게 아니라 이곳 시냇물 경치도 壯觀이라는 結句의 表現이 魅惑的(매혹적)이다.

又

## 金 杞 泉

落照斂紅掛玉溪

저녁 노을 붉은빛은 玉溪 比추는데,

林禽何樂盡情啼

산새들 어찌 즐거움 다하고 울기만 하나?

英雄虛老狂歌楚

옛 영웅들 楚歌 부르며 헛되이 세월 보내었고,

富貴如空下淚齊

부귀도 실체 없어 齊나라 땅에서 많은 눈물 흘렸으리.

搗杵忙應在上

방아 찰는 토끼 달나라 올라갔고,

咸池烏浴願無西

서쪽 바닷가 목욕하는 까마귀는 어둠의 서쪽 없어 지길 바라네.

枯僧不識人間劫

山寺의 여원 스님 세상 사람들의 겁탈 모르고 사는 데,

花雨諸天臥碧栖

하늘로부터 많은天花가 내려 푸른 산에 내려앉네.

## 【字義】

○ 搗杵(도저) — 방아를 찰는 것.

○ 咸池 — 서해바다를 말하는데, 해가 여기에서 목욕을 한다함. △淮南子天文訓△에 「日出于暘谷, 浴于咸池」라고 했다(暘谷 — 해돋는 골짜기)。漢代王逸은 注하기를 「咸池, 日浴處也」라 했다.

○ 願無西 — 어둠이 찾아 오는 서방이 없이 항상 목욕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람의 뜻.

○ 花雨 — 雨花。佛法을 說教할 때天花가 비처럼 내려온다는 뜻。轉하여 佛經의 說法 講議함을 형용하는 말。△法華經·化城喻品△에 「時諸梵天王雨衆天花五百由旬, 香風時來吹去萎花, 更雨新者, 如是不絕」이라 했다.

又

## 金 蘇 山

落日亭亭下玉溪

지는 햇살은 玉溪川 밝게 내리쬐이는데,

群禽投向暮林啼

저무는 숲속에 산새들 지저귀네.

山容蒼鬱頭頭壓

을창한 산의 모습 제각기 늘려지듯,

海國通明物物齊

잘 가꾸어진 섬나라 사물마다 가지런하네.

大塊如崩聲更靜

지구는 무너질듯 고요해지는데,

半天欲裂勢將西

넓은 하늘 분열되려 기운이 서쪽으로 몰리네.

晚從何處金烏沒

황혼의 지는해 어디로 사라질 것인가?

若木蕭蕭不借栖

나무들 쓸쓸한데 보금자리 빌릴수 없겠네.

【字義】

○ 海國—삼면이 바다인 나라.

○ 半天—中天

○ 勢將西—땅거미질 무렵 모든 大氣의 기운이 서쪽으로 모여듦의 뜻.

○ 蕭蕭—쓸쓸한 모양.

【解義】

作者는 黃昏녘 西天하늘의 기운이 沒入되는 夕陽의 光景을 보면서 외로이 寂寂함을 달래고 있다.

又

朴 昌 和

落照紅紅照玉溪

붉은 햇살의 저녁 놀은 玉溪川 밝게 비추고,

玉溪流盡猿禽啼

물흐름 잔잔해지자 산새와 원숭이 서글피 우네.

波心魚集金銀躍

물결 줄기속 금은빛 물고기들 뛰어놀고,

海際帆還霞驚齊

돛단배 먼 바다에서 돌아오니, 노을빛과 물오리 나란히 나네.

源深十里青蘿北

연원 깊은 북쪽 靑蘿는 十里에 이어지고,

地接千年月嶽西

넓은 땅 千年의 서쪽 月嶽山에 접하고 있네.

靈境由來多絕勝

본래 聖域에는 아름다운 경치 많은 법,

行人疑是柳公栖

길가는 이, 혹 唐나라 柳公權이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네.

【字義】

○ 波心 — 파도 줄기.

○ 柳公 — 柳公權을 말함. 唐나라 때의 畫家

【解義】

玉溪川 흐르는 山村은 十里 밖 靑蘿面의 地帶에 연원을 두고 서쪽 月嶽山에 접해져 있는데, 이곳 또한 靈妙한 기운이 서려있는 勝地임을 이 詩로서 재 確認케 해 주고 있다.

又

趙松菴

返照如流沈玉溪

물결같은 夕陽빛 玉溪川에 잠겨있는 듯,

滿天霜氣雁空啼

하늘가 서리맞은 기러기 외로이 우네.

蜃樓秋郭人悲楚

가을날 幻形(환형) 보며 사람들 괴로이 슬퍼하며,

牛背斜陽客泣齊

소등위로 지는 햇살 비취 나그네 눈물 흘리네.

千里思朋段露夜

갈대 이슬 맞은 밤 千里밖의 벗 생각하고,

百年多病桑榆西

오래 무은 병으로 老年 보내게 되었네.

自知白髮餘懷感

백발머리로 감회에 젖었는데,

爲蝶爲周何處栖

나비되었다던 莊子는 어디서 살고 있나?

## 【字義】

○ 秋郭(추곽) — 가을의 기운이 퍼져있는 周圍.

○ 悲楚 — 슬퍼하고 괴로워함.

○ 桑榆(상유) — 黃昏. 해질녘에 비치는 햇살이 뽕나무와 느릅나무 끝을 비추고 있었다는데서 저녁의 뜻으로 쓰임. △ 初學記에 「日西垂景, 在樹端謂之桑榆」라 했다. 또는 轉하여 老年의 뜻으로 사용함. △ 劉鑠의 擬古詩에 대한 李善의 注를 보면 「日在桑榆, 以喻人之將老」라 하였다.

○ 爲蝶爲周 — 나비가 된 莊子. 周는 本名. △ 莊子齊物論에 보면 「꿈에 장자가 나비가 되되, 깨후 장자가 나비가 되었는지, 나비가 장자가 되었는지 의심하였다는 말로 自我와 外物은 본시 동일하다」는 것이다. (物我一體說).



又

金致萬

金鷄洞下玉灘溪

金鷄洞 아래 여울진 玉溪川 있는데、

落日蒼蒼百鳥啼

밝은 햇살지는 夕陽빛에 새들 지저귀네。

惜寸曾聞禹氏夏

夏禹氏는 寸陰을 아꼈고、

泣暉更有景公齊

齊景公은 햇살을 보며 슬퍼했네。

驚收閒影盟沙畔

한가로운 해그림자속 백로는  
모래독에서 정겹게 놀고

水迎清光畫壁西

맑게 빛나는 물결 서쪽벽에 무늬놓아보네.

且看空山雲朶映

쓸쓸한 산에 구름꽃이 피어나듯,

松端倒掛鳳驚栖

소나무 끝에 등지 친 봉황새 놀라네。

【字義】○惜寸—禹惜寸陰。△典論▽에 보면 「古人賤尺璧而重寸陰、懼乎時之過已」라 했다.

【解義】 禹의 보문은 尺璧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寸陰을 아꼈다는 교훈적 내용을 들어 시간적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勝地의 景觀을 玩賞함으로써, 永劫속에서 循環變遷되는 人生(無常)을 위로하며 自然을 노래한 詩이다.

又

## 沈 晚 溪

羨童其孰憶杣溪

仙童 살던 杣溪川 누가 기억할 수 있겠는가?

爲此知應拊髀啼

알 수 있다면 발을 치며 좋아하리.

黃散千金范蠡越

千金 부자였던 越나라 范蠡(범여)와

紅搖大海仲連齊

큰 바다를 요동시킨 齊나라 仲連을 생각해 보네.

閃爍形團看出沒

번쩍이는 등근 햇살, 出沒의 모습 볼 수 있고,

窈明勢異辨東西

낮과 밤의 현상으로 東과 西 구별해 놓네.

一墮孤藤迷失逕

한번 등나무 덩굴속에 빠져나갈 길 잃으면,

正看宿鳥返林棲

쇼속 등지친 새들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볼 수 있으리.

## 【字義】

○ 羨童(선동) — 신선의 세계에 사는 아이, 羨은 神仙의 姓氏

○ 杣溪(엄계) — 杣(엄)은 梅와 통하는데 (說文) 매화꽃 필 무렵 물이 많이 불어나는 시냇물.

○ 拊髀啼 — 다리를 치며 환호함. 매우 좋아함의 뜻.

○ 范蠡(범여) — 楚나라 사람으로 越王句踐을 도와 會稽의 치욕을 씻고 吳나라를 멸망시켰는데, 후에 富豪가 되었다.

○ 閃爍(섬삭) — 번쩍이는 것(= 閃爍)

○ 窈明(요명) — 어둡고 밝음. 晝夜

又

徐 華 岨

影返金鳥沒玉溪

밝은 해 그림자 玉溪川에 잠기고

重重寒樹亂禽啼

쓸쓸한 나무들 사이로 요란한 새우는 소리.

蕭蕭黃葉流無盡

퇴색한 낙엽들 수없이 떨어지고,

簇簇青山立不齊

길게 이어진 靑山들 들쭉날쭉.

分明驚影莓苔上

백로 그림자는 산속 이끼에 비쳐지고,

凝紫烟光石壁西

화려한 햇살 西山의 돌벽을 밝히네.

將斂城紅松欲暮

붉은 빛 도는 성곽의 소나무 칙칙해지는데,

倦飛野鳥亦歸棲

지쳐나는 들새도 보금자리 찾아가네.

【字義】

○ 簇簇(족족) — 많이 모여 있는 모양.

○ 莓苔(매대) — 이끼

【解義】

길게 이어진 靑山위로 하얀 백로는 날아가고, 밝은 햇살은 주위를 수놓은 듯하다. 해가 지고 나면 모든 물살들의 움직임이 멎어지는 것이다.

又

蔡 肖 巖

玉溪黃嫩幻金溪

玉溪川의 연한 황금빛은 金溪가 되는 것이지,

感老吾生笑更吟

늙어가는 이 내 몸 다시 한번 읊조리네.

匪寶寧稱照車魏

魏王은 화려한 보물을 수레에 가득 실었었고,

如炎疑近縱牛齊

齊王중에는 불같이 날뛰는 소의 성격같은 이도 있었다네.

午亭何代空懷古

정자에서 공연히 옛날 회상하는데,

寅錢無人自納西

저물어 구경할 사람없자 해는 저절로 서산으로 들어가네.

若木扶桑相望遠

만일 神木이 日出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朱鳥那處欲歸棲

朱雀은 어느곳에서 편안히 잠자려 하겠는가?

【字義】

○ 照車—照乘珠를 말함. 햇살의 밝은 빛이 수레에 가득실은 보물과 지추를 밝게 비추어 주다는 뜻으로 人材 많음을 비유한 표현.

○ 寅錢無人—玉溪川의 경치를 도읍내고 더 봐줄 사람이 없는것. 즉 해가 저물어 모두 돌아갔음을 뜻한다. 여기서 寅은 引出의 뜻으로 본다.

○ 縱牛—出典未詳

又

李 澗 清

薄海殘陽倒玉溪

바닷가 지는 해는 玉溪川에 倒影되는데,

遊人憑眺笑兼啼

나그네 눈웃음치고 환호하네

春心杜宇魂歸蜀

봄날의 소쩍새는 蜀나라 생각하듯,

世事公侯淚下齊

세상은 공평하여 公侯爵도 눈물 흘릴일 있다네.

暮暮輕烟家上下

黃昏녘의 안개는 집안에 가득하고,

萋萋芳草路東西

꽃다운 무성한 풀들은 길가에 수북히 돋아났네.

山翁尚有幽情愜

山中의 老人은 그윽한 뜻에 만족한데,

群動囂塵自得棲

시끄러운 세상 티끌속에서도 보금자리 찾게되네.

【字義】

○ 杜宇—소쩍새의 별칭。△禽經▽에「江左曰子規、蜀右曰杜宇」라 했다。蜀魂도 또한 소쩍새의 별칭。

○ 愜(협)—만족스러운것.

○ 囂塵(효진)—시끄러운 세상티끌

【解義】

蜀나라 望帝의 혼백이 사후에 소쩍새가 되었다는데, 이 정겨운 소쩍새 소리 들으며 山中 老人은 自然의 景觀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又

## 黃梅石

夕暉怳惚散清溪

夕陽의 밝은빛 황홀하게 맑은 시냇물 위에 퍼져 있는데,

楓葉蕭蕭鴉亦啼

쓸쓸한 다흥잎 아래 까마귀우네.

牧笛堪憐皇叔漢

목동은 피리블며 漢皇叔을 가련히 생각하고,

淚襟遙隱景公齊

눈물을 옷깃에 적시며 齊景公을 측은히 여기네.

縷紅影射青山外

靑山밖 밝은 해그림자는 곱게 퍼지고,

雲赤輪潛碧海西

서해상의 붉은 구름속에서 해는 잠기네.

應照玉人幾百年

거의 백년동안 美人들 비쳐왔는데,

平生欲擬一心棲

평생 변함없는 안식처로 살고자 하네.

【解義】

自然의 道는 恒久如一하게 四時를 運行하고, 天地를 循環하며 萬物을 化育하고 있다. 黃昏의 光景

속에서 勝地의 生動感있는 現像들을 美化하면서 描寫하고 있는데, 出沒의 일정한 현상을 가지고 있  
는 해를 본받고자 했다.

又

韓 廷 履

荏苒落暉返玉溪

점점 기울어지는 햇살은 玉溪川을 비추는데,

亂聲林樹鳥相啼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요란하네.

論心前路歌生趙

앞날의 길을 생각하며 趙나라에서 歌舞를 즐겨보듯,

嗟耄蒼山淚下齊

푸른산 대하고 눈물을 탄식하니, 齊나라 땅에서 눈물 흘리듯하네.

昏柄催回天轉北

北斗星의 자루는 옮겨지려는데,

赤輪摩盪海傾西

붉은 태양은 西海바다로 다가가네.

賢愚貴賤年光裏

賢愚와 貴賤이 무상한 세월속에서

並是塵寰暫息栖

어지러운 이 세상과 함께 잠시 쉬어가리.

## 【字義】

○ 荏苒(임연) — 시간이 점차 경과 되어감을 현용하는 말. △張華△의 勵志詩에 「日與月與、荏苒代謝」라고 했다.

○ 歌生趙 — 歌舞를 기려는 마음이 趙나라에서 생겨남.

○ 摩盪(마탕) — 가까이 접근하며 움직임. 摩는 近也 盪은 動也.

○ 塵寰(진환) — 市中の 俗人이 사는 곳. 이 세상. 蘇軾의 詩를 보면 「不知門外有塵寰」이라 하였다.

又

朱 晦 誠 堂

一抹斜陽倒玉溪

색칠해 놓은 듯한 夕陽빛은 玉溪川 비추는데

樹陰散亂送雁啼

그림은 숲속위로 시끄럽게 울며 날아가는 기러기 모습 보이네

行露團團花欲濕

길가의 동은 이슬 꽃잎에 젖어들었지,

谷烟細細草相齊

골짜기의 연은 안개는 풀과 어울리네.

牧笛催忙歸野外

목동은 피리불며 교외로 나가고,

樵歌乘暮下山西

초동은 노래하며 저문 서산에서 돌아오네.

景公何事當年泣

齊나라 景公은 어째서 그리도 슬퍼했던가?

無乃群生總是棲

이에 백성들은 살고 있을 일었었네.

【字義】○團團(다다)——동은 모양

【解義】山中 田園의 平穩한 모습을 노래하였고, 그러한 속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일었었던齊나라 景公時代에 관한 애기로 悔恨을 남기고 있다.



又

## 申 屏 巖

洞出深崗轉玉溪

햇살은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玉溪川으로 옮겨 지는데,

鴉翻落照數聲啼

까마귀는 夕陽속에서 날며 울어대네.

樓移海影眞飛越

누대에는 바다에 비친 해 그림자 황홀하게도 나타나고,

簾對山光更整齊

발에는 산빛 비추어 정교롭네.

曠曠氣像俄還北

아침에 뜬 해는 벌써 中天에 있는데,

怳惚精神盡在西

황홀하게도 점점 서쪽의 모습 떠오르네.

日至高春知不遠

곧 네시경 해는 지려는데,

家鵝野鷺擇眞棲

집거위와 물오리는 제 등치 찾네.

【字義】○ 曠曠(동동)——머뭇이 틀 무렵。△陸機△의 文賦注에 「曠曠、欲明也」라 했다。

○ 高春(고용)——오후 네시경。△淮南子天文訓△에 「日至淵虞日高春、至連石日下春」注에 「淵虞、地名、高春、時加戌、民確春時也」라고 했다。

【解義】怳惚(황홀)한 夕陽의 지는 모습에 정신이 魅了되었는데, 한가로움속에서 집거위와 물오리들이 잠잠한 모습을 하고 있다。

又

## 申 月 潭

落照斂紅沈玉溪

붉은 저녁 노을 빛玉溪川에 잠겨져 있는데,

古樓蒼壁復鳥啼

푸른 암벽의 옛 누대에는 까마귀 다시우네.

過堤漁笠身何健

삿갓쓰고 득 지나는 어부는 어찌 그리 강건한가?

倒水螺鬟影不奇

물결 뒤엎는 듯한靑山의 그림자 변함 없네.

正看牛羊時有下

소와 양떼들 돌아가고,

堪憐葵葉向于西

해기우는 서쪽 향해서 있는 해바라기 안타깝구나!

景公去後幾人泣

齊景公이 죽은 뒤 몇 사람들이 울었단가?

哀彼五星山上樓

저 하늘의五星들만이 산속 누대를 비추고 있네.

【字義】○螺鬟(나환)——靑山

【解義】夕陽을 바라보며 서있는 해바라기를 통하여 日沒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으며, 古人의 자취없어진 지  
 200년 별들만 반짝이어 그들의 낮이 닳아 없어 비추어 집을 餘韻으로 남기고 있다.

又

## 蔡 梅 下

冉冉斜陽下玉溪

夕陽 밝은 빛 玉溪川 비추고,

知還禽鳥隔林啼

숲속 산새들 지저귀네.

易水悲歌荊軻衛

易水(역수)에서 슬피 이별가 부른 것은 衛荊軻요.

牛山感淚景公齊

牛山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齊景公이라.

京華何在人猗北

한양 사람들 어찌 북쪽에만 사는가?

若木無邊海圻西

이곳 서해지방 나무 우거진 곳 있다네.

影入峨嵋開畫面

해 그림자 비친 높으신 아름다운데,

漁翁樵客各安棲

고기잡는老人과 나무하는 나그네 안락하게 살고있네.

## 【字義】

○ 冉冉(염염) — 여기서는 노을이 가득한것.

○ 易水(역수) — 河北省에 있는 江名。荊軻가 燕國太子丹과 헤어진곳。荊軻(형가)는 저주시대 刺客인데 太子丹을 위해서 秦王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그에게서 죽음을 당하였다.

○ 京華 — 京師를 말한다. 도읍지.

○ 猗北(의북) — 북쪽을 의지해 있음.

○ 峨嵋(아양) — 높으신 산.

又

韓 漁 隱

玉如水碧潞洄溪

푸른옥 빛물결 回流하는데,

禽鳥亦應知樂啼

산새도 즐겨 지저귀네.

鷺去無涯山腹越

백로는 끝없이 산을 넘어가고,

蟬鳴不已樹腰齊

매미는 쉬지않고 나무매달려 우네.

走馬征鞭杜陵北

말채찍질 하며 杜陵 북쪽 달려가고,

銜盃呼姬峴山面

술자놀이 아내 부르고 峴山에서 즐기네.

景光無恨黃昏近

黃昏의 아름다운 경치에 만족하는데,

羊亦下來鷄入樓

양은 돌아오고, 닭도 보금자리로 드네.

## 【字義】

○ 潞洄(형회) — 물결이 回流하는 모양.

○ 山腹越 — 산고개를 넘어감.

○ 銜盃(함배) — 술자놀이 함. 銜은 呑也.

## 【解義】

사충 매미소리 지저귀는 정경은속에서 술자놀이 흥취감 돌리며 즐기니 있다. 해진 黃昏의 양떼들이 산에서 즐겨놀다 돌아오고 닭도 보금자리 찾아가고 있다.

又

徐 槐 軒

落日翻紅照玉溪

아름다운 저녁노을빛 玉溪를 비추는데,

水聲如咽鳥空啼

물결소리에 새들도 지저귀네.

光沈狹藪相分起

햇살 山村에 잠겨 주위 환해지는데,

影歛寰區獨淚齊

해그림자 사라져 홀로 눈물 흘리네.

千家山遠牛羊下

먼산 소와 양떼 내려오고,

百棹波明雁驚西

맑은 물결 노저을 때 기러기와 물오리 서쪽 날아가네.

長時焉得扶桑路

햇살은 한곳에만 머무를수 없는데,

一借金烏返故棲

황금까마귀 타고 잠잘곳으로 돌아가네.

【字義】

○ 狹藪(협수) — 좁고 어두운 山村

○ 寰區(환구) — 온 세상.

○ 金烏(금오) — 해속에 산다는 세발달린 까마귀를 말한다.

○ 故棲(고서) —日出 준비를 위해 달의 반대쪽에 있는 동안 밤쪽.

又

李 小 青

金是爲輪玉是溪

황금달빛이 玉溪를 비추는데,

禽聲上下盡情啼

산새들 즐겁게 지저귀네.

遲留易水人其衛

衛나라 荊軻는 易水에 오래 머물렀고,

獨笑牛山子亦齊

齊나라 景公은 牛山에서 홀로 웃음지었네.

初旭清涼移海底

아침 밝은 햇살 바다속으로 옮겨져,

殘暉荏苒倒崦西

남겨진 노을빛 서산 거꾸로 비추네.

翁年俱與斜陽暮

老年에 夕陽과 함께 보내며,

懶逐村鷄返故棲

닭을 등지로 몰고 있네.

【字義】

○ 初旭(초옥) — 아침 햇살

○ 荏苒(임연) — 시간이 자꾸 미루어지는 모양. 노을빛의 여운을 형용함.

○ 崦西(엄서) — 西山. 崦은 崦嵫를 말함인데 甘肅省 天水縣 서쪽에 있는 산. 해가 지는 산이라 함.

【解義】

西山에 지는 夕陽 노을 빛을 아쉬워하며, 作者는 자신의 老年을 崦嵫山에 비유해보고 있다. 清閑한 사촌의 삼숙에서 외로운 닭을 닭을 몰면서 위로 하고 있다.

又

溪名以玉是名溪

시냇물 玉字로 이름져 名溪가 되었는데,

落照爲悲可號啼

지는 저녁놀에 마음슬퍼져 부르짖네.

有期漁事收同急

마음을거워 고기잡는일 기약하고,

無數禽聲亂一齊

수많은 새소리 요란하네.

暝色已生雲漢北

구름끼 북쪽 은하수 어둑 찾아와,

纈紋偏隱莓苔西

西山에는 이끼무늬 숨겨졌네.

紅染碧岑樵笛裏

푸른산 노을빛에 樵童은 피리부는데,

牛羊隨下亦難棲

소와 양도 따라와 잠들기 어렵네.

【字義】

○ 暝色(명색) — 밤경치

○ 纈紋 — 무늬

○ 莓苔 — 이끼

【解義】

玉溪에서 보이는 저녁놀에 마음슬퍼진다. 산새들 지저귀는 속에서 물고기 잠으며 作者의 心情은

童心이 된 듯 즐겁기만 하데, 西山에 걸린 저녁노을빛 아래 樵童은 소와 양떼몰고 피리부며 歸家길을 늦춘다.

又

落日蒼蒼下玉溪

노을빛 어두워져 玉溪에 내려오며,

怡然一笑悵然啼

한번 웃음에도 다시 슬퍼지네.

黃竹樓望迎月獨

외로운 달빛 黃竹樓 지추고,

滁翁亭值散賓齊

滁翁亭 손님들 흠어져 돌아가네.

南薰俄處涼如此

남쪽바람 불어와 서늘한데,

東出何時業已西

해 뜰때 일하여 해질녘에 마칠 수 있었는가?

閒中亦一奇觀物

한가로이 괴이한 형체 바라보는데,

乃識無妨此地棲

이곳에 살아 손해볼일 없구나.

## 【字義】

○ 蒼蒼—주위가 어두워지는 모양.

○ 悵然(창연)—슬퍼하는 모양.

○ 南薰(남훈)—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 【解義】

玉溪川 흐르는 물보며 정자에 會合하여 있는 손님들과 夕陽의 노을빛 아래 흥흥한 바람쐬면서 돌아  
가고 있다. 아름다운 노을 경치에 경탄하고, 造物主의 神祕로운 造化에 만족해하는 作者의 心情이  
描寫되었다.



## ◎ 鞍峙歸笛

晚 圃

緩尋芳草得遲歸

연한 꽃다운 풀을 구경하니 귀가길 늦어 지는데,

暖律支離送落暉

夕陽속에서 노래가락소리 울려 퍼지네.

裊來梧葉玄雲布

검은 구름끼고 오희표새 나부끼는데,

吹盡楊花白糝飛

쌀알 드날릴때 버들꽃 춤추듯.

輕逐雨絲風外縐

빗줄기는 바람밖에서 주름무늬 지듯,

細分錦繡月中衣

고운 비단 구름은 달의 옷이라네.

舌端妙曲哀兼怨

가냘픈 곡조 부르는데,

靜者襟期識者稀

말없는 이의 마음속 기약을 누가 알리오.

## 【字義】

- 緩尋—느린것을이므로 찾아다님.
- 支離—홀어짐
- 裊來(요래)—입새가 나부끼는 모양
- 白糝(백삼)—흰쌀알.
- 縐(추)—주름진 무늬 모양.
- 襟期(금기)—마음의 기약

## 【解義】

郊外에 나가 夕陽빛 아래 노래가락 드높이며, 自然의 情趣에 同化되어 風月을 즐기는데, 가냘픈 곡조속에는 남모르는 未來志向의 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又

石 農

一聲吹笛有人歸

어디에선가 피리소리 下山하는 이의 귓가에 들려오는데,

鞍峙至巔掛夕暉

鞍峙峴(안치현) 마루에 夕陽빛 비추네.

溪山將暮雲初起

구름끼인 골짜기 어두워지고,

林壑殊深鳥倦飛

깊은 숲속에 한가로운 산새들 나네.

伐木樵夫空佩斧

벌목하는 나뭇꾼 도끼를 가뿐히 메고가며,

下機懶婦忘裁衣

베틀에 손편 게으른 부인은 마름질할 옷 잊었네.

八音愛爾參於竹

八音중 管樂을 좋아하지만,

猶勝守琴識者稀

거문고 소리가 더 좋은 것을 남들은 잘 모르리.

【字義】○ 八音—金·石·絲·竹·木·土·匏·革—로 된 악기.

【解義】깊은 山村에서 산새는 지저귀고 피리소리 들려오는데 淸響한 거문고소리 듣자면 더욱 흥겨운 情趣

感에 젖어들 것이다.

又

## 嚴 三 寓

在前在後待余歸

나를 기다리는 반가운 靑山

最勝新晴帶晚暉

맑게 갠 하늘에는 夕陽빛이 좋아 보이네.

清飄花峽溪禽語

바람에 나부끼듯 꽃핀 골짜기에 산새 지저귀고,

洒落松柵野鶴飛

소나무 울창 씻어 주듯 白鶴이 날아 드네.

羞白樵丁齊白足

밝은 태양 아래 가랑비 맞는 나뭇꾼은 아랫바지 걷어 올리고,

踏青豎子拂青衣

청산에 오른 동자는 푸른 옷의 먼지 털구네.

且休奏盡楊梅曲

버들노래 즐기면 연주하는데,

其奈春城見者稀

그 어찌 春城에서 봐주는 이가 적겠는가!

## 【字義】

○ 羞白 — 밝은 햇살 아래 내리면서 사라지는 가랑비.

○ 齊 — 자락을 걷는 것.

○ 踏青 — 靑山에 오름.

○ 豎子 — 동자

○ 拂 — 먼지 따위를 털어는 것.

## 【解義】

김은 골짜기 꽃피곳에 산새 놀러와 지저귀고 白鶴이 날아드는 곳에서 봄날 버들노래 부르며 自然의 純粹性을 노래하고 있다.

又

廉 石 樵

脫鞍在地馬先歸

말안장 내려놓고 말부터 내려보내고,

樵笛猶存帶夕暉

피리부는樵童은 남아 夕陽을 빛을 구경하네.

裂石淒涼高曲轉

갈라진 바위들 한심하게 굴러내려오고,

落梅飄散暗聲飛

떨어지는 매화꽃 흩어져 저녘 바람에 날리네.

也應捲葉吹成韻

나뭇잎 마는듯한 바람소리 운치있는데,

幾是思鄉淚濕衣

고향생각에 눈물이나 옷을 적시네.

風便聞來知不遠

바람소리가 압게 들려오는데,

疎星七點滿天稀

성인 일곱점의 별들만 하늘에 펼쳐져 있네.

【解義】

고향떠난 나그네의情緒는 쓸쓸한 바람소리를 듣게되자 더욱 緊張感이 高調되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자기故鄉에도 비쳐지고 있음을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자식을 위로하고 있다.

又

李 三 德

悠揚短笛騎牛歸

짚막한 피리 불며 소등 타고 돌아오니,

兩兩三三帶夕暉

가 지런히 늘어선 저녁햇살 비치네.

戛入雲端峰角咽

가볍게 떠있는 구름 높은 산봉우리 에 걸려있고,

曳來風便澗聲飛

끌려 다니는 듯한 바람은 골짜기 속에서 드날리네.

無心兒女愁依枕

철모르는 아이들 슬퍼하다가 잠들고,

有意英雄淚洒衣

큰 뜻 품은 영웅 눈물로 옷을 씻네.

借問梅花何處落

매화 꽃은 어디로 떨어지는가?

世無和者亦知稀

세상에는 어울릴 사람없고 또한 알아줄 이도 드무네.

【字義】

○ 戛入(알입) — 가볍게 스치며 다님의 뜻.

○ 咽(알) — 塞의 뜻. 막혀짐. 걸려있는 것.

○ 兒女 — 아이들.

○ 洒衣(세의) — 옷을 씻음.

○ 借問 — 묻는 것. (詢問).

【解義】

自然의 本然無垢함을 찾아 즐기는 脫俗의인 삶속에서 함께할 同伴者에 대한 憧憬心(동경심)을 나타내었다.

又

李 松 溪

遍踏長鞍弄笛歸

鞍峙峴을 두루 구경하고 피리불며 돌아오는데,

崎嶇山遙抵斜暉

멀리 험한 산에 夕陽빛 비추네.

聲傳石澗游魚躍

돌쌓인 계곡물소리에 고기들 즐겁게 뛰어놀고,

響徹雲衢睡鶴飛

구름속 바람소리 사라지자 잠깨 학이 날아가네.

哀感佳人含別淚

슬픔속에 美人은 이별의 눈물머금고,

雄如壯士着征衣

웅장한 장사는 정벌나갈 옷입네.

陰陽清濁曾由古

陰陽의 좋고 나쁜것들은 변함없는데,

只欠今來識者稀

자신의 결점에 대해 오늘날 깨닫는 이들 얼마나 될까?

【解義】山中에서悠悠自適한 生活을 즐기며 자신의 修養과 省察로서 참된 價値觀을 追求하고 있다.

又

## 金 杞 泉

跨鞍小峙笛雙歸

작은 언덕에서 말타고 쌍피리 불며 돌아오는데,

牛背村童帶夕暉

소등에 탄 시골아이는 夕陽빛으로 띠를 들렀네.

響逗黃岡龍遠聽

멀리 들리는 음향은 黃岡에 머물러 응이 들리는듯,

韻諧赤壁鶴孤飛

운율이락 조화된 赤壁江에는 외로운 학이 날아가네.

吟士爭穿雲蠟屐

風月 읊는 선비는 남칠한 나막신 신고 구름길 헤쳐나가듯,

漁翁忙理月簑衣

고기잡는 老人은 도롱이옷 입고 바삐 달빛을 쫓아가네.

弄罷清商纏木末

피리소리 절정에 이른 맑은 여음이 나무끝에 감싸는듯,

知音一世曉星稀

진정한 벗이란 성긴 별처럼 구하기 힘드네.

## 【字義】

○逗(ト) — 머무름

○黃岡 — 湖北省 黃岡縣의 東山。赤壁賦에 나오는 黃泥之坂이 바로 이곳임.

○諧(해) — 조화。○穿(천) — 험한 길을 뚫고 가는 곳(開通 荒梗地 — 漢書注)의 뜻.

○蠟屐(나그) — 밑바닥을 나막신에 칠하여 길에서 잘다닐수 있게 만드는것.

○理月 — 달빛을 쫓아 가는것。理는 從也。○罷(파) — 절정에 이룬(極也)。

○清商 — 맑고 강한 음향。商은 強의 뜻。△白虎通五行篇에 「商者強也」라 했다.

○知音 —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한 벗。伯牙는 거문고를 잘타고 鍾子期는 그 연주소리를 잘 들어 주었는데, 鍾子期가 죽자, 伯牙는 거문고를 끊고 소울 대지 않았다고 함 △列子△。

又

## 金 蘇 山

牧豎樵童間間歸

목동과 초동은 해저물어 돌아가는데,

巷深牛背倒斜暉

山村의 소등에 夕陽빛 비추네。

峰雲有意如將過

산봉우리 에 걸린 구름 지나가려 하고,

林鳥無心故不飛

숲속의 산새 한가로이 날지 않고 있네。

餘音清逼鳥山月

맑은 피리소리는 鳥棲山 위의 달에게 전하려는 듯,

拍手輕搖犢鼻衣

박수치며 살며시 쇠코잠망이를 흔들며 보네。

一翁叩角來何晚

한 老人 장 어찌 늦게 돌아오는가?

却恨人間識者稀

그저 자기 알아주는 사람없어 슬퍼하네。

【字義】

○ 犢鼻衣—犢鼻褌(독비곤)。쇠코잠망이(농부가 일할때 입는 흙바지인데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지었음)。

【解義】

목동과 초동은 閑寂한 山中에서도 산새들 지저귀는 소리와 悠悠히 떠가는 구름을 보고 느낀 것으로서 自然의 멋을 즐기고 있다。한편 老人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겪은 외로움에 懷恨스러워 하고 있다。



又

朴 昌 和

虹消雨霽暮雲歸

맑게 갠 하늘에 무지개 사라져 저녁 구름도 떠나가는데,

吹去聲聲送夕暉

피리부는 소리가 저녁 햇살을 더욱 쫓는 듯.

遙似玉京似女降

멀리 하늘 나라 仙女가 내려오려나?

半疑秦閣鳳凰飛

秦나라 누대에 봉황새 날아드려나?

莫道風塵車馬跡

세상의 風塵같은 수레·말들의 자취를 말하지 마라!

足跨水石薜蘿衣

덩쿨 지은 옷 입고 水石에 발장난 쳐보네.

箇中眞趣君知否

이러한 참된 정취감 그대들은 아는가?

四首月明星點稀

달빛 밝은 가운데 별빛은 희미해지네.

【字義】

○ 足跨水石—사늘짜기에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봄. 跨는 양발을 벌려 한쪽발을 디더보는 것. 水石은 水泉과 같은 말.

○ 薜蘿衣(벽라의)—덩굴을 엮어 만든 옷. 隱者의 옷. 蔓草옷.

○ 四首—사방으로 밝게 드러나는 것. 여기서 首는 標表의 뜻. 〈集說〉

【解義】

하늘에서 仙女가 내려올 듯한 황홀한 이곳에서는 모든 그심 떨구어 버리고 隱士의 薜蘿衣를 입고 自然의 神祕로움에 陶醉된 作者의 태도가 보인다.

又

趙 松 菴

慣看鞍峙驅牛歸

鞍峙峴에서는 소를 몰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어,

樵笛聲聲送日暉

초동의 피리소리 太陽에 까지 들리듯하네.

漁父詞唱青箬出

漁父詞 노래 부르니, 푸른 대순이 뿔쳐나올듯,

春眠曲罷白鷗飛

春眠曲 다 부르니, 희갈매기 날아가네.

杏花雨濕牧童履

살구꽃 피곳에 내리는 비 목동의 신 적시고,

楊柳風吹公子衣

버들가지 부는 바람 公子의 옷자락 드날리네.

一抹碧山流水外

계곡밖 靑山은 푸른 빛 칠해 놓은것 같는데,

我冠濶袖見常稀

높은 관과 넓은 소매의 옷차림은 보기 드물으니.

【字義】

○ 漁父詞—屈原과 漁父의 문답내용을 기록한 글. 「淸斯濯纓、濁斯濯足」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 青箬(靑약)—푸른 대순.

○ 一抹碧山—靑山の 푸른 빛을 한번 塗抹(도말)해 놓은 듯함의 뜻.

○ 我冠濶袖—선비의 옷차림.

又

金 致 萬

牛背牧童弄笛歸

소등에 탄 목동 피리불며 돌아오는 데,

路緣清澗帶斜暉

말은 시냇물가夕陽빛 비추네.

穿雲高響豪情寫

높은 하늘, 구름위로 소리는 음향 호걸한 정서의 발로와,

折柳細音逸興飛

버들 꺾는 듯한 가는 소리에 흥이 돋는다.

長吹嫋嫋龍髯曲

가늘어지게 길게 빼는 소리는 용의 뿔기 수염 같고,

短髮髭髭憤鼻衣

짧게 늘어진 머리에 쇠코 잠망이 입고 있네.

如今客子聞孤枕

이제 나그네들 외로이 잠들다 내 얘기를 듣는다면,

激起緒懷不感稀

귀가 번뜩여 즐거움 느끼리.

## 【字義】

○ 逸興—탈속적인 뛰어난興趣

○ 嫋嫋(요요)—가느다란 모양.

○ 髭髭(다다)—머리카락이 늘어진 모양.

○ 激起緒懷—감정의 싹이 피어나는 느낌.

○ 髭(염)—귀밑이로 다 삼썩다.

## 【解義】

作者는 脫俗의 人 情을 現場感 있게 描寫하고, 다른 外로 客子의 孤枕과 今의 起 緒懷를 나 누려 하고 있다.

又

沈 晚 溪

犢背橫跨弄葉歸

송아지 등에 걸쳐 앉아 잎새 피리블며 돌아오는 데,

層林雨浮斂西暉

夕陽빛 가리며 숲속 비 뿌려지네.

急轉疑秋山水下

山水아래 가을이 가느낌을느,

緩抽如線巷雲飛

실같은 빗줄기 내리는데 거리위 구름은 날아드네.

和柔引入遊人句

차분히 詩客의 글귀를 감상하는데,

嗚咽隨沾怨女衣

목메는 눈물은 원한가진 여인 옷자락 적시네.

相逢不是漳南路

서로 만나야 할 곳 漳南路 아니지만,

只恨英雄此世稀

이 세상에 영웅 드문것이 한스럽네.

【字義】

○ 急轉—갑작스레 주위가 바뀜。

○ 緩抽—느리게 뽑혀 나옴。 빗줄기의 形容。

○ 漳南路(장남로)—漳內(장내)의 남쪽길。

又

徐 華 岬

互答漁樵兩兩歸

어부와 초동이 서로 문답하며 돌아오는데,

亂山江郡已斜暉

산과 강으로 이리저리 다녔거늘 벌써 땅거미 졌네.

聲斷高樓人倚坐

피리소리는 사람이댄 높음 누대에서 그치고,

響窮遠渚鷺鷥飛

그을림 먼 강가에 까지 퍼져 백로놀라 날아가네.

思鄉行旅心傷地

고향 생각에 나그네는 마음상하고,

虛老英雄淚濕衣

헛되이 늙은 영웅은 눈물로 옷자락 적시리라.

人亡千古空鞍在

古人들 사라지고, 오래도록 쓸쓸히 鞍峙岬만 남아있거늘

一曲落梅知者稀

좋은 경치 속에서 연주하는 落梅曲 아는 이 드무리라.

【字義】○一曲落梅—落梅曲。笛樂曲의 이름。

【解義】起句의 亂山江郡이라는 표현으로 自然을 아낌없이 두루 優游하며 느긋함을 알 수 있다. 古人들도

이러한 즐거움을 누렸었지만 이제는 텅빈 鞍峙岬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又

蔡 肖 巖

何人折柳跨鞍歸

누가 버들가지 꺾어 안장단 말타고 돌아오겠는가?

寥亮天涯嘆夕暉

밝고 고요한 하늘끝의 夕陽을 보고 아쉬워 하네.

丹穴鳳鳴前路近

봉황새 우는 丹穴(단혈)이 앞에 있는듯,

碧灣漁唱下風飛

물고기 노는 푸른 물남이에 낮은 바람 불어오네.

江梅初落憐冰魄

강가의 매화나무 떨어진 열매 아까워 하고,

雲島南來夢羽衣

섬에 깬 구름남으로 내려와 신선의 옷을 꿈꾸게 하네.

童穉吹葱徒聒耳

어린이의 팟대 부는 소리는 시끄럽기만 한데,

武昌老竹玉音稀

武昌의 늙은 대나무 부는 맑은 소리는 들어보기 드무리.

## 【字義】

○ 寥亮(요량) — 고요하고 밝음

○ 丹穴 — 丹穴之山。봉황이 산다는 구덩이。△山海經△에 보면 「丹穴之山、其上多金玉、丹水出焉、

而南流注于渤海。有鳥焉、其狀如鷄、五采而文、名曰鳳凰」이라 했다.

○ 冰魄 — 얼음과 같이 맑고 깨끗한 녀이라는 뜻으로 梅花를 形容한 말.

○ 羽衣 — 날아갈 수 있게 만든 옷.

○ 聒(괵) — 시끄러움.

○ 玉音 — 악기의 맑은 소리.

又

李 澗 清

草笛春聲鞍峴歸

봄날 鞍峴에 풀피리소리 들려오는데,

輕風拂拂帶殘暉

살랑거리는 바람결 夕陽의 지는빛 보이네.

不待青冥玄鳥下

제비 하늘에서 날다 지치면 내려왔고,

依然碧嶂白雲飛

변함없는 푸른 산봉우리 白雲이 날아오네.

聽罷塵心欺化羽

세상사 티끌 외면하려 날개 달고 하늘에 올라 본뜻 하였고,

噓成霞氣欲生衣

노을의 기운 입으로 조화부려 옷 만들어 보려하네.

劉皇嘆美曾何日

유비황제가 아름다운 정치 경탄하던 때 언제였는가?

放得身閒似爾稀

참으로 좋은 정치속에 한가로이 지내보기란 이렇듯 드물다네.

【字義】

○ 殘暉(잔휘) — 다 저가 는 햇살.

○ 青冥 — 하늘

○ 玄鳥 — 제비

○ 化羽 — 羽化. 날개를 달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감.

○ 噓 — 입기운을 뿜.

○ 爾 — 此의 뜻.

【解義】

鞍峴의 황홀한 自然變化에 沒入되어 造化를 부러보듯 좀더 깊은 境地로 沁入감있게 접하고 싶어 하는 作者의 心情을 볼 수 있다.

又

## 黃 梅 石

牧兒橫遂兩三歸

몇명의 목동들을 함께 돌아오는데,

斗背斜風弄夕暉

북두성 등지고 부는 바람 夕陽빛을 희롱하는 듯.

斷續誰非心洒落

끊고 이어지는 피리소리에 마음은 상쾌해지고,

悠揚漂亦興遄飛

오랜 드날림에 또한 나부끼듯하네.

梅花故國聽來曲

매화꽃 핀故國에 노래소리 들려오고,

烟月孤村拂去衣

안개 낀 달빛 아래 외딴마을에서 옷의 먼지 털어내.

和氣宛如鄒律協

갈가의 온화함은 완연히鄒나라의 잘 조화된 음율과 같으니데,

莫言寒谷見春稀

쓸쓸한 계곡이라고 봄이 찾아오기 어렵다 말하지 말라.

【字義】

○ 斷續—피리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것.

○ 洒落—마음에 조금도 티가 없어 상쾌함.

○ 悠揚—오래 드날림.

【解義】

피리소리가 널리 지동하여, 이로 인해 주변에까지 바람이 나부끼듯 울려 퍼지고 있다. 온화한 음향을 내포하고 있는 피리에 대한 詩的表現이 고고스의 쓸쓸함을 달래 주리라는 未來指向의 希望찬 意지가 숨겨져 있다.



又

韓 廷 履

鞍峙兩三牧笛歸

鞍峙峴에 올라갔던 몇명의 피리부는 목동들을 돌아오는네,

倒騎牛背弄斜暉

소등에 거꾸러 타고 오면서 夕陽빛을 희롱하듯 하네.

新聲繞樹鴉颺彩

신성한 피리소리 나무에 퍼져 가마귀는 화려하게 날개펴 나무끼트,

妙曲穿雲鶴掠飛

미묘한 곡조음향은 구름을 헤치듯한 속에 학이 빼앗아 날아가네.

郊外和情歌扣角

들녘에는 은화한 정으로 노래하며 머리뿔 두드리고,

漳南遺感淚沾衣

漳南땅에 대한 유감으로 눈물이 옷자락을 적시네.

舉毫描得風塵界

붓을 들어 風塵의 이 세상 묘사해 보는데,

繚亮清閒世所稀

맑은 淸閒함을 즐기니 세상에서 드무리라.

【字義】

○ 新聲繞樹——신성한 노래소리가 나무주위로 울려 퍼짐의 뜻.

○ 颺彩(양채)——날개펴 화려하게 나무잎의 뜻.

○ 扣角(구각)——머리의 각진 뿔을 두드림.

【解義】

世上의 風塵속에서 淸閒한 自然의 道를 즐기니란 보기도문 일이라고 諷刺的으로 아쉬운 情感을 노래하고 있다.

又

朱 晦 誠 堂

一雙樵笛弄仙歸

한쌍의 피리부는樵童은 신선흥내내며 돌아오는데,

鞍峙峨峨艷夕暉

높은鞍峙岬 위로 고운夕陽빛이 보이네.

初疑流水聲中落

피리소리 계곡물속으로 떨어지려는가?

更聽浮雲影裏飛

뜨구름속에서 드날리는 듯한소리 들리네.

春光紅戴簪花首

붉은 봄날의 경치는 비녀꽃머리로 비추어지고,

山色靑來採葛衣

푸른 산의 정경은 갈포옷속으로 들어오는 듯하네.

可笑當年輕俠子

가소로운蠻勇부리는 자들이여!

黃金盡處故人稀

황금의 재물이 다하면 친구들은 멀어지다네.

【字義】

○ 峨峨(아아) — 높이 솟아 있는 모양.

○ 採葛衣 — 천을 캐서 만든 옷. 葛布옷.

○ 輕俠子 — 경솔하게 俠氣(의리신)를 부리는 자. 즉 蠻勇을 부리는 자의 뜻.

○ 故人 — 친구

【解義】

世上의 경박한 俠客들에게 경계하면서 物質主義의 傾向으로 流入되어가는 思潮를 再意識할 수 있도록 結句로서 強調하고 있다.

又

## 申 屏 巖

牛背何人鞍峙歸

소등을 탄 어떤 동자는 鞍峙峴에서 내려오는 데,

半空長笛帶朝暉

하늘 아래 긴 피리소리 아침햇살 비추네.

細聲繼處歌蜂出

가늘게 이어지는 소리에 벌떼 노래하듯,

斷響緩時倦鳥飛

餘音이 늦춰진 때 한가로운 산새 날아가네.

樵童耆吹橫山枕

초동은 피리를 즐겨불며 산을 베개삼아 누워있고,

漂母取聽掛水衣

빨래하는 노파도 즐겨들으며 옷을 널고 있네.

音調餘傳如彼善

피리음조의 율림은 이처럼 잘도 전하는데,

一區生色近方稀

이곳의 생기있는 景色은 近方에서 보기 드무네.

【解義】

半空에 까지 울려퍼지는 피리소리는 산새들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화음을 이루듯 정겹게만 들려온다.

빨래하는 노파도 無聊한 삶속에서도 즐겨 듣고 있는데 이 지역의 보기좋은 自然의 情景과 잘 어울려진 모습들이 어는 곳에서나 보기 드물다는 것이다.

又

申 月 潭

鞍峙西風短笛歸

鞍峙峴의 서녘바람쉴며 짝막한 피리불고 돌아오는네,

一聲沈濫動殘暉

굴곡있는 피리소리는 夕陽빛을 움직여 놀든가하네.

羗兒城上梅何落

오랑캐 있는 城上에 매화꽃 어찌 떨어지는가?

學士家中鶴已飛

學士의 집안에는 학이 이미 날아들었네.

樵牧弄還折葱葉

나무하는 목동은 피리불며 돌아와 파줄기 찍어보고,

漁郎吹罷製荷衣

어부는 잠시 피리불다 멈춰 연잎으로 옷을 만들어 보네.

遙聞欲斷餘音續

멀리 피리의 餘音 멈추려 하는데,

深巷居人世慮稀

깊은 山村에 사는 이 세상걱정있네.

【字義】

○ 沈濫(침란) — 피리소리의 屈曲과 高低

○ 樵牧 — 나무하는 목동。樵는 牧을 修飾하는 形容詞로 본다。그래야 漁郎과 對句를 이룸。

【解義】

대개 음악의 음향소리는 사람의 性情을 일으켜 深醉시키고, 精神的인 세계에서 涼風으로 換氣시키듯 喜悅感의 眞味를 느낄수 있게 하여준다。이 詩로서 樂天的인 삶의 一面을 볼 수 있다。

又

## 蔡 梅 下

暗聞鞍峙笛童歸

夕陽鞍峙峴에서 피리부는 아이 돌아가는데,

鳴咽聲聲帶晚暉

목메는 듯한 소리 들려오네。

初疑胡地梅花落

중국 북녘땅에 매화꽃 떨어지는가?

半信秦樓玉屑飛

진나라 누대에 눈이 날아 들어섰으니

湘雁迴來依日脚

기러기는 멀리 햇살 따라 날아오고,

江魚出聽傍苔衣

물고기는 이끼 낀 강가에서 펄떡이네。

風雨前溪天欲暮

風雨내리는 시냇가 저물어

曲終山下見人稀

급은 산아래 사람들 안보이네。

【字義】

○ 胡地(호지) — 중국 북쪽 平原。

○ 玉屑 — 눈。

○ 日脚 — 해가 진행하는 속도。햇발。

【解義】

鞍峙峴에서 내려오는 아이의 피리소리는 夕陽빛 속에서 애처롭게 들려온다。기러기도 바빠 날아오고 물고기 펄떡이는 속에서 해는 서산에 기울어 사람들의 자취는 사라진 채 어둠은 시작되고 있다。

又

## 韓 漁 隱

斷腸裂玉弄雲歸

애처로운 피리소리 내며 구름과 함께 돌아오는데,

石逕樵童帶夕暉

돌길의 夕陽 초동은 바라보네.

冷傳碧海潛蛟泣

찬 바닷속 상어도 우는듯,

清入疏松驚鶴飛

소나무의 白鶴도 놀라 날아가네.

青山輕起不依物

靑山은 곳곳이 서있고,

白水流來若濕衣

하얀 물결 옷자락 적시려나?

何人採得混丘竹

언덕 대숲에서 대나무 한가지 가져다

長吹一聲知者稀

길게 부르는 소리 알아줄 사람없네.

【字義】

○ 斷腸—창자를 끊음. 서늘함.

○ 蛟(교)—상어

【解義】

樵童은 쓸쓸히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자연과 함께 어울리며 애처로운 피리소리로써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다.

又

徐 槐 軒

峙勢如鞍玉馬歸

말안장 형상한 산고개에서 말타고 돌아와,

何來長笛帶斜暉

夕陽빛 아래 긴 피리불며 오네.

落梅江國聲初咽

매화 떨어진 강가 물소리 요란한데,

怨柳胡天唱晚飛

버들가지 넓은 하늘에 나부끼네.

漁浦響泛驚雁侶

갯가에 울리는 소리 기러기 놀라게 하고,

牧場橫短返兒衣

목장의 짧은 여음 옷자락에 거두어지네.

風前斷續無人見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 들어줄 이 없지만,

樵斧雲山一兩稀

구름끼 산속에서 나무하는 이 줄어드네.

【字義】

○ 江國—강국의 세계.

○ 胡天—멀리 뻗혀 있는 하늘 胡는 遠也

○ 返兒衣—피리소리의 여음이 옷자락에서 거두어짐.

○ 斷續—피리의 여음소리

【解義】

피리소리의 아름다운 여음은 자연을 놀라게 하는데 이제는 점차 樵夫도 보기도 힘들어 아쉬워하며 노래하였다.

又

李 小 青

縮口而生弄手歸

입 찌구려 피리블고 손짓하며 돌아와,

聲聲何處帶殘暉

夕陽빛 아래 피리소리 퍼지네.

柳怨苦雨青青折

빗살에 푸른 버들가지 꺾이고,

梅落斜風白白飛

바람에 하얀 매화꽃 나부끼네.

病客悽聞依蝶枕

병든 나그네 단잠 자고 싶어하는데,

樵兒橫吹跨牛衣

나무하는 아이 소등에서 피리부네.

閒情不讓仙家樂

한가로이 신선보다 더한 즐거움 누리려는데,

唱斷鹿機一占稀

아름답게 부르는 소리 희미해지네.

【字義】○牛衣—소등에 씌우는 거적.

○鹿機—사슴의 발성기. 아름답고 소리를 내게 해줌.

【解義】

버들가지 축축 늘어져있고, 매화꽃잎도 나부끼는 속에서 사슴의 발성기에 마음까지도 취되어 즐거워함을 나타내며, 나무하는 아이 소등에서 피리부는데, 한가로이 신선보다 더한 즐거움 누리려는데, 아름답게 부르는 소리 희미해지네. 作者의 心情이 보인다.



又

凹嶺如鞍有笛歸

말안장 모양한 산고개에서 피리블며 돌아오는데,

悽涼數曲惜殘暉

쓸쓸한 곡조소리에 夕陽빛이 아쉬워지네.

彷彿琴頭流水激

거문고 같은 물결소리 세차고,

分明風便落梅飛

바람에 매화꽃잎이 나부끼네.

聲入岫雲遙聞世

피리소리 산위 구름속 먼 세상에 들려지는 듯,

影隨林雨降沾衣

해그림자 비 내리는 숲속 비치며 옷자락 젖네.

帝鄉仙藥曾奚若

하늘나라의 仙藥 어떻게 구해볼까?

此亦人間更所稀

이 인간 세상에서는 드물다네.

【字義】

○ 凹嶺(요령)——오목한 모양의 산고개.

○ 帝鄉——上帝가 사는 마을. 天上

○ 曾——乃와 같은 뜻.

○ 奚若(해약)——어찌. 如何.

【解義】

鞍峙峴 내려오며 슬프게 부는 피리소리는 물결소리처럼 황홀하여 먼 하늘나라까지 들려지는 것만 같다.

又

鳥龍走馬打鞍歸

검은마의 날쌔말 안장 두드리며 돌아오는네,

橫笛神仙覓暮暉

저피리부는 신선 夕陽빛 찾아오네.

嶂南樵曲皇歎發

남녘 높은 산속 樵童의 곡조소리에 임함만도 놀라니,

洛北胡音士淚飛

洛陽 북녘 오랑캐 노래에 선비 눈물 흘리네.

如怨如慕聽驚耳

원망하듯, 사모하듯한 소리에 놀라고,

一喜一悲坐整衣

기뻐했다 슬퍼하며 옷자락 다듬네.

望裏曲終人不見

누가 부는지 곡조소리 멈추는데,

青山寂寂鳥聲稀

고요한 청산속 새소리 희미해지네.

## 【字義】

○ 鳥龍(오룡) — 검은 용마.  
○ 橫笛 — 가로로 된 피리. 저

## 【解義】

山中 고요한 피리소리 들리며, 옛날 피리소리로 나를 흐느꼈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다.  
屈曲있는 피리연주 소리는 기쁨도 슬픔도 자아내며 사람의 心腑를 자극하는데, 作者는 피리소리 멈추고 사람도 보이지 않자 쓸쓸해져가는 분위기를 詩를 意味로서 위로하고 있다.

## ◎ 石隅雪竹

晚

圃

玉塵飛入石溪隅

아름다운 눈발은 石溪(석계) 모퉁이진 곳으로 날아드는데,

堅性凌冬尚節孤

겨울속에서도 대나무는 꽃꽂이 홀로서 있네.

風傳別曲來儀鳳

바람은 노래 부르듯한데 보기 좋은 봉새가 날아오고,

月送清陰起陣烏

달빛 아래 맑은 그늘속에서 까마귀떼 날아가네.

最憐貞色能爲異

절개골은 모습은 빼어나고,

共對虛心不可無

서로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공허해지네.

苦筍細香勝肉味

죽순의 향기로운 맛은 고기맛보다 좋은데,

七賢六逸日相俱

竹林七賢과 竹溪六逸이 날마다 서로 모여 있느듯 하네.

## 【字義】

○ 玉塵—눈의 異稱。

○ 七賢—竹林七賢。中國晉代 초기에 虛無思想을 주장하여 竹林에서 술을 마시면서 清談을 하고 지내던 일곱 선비。 곧 阮籍(원적)·嵇康(혜강)·山濤(산도)·向秀·劉伶(유령)·王戎(왕옹)·阮咸(원함)들이다。

○ 六逸—竹溪六逸。竹溪에서 술을 마셨던 六人。 곧 李白·孔巢父(공소부)·韓準(한준)·裴政(배정)·張叔明·陶沔이다。竹溪는 湖北省 竹溪縣의 名勝地。逸은 隱逸者를 뜻함。

又

石 農

地在黃龍第一隅

黃龍의 정기받은 石隅는 제일가는 곳인데,

此君不使我隣孤

나와 이웃들 정겹게 즐거워 하네.

歲月尚遲來瑞鳳

더딘 세월속에 봉새는 날아오고,

霜風時動落金鳥

서릿바람 날려 太陽을 떨어뜨리듯.

於古誰開三逕有

은사의 門庭은 누가 열어놓았던가?

而今人恨七賢無

竹林七賢들 자취없어져 한스럽네.

未移春色能凌雪

화창한 정치는 눈을 모르고,

淇綠湘斑倘與俱

푸른 淇水와 물결치는 湘水속에서 함께 즐기듯하네.

【字義】

○ 三逕—隱士 蔣詡(장후)의 정원에 小路가 셋있었던 故事. △ 三輔決錄▽에 「蔣詡字元卿、舍中開三徑、唯羊仲求仲從之游、皆逃名不出」이라 되었다.

【解義】

地勢좋은 곳에 자리잡은 石隅는 雪景이 몹시 아름다워 봄날의 화창한 빛을 망설이고 있다. 마음의 상태 또한 白紙化되어 白玉을 가슴에 품듯 넘실거리는 물결처럼 純粹한 自然愛의 情緒가 發露되어 있다.

又

## 嚴 三 寓

深根勁節石池隅

돌연못가에 억센 대나무 서있어,

君子爲隣德不孤

대나무의 덕성으로 이웃들 외롭지 않네.

淡實遺傳飢啄鳳

담백한 대열매 배고픈 봉황새에게 주고,

疎叢借許哺棲鳥

성긴 대숲에 효도하는 까마귀 등지치게 하리라.

倚軒最愛琴聲在

집안에 울려퍼지는 거문고 소리 사랑스러운데,

超俗非關食肉無

세속을 초월한다는 의미는 好食하여 즐긴다는 것이 아니네.

影月吟風兼二美

밝은 달빛아래 風月을 읊는데,

雪中勝概獨存俱

아름다운 雪景은 홀로 보존하고 함께 하려하네.

## 【字義】

○ 非關食肉無—먹을 고기가 없는 것에 관여되지 않음. 好食하여야 만이 되는 것이 아님의 뜻.

○ 二美—달과 바람.

○ 獨存俱—雪景을 이루고 있는 個體要素들을 홀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존함의 뜻. 앞의 數衍(부연)된 對象物들을 全體的으로 包括하는 歸納的(귀납적) 표현. 勝概란 이러한 아름다운 個體의 事物들이 함께 調和되어야만 形成된다는 뜻.

又

廉 石 樵

蕭條林木一村隅

한마을 외진곳 쓸쓸한 숲속에,

貞節空心雪裏孤

곧은 절개 지키는 대나무, 눈속에 외로이 서 있네.

春色不移常愛綠

봄날처럼 항상 푸른빛 띄고 있으며,

斑文已過號稱烏

얼룩무늬 수놓으며 지나가는 까마귀 보이네.

有賢主在何須問

賢主가 있느냐고 어찌 반드시 물어야 알 수 있는가?

從此君遊不可無

그대는 반드시 이곳에서 즐기고 있으리.

玉碎風梢寒葉動

눈바람 나무끝 흔드니 차가운 잎새 흔들리네.

閒中取友與誰俱

한가한 속에서 누구와 함께 즐겨볼까?

【字義】○ 蕭條(소조) — 쓸쓸한 모양

○ 賢主 — 대나무

【解義】

閑寂한 숲속 눈내리는 속에서 곧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는 언제나 푸른빛을 잃지 않고 있어 高  
 潔하고 強靱한 德性에 作者는 驚歎하며 自己의 同伴者로 삼고 싶은 것이다.

又

李 三 隱

大雪冷封石一隅

큰눈이 石隅洞을 덮었는데,

竹心快爾伴松孤

대나무 즐거워 외로운 소나무와 어울리네.

特高氣節隣爲鳳

높은 절개 품은 대나무에 봉황새는 이웃처럼 찾아주고,

不變精神地是鳥

변하지 않는 정신에 동감하듯 까마귀도 날아오네.

淡痕月照清猶在

밝은 달빛 아래 청명함 남아있고,

寒意風吟韻豈無

쌀쌀히 바람을 읊어 운치 이루네.

洒落襟期多逸致

상쾌한 마음에 많은 즐거움이 있고,

時時我欲與君俱

내 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벗이 되리라.

【字義】

○洒落(세락)——마음을清爽하게 하는것.

○襟期(금기)——마음의 기약. 心情. △陸龜蒙△의 襲美先輩以龜蒙所獻詩에 「揣摩是非際、一一如襟期」라는 表現을 볼 수 있다.

【解義】

대나무의 높은 절개에 봉황이 찾아주고 한결같은 精神力에 까마귀도 날아와 주고 있다. 보기만 하여도 胸襟을 맑게 씻어 주듯하여 대나무의 德性을 잊지 못하고 있다.

又

李 松 溪

玉立蕭蕭傍石隅

대나무 쓸쓸히 서있는 石隅洞에、

叢生並立未曾孤

수북이 생겨나 외롭지 않다네。

永竿高舉精神鶴

긴 장대에는 높이 나는 白鶴 찾아들고、

風葉斜回影子鳥

바람에 나부끼는 잎새에 까마귀의 그림자 비치네。

從知德性三分固

대나무의 덕성은 언제나 완고하고、

可見塵埃一點無

한점의 티끌 없다네。

淇園之綠黃岡大

淇水의 동산처럼 푸르고 黃岡山처럼 큰데、

亦帶清寒氣味俱

清寒한 氣味를 가지고 있구나。

【字義】

○ 玉立—아름다운 대나무가 서 있음。△孔傳△에 보면 대나무의 美稱으로 琅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여기서 玉이란 琅玕玉을 말한다。

○ 三分固—셋으로 나누어도 여전한 것。



又

## 金 杞 泉

雪竹千竿立石隅

눈맞은 대나무 石隅洞에 우거져 있는데、

淇園失綠首陽孤

淇水의 동산 옮겨왔나? 首陽山이 옮겨왔나?

較看鏡裏疑霜鶴

거울속에 白鶴이 있는듯.

撼入琴中聽夜烏

슬피 거문고 타는 속에서 까마귀 우는소리 들려오네.

月影篩斜圖亦可

달빛이 체를 비추는 모습 그림그려 볼만하고、

風聲瑟瑟靜還無

바람은 큰 거문고 연주소리와 어우러져 적막함 사라지네.

須臾幻作琉璃界

잠시 황홀한 유리빛 같은 세계、

也有蒼官一色俱

또한 蒼松과 함께 一色을 이루고 있네.

## 【字義】

○ 淇園失綠(기원실록) — 淇水의 동산이 이곳으로 옮겨져와 그곳의 녹음을 잃게 되었음의 뜻.

○ 篩(사) — 가루를 걸러내는 체

○ 瑟 — 큰 거문고. 琴과 다름. 瑟은 七絃、瑟은 十五絃.

○ 蒼官 — 소나무의 별칭. △王秋江의 詩에 「空把黃塵驚白鶴、蒼官元不受渠官。」 이라 했다.

又

## 金 蘇 山

根托其宜地石隅

대나무는 石隅洞의 땅에 뿌리 내렸는데,

爲隣君子尚清孤

이웃 군자 위해 淸高한 기상으로 외로이 서있네.

葉凌霜雪垂垂綠

촉촉 늘어진 대잎 서리에 굴하지 않고,

莖澣金絲點點烏

검게 점찍힌 줄기 금실무늬를 뿌려놓은 듯 하네.

千載高苦寧可愛

千年의 고상한 苦節을 사랑하고,

一團和氣只嫌無

한 덩이의 온화한 기운에 개들고 조용히 하네

主人何夜開三逕

主人은 어느 날 밤에 정원을 열어놓을 것인가?

留月晴窓與我俱

창문 밖에 비치는 달과 함께 지내리.

【字義】

○ 嫌無(嫌無) — 개 짖는 소리가 그침. 〳說文〵에 보면 嫌은 犬吠不止貌라 했다.

○ 三逕 — 隱士의 門庭.

【解義】

대나무의 淸高한 기사는 君子를 상징해 주는데, 「君子는 대나무 없는 곳에서는 살수가 없다.」(君子不可居無竹)라고 했듯이 君子는 自身修養에 效則의 對象物로 삼았던 것이다.

又

朴 昌 和

前夜雪瞻彼石隅

저기 石隅洞의 지난 밤에 내린 눈을 보아라!

猗猗其美不孤孤

길차게 늘어선 아름다운 대나무 외롭지 않으니.

銀城削立千條玉

銀城에 가파른 대나무들 서 있어,

烟藪借棲群羽鳥

안개 낀 대숲 까마귀떼들 등지치고 있네.

汲水村中婦女有

마을에는 물길은 아낙네들,

拾樵松下兒童無

소나무 밑에는 열매줍고 나무하는 아이들 없네.

四時佳興靜觀得

사계절 아름다운 흥취감을 고요하게 볼수 있는데,

這裏賞心樂事俱

이러한 경치 구경하며 즐기는 일로 함께 하네.

## 【字義】

○ 猗猗(의의) — 美盛貌의 뜻(아름답고 무성한 모양).

○ 銀城 — 시선이 사는 곳.

○ 烟藪 — 안개 낀 숲속.

○ 賞心(상심) — 경치를 玩賞(완상) 구경하는 마음. △類篇▽에 賞은 玩也라 했다.

○ 這裏(저리) — 이러한 경치속.

又

趙 松 菴

雪朝憐爾瞻淇隅

눈내린 아침淇水 물가 같은 곳 보기 아까운데,

松竹相隣德不孤

소나무와 대나무 서로 이웃하여 외롭지 않네.

蕭蕭清標宜須鳳

쓸쓸한듯 나무결은 봉황새 날아오기를 기다리는데,

颯颯風枝那受鳥

바람에 사들대는 가지에 까마귀 어찌 앉겠나!

猗然其節難能奪

대나무의 높음 절개는 빼앗아 가기 어렵는데,

所以此君不可無

그것은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네.

幽谷青青餘韻在

푸르고 깊은 골짜기에 운치의 멋남아 있는데,

考槃隱士與之俱

즐거워하는隱士는 이와 함께 하네.

【字義】○須—기다림.

○考槃—隱遁(은둔)하여 山水間을 거닐며 자연을 즐기는 일. 考는 成也、槃은 樂也。△詩經衛風考槃篇V에「考槃在澗、碩人之寬」이라 했다.

【解義】詩은 계곡에서 사는隱士는 대숲에서 詩的韻致(운치)의 멋을 즐기고 있는 것을 노래했다.

又

金 致 萬

玉澗之東奇石隅

玉溪의 동쪽으로 빼어난 石隅洞이 있는데,

雪中高竹直心孤

눈가운데 높이 자란 대나무의 곧은 마음 외로워 보이네.

實宜飢啄枝迎鳳

가지에 앉은 봉황새 배고파 열매를 쪼아 먹고,

性厭繁華質或烏

화려함 싫어하는 까마귀 땅에 내려 앉았네.

節如君子能專守

君子처럼 능히 절개 지키고 있네.

風似故人不可無

여기에 바람은 친구같이 찾아오네.

移來淇澳漏花譜

이곳으로 옮겨온 淇水 경치는 그곳의 花譜에서 빠져 있겠네.

肯向春林其與俱

어쨌든 봄날같이 화창한 대숲속에서 함께 즐겨보리.

【字義】

○ 質—文脈上 화려함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아, 〈廣雅釋言〉의 「質、地也」라고 한 說을 따라 땅의 뜻으로 본다.

○ 漏花譜—花譜란 꽃피는 순서대로 그때 그때의 피는 꽃 이름을 적어 놓은 책. 이곳의 石隅洞의 경치모습이 中國淇水의 물담이 주변의 대숲경치와 비슷하여 이곳으로 옮겨 왔다는 표현을 쓰고, 그곳의 花譜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又

沈 晚 溪

此君封素石西隅

흰돌 나는 서쪽 외진 땅에 대나무 자라는데,

其性凌冬其節孤

겨울에도 외로이 절개를 지키고 있네.

飽飢愛惜難辭鳳

먹이가 아까우면 봉황새 날아오게 하기 힘들것이요,

黑白分明易辨烏

까마귀는 흑백의 색 분명하여 분별하기 쉽다네.

玉隣枝冷通溪在

차가운 듯한 대나무 가지들 시냇물 바라보고,

銀界根深到地無

빛나는 뿌리들 땅속으로 뻗어있네.

剡棹前宵人不返

지난밤 노를 짊어 만들던 이는 보이지 않는데,

至今現賞與誰俱

이제 좋은 구경을 누구와 함께 하리요.

【字義】

○ 通溪—시냇물과 이어져 있음.

○ 到地無—뿌리가 깊기 때문에 地上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 없음의 뜻.

○ 剡棹(염노)—노를 짊어 마름. 剡은 削也

【解義】

대소속의 환상적인 情景속에 沒入되어, 지난밤 仙人을 본듯한데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아 아쉬워 하고 있다.

又

徐 華 岬

猗猗秀色霏霏隅

아름다운 대나무숲속 가랑비 내리고,

石與爲隣德不孤

돌들과도 함께 있어 외롭지 않네.

操何易屈修身直

굳은 지조 한몸에 가득

奪盡難分各色鳥

빼앗아 나누어 갖기 어렵네.

枝拂玉塵清籟發

가지는 먼지 떨구어 맑은 소리 내는 듯,

根涵銀海累界無

뿌리는 은빛바다에 잠겨 세속을 모르네.

相對此君能脫俗

대나무만 보아도 세상을 벗어나듯,

一生修契與之俱

일생동안 몸을 닦고 함께 살아가리.

【解義】

이 세상을 超越한 脫俗의 境地에서 대나무와 함께 修養하며, 世俗의 懊惱(오노)와 煩惱(번노)의 버린채, 高踏의인 精神世界에서의 삶을 渴望하고 있다.

又

蔡 肖 巖

百卉凋零徧海隅

모든草木 시들어 버린 바닷가 외진 벽지에

此君氣節特清孤

清高한 절개의 대나무 외로이 서 있네.

琅實仙邱秋食鳳

시선사는 이곳의 대열매는 가을날 봉황새 날아와 먹고,

葉聲琴館夜啼烏

거문고 탈때 잎새 나무끼는 소리에 밤까마귀 슬피우네.

根爐頻擁寒猶傲

대뿌리가 뜨거운 것인지 추위도 모르고,

肉味全忘俗漸無

好食하며 사는 세속의 기운 볼수 없네.

石間開徑誰相望

돌밭 사이로 정원길 열여 놓았건만 누가 봐 주리요!

古國夷齊可與俱

옛날 伯夷와 叔齊같은 사람이나 알아줄까?

【字義】 ○ 琅實(낭실) — 대나무 열매。 琅玕子。

○ 伯夷叔齊 — 이들은 殷나라 孤竹君의 아들이네, 武王이 殷을 치고 天下를 席捲하자 이 두兄弟는 周나라의 곡식 먹기를 수치로 여겨 首陽山으로 도망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다고 한다.



又

李 澗 清

暮雪幽篁傍石隅

石隅洞 옆 깊은 대나무 숲에 저녘은 내렸는데,

間松不作德隣孤

그 사이 소나무는 외로워 하지 않네.

渾入月明難辨鳳

환한 달빛 아래 봉황새 분간하기 어렵고,

較看林密可藏鳥

백백한 대숲속에서 까마귀 숨어 있을만 하네.

獨帶寒光標格在

홀로 차가운 날씨 속에 으젓하게 있는데,

自高絕俗點塵無

스스로脱俗하여 한점 티끌 없네.

此君不作封侯想

대나무는 높은 벼슬자리로 생각지 않는데,

終老巖阿孰與歸

일생동안 산골짜기에서 누구와 함께 보내리.

## 【字義】

○ 幽篁(유황) — 깊은 대나무 숲

○ 標格(표격) — 이상적인 목표가 되는 품격을 말함.

○ 巖阿(암아) — 산골짜기.

## 【解義】

自然속에 묻혀 좋은 대숲의 景色에 魅了(매료)되어 세상의 근심 잊어버리고, 脱俗한 心情을 대나무와 함께 나누고 있다.

又

## 黃 梅 石

石隅移作楚山隅  
幽竹猗猗凌雪孤  
影搖密葉卦鹽虎  
色雜疎叢染乳烏  
陰待主人枝節高  
心同君子覺塵無  
歲寒松栢堪爲友  
嬌艷群芳豈可俱

石隅洞은 楚山의 경치 옮겨다 만들어 놓은 듯,  
우거진 대나무 무성한데 눈속에서도 변함없네.  
그림자 흔들리는 백백한 대입에는 소금같은 눈 걸려있네,  
성긴 대숲속의 빛깔들은 어린 까마귀들 물들여 놓듯하네.  
높은 대나무 그늘 아래 초수를 기다리는 듯,  
마음은 君子와 같아 세상티끌 싫어하네.  
차가운 날에 소나무와 잣나무 벗삼았는데,  
겉으로만 화려한 꽃들과 어찌 함께 하겠는가?

## 【字義】

○ 猗猗(의의) — 美盛한 모양.

○ 鹽虎 — 소금을 美化해서 표현한 말. △周禮△에 보면 「印鹽積鹵所結、其形如虎也」라고 했다.

## 【解義】

虛飾에 급급한 世上風潮를 等閑이 한채 清廉寒士처럼 깨끗이 서있는 竹松栢을 벗삼아 淸談한 情緒를 즐기고자 하였다.

又

韓 廷 履

凌雪竹竿在石隅

石隅洞의 대나무 눈속에서도 곳곳이 서 있어,

石隅何似首陽孤

石隅洞 절경은 어찌 외로운 수양산과 같겠는가?

食埋冰實輝翔鳳

얼음처럼 빛나는 열매는 화려한 봉황새 먹이요,

棲借瓊枝色玷烏

옥같은 가지에는 까마귀 보금자리로 지어지리.

感筍昔年嘗獨有

어린 대순 보고 지난날 홀로 놀랐는데,

移根今日獻能無

연한 뿌리 모두 캐간 요즈음에는 갖다 받칠게 없네.

匪冬伊夏風其好

겨울만이 아니라 여름날에도 대나무 경치 좋거니와,

聊與陸翁避暑俱

大地的 老人들과 함께 더위식히며 즐겨보리라.

【字義】○色玷烏—玉에 티를 내는 까마귀。대숲에 집짓고 있는 까마귀의 모습을 비유한 것。

【解義】대숲속에서悠悠自適하게 自然光景을 玩賞하고 老人들 모시고 한가로이 지내 보고자 한 情緒를 노래하고 있다。

又

朱 晦 成 堂

我愛猗猗到石隅

무성한 대숲이 石隅洞에 있게 된것을 사랑하는데,

可憐幽竹雪中孤

우거진 대나무들 눈속에 외로이 서 있구나!

性寒豈怕三冬白

차가운 三冬의 추위도 모르고,

身潔難看一點烏

깨끗한 대줄기에 한점 티 없네.

隨處玄黃何草不

주위의 풀들은 모두 枯死했지만,

唯時隕穽此君無

대나무는 낙엽질줄 모르고 서있네.

持心焉得清如彼

궁은 절개 지키는 대나무 이렇게 清淡할 수 있을까?

百卉芳名與爾俱

꽃다운 草木들과 명성을 함께하네.

【字義】

○ 隕穽(은탁) — 낙엽지는 모양.  
○ 百卉 — 百草

【解義】

嚴冬雪寒에 모든 草木들은 시들어 枯死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푸른을 지키고 있는 대나무는 화창한 봄날에 피는 꽃들과 명성을 함께한다는 것이다.

又

申 屏 巖

溪上村容在石隅

시냇가 아름다운 촌락이 石隅洞에 있는데,

耐寒雪竹亦非孤

눈속 추위를 견대어 내는 대나무는 외롭지 않으리.

一枝結實將來鳳

한 가지 맺힌 열매에 봉황새 날아들리,

數點哺痕已反烏

어미에게 먹이 가져다 준 흔적남긴 까마귀는 벌써 돌아갔네.

白花從古有時有

하얀 꽃에로부터 피어 내려왔는데,

高節尚今無日無

清高한 절개의 모습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네.

元來心性多清勁

본래天性이 굳은 지라,

君子平生可與俱

君子와 평생토록 함께하리.

【字義】

○ 哺痕(포흔) — 어미에게 먹이를 가져다 준 흔적.

○ 無日無 — 날마다 없거나 때가 없음. 날마다 가지고 있음의 뜻.

○ 清勁 — 맑고 강직함

【解義】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대나무의 清高한 절개는 변함이 없어 君子는 평생동안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又

## 申 月 潭

籠竹雪痕滿石隅

石隅洞 대숲에 눈이 내려졌는데,

清風直節一叢孤

한 떨기 대나무 외로이 곧은 절개를 지키고 있네.

瓊花幻實來崗鳳

아름다운 꽃과 열매에 봉황새 찾아오고,

鹽虎棲枝畏日烏

눈내린 가지 햇살 아래 까마귀 앉을까 두렵네.

碎玉何須主人問

옥을 부서 놓은 듯한 경치에 어찌 주인을 물어봐야 하는가?

凌寒不可此君無

추위속에 이 대나무가 아니면 어을리지 않네.

挺松在巷長隣近

소나무는 항상 가까이 있어,

鬱鬱青青願與俱

울창한 숲속에서 함께 있고자 하네.

【字義】 ○ 挺松(정송) — 빼어난 소나무。挺은 挺出의 뜻。

【解義】 차가운 겨울날 푸른 절개를 잃지 않고 언제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松竹을 기리고 있다。

又

蔡 梅 下

雪竹清寒石一隅

말끔한 石隅洞 눈속 대나무는

峻嶒山勢立高孤

험한 산세에 외로이 서 있네.

風葉翩翩朝舞鳳

봉황새 춤추는 아침 잎새 바람에 나부끼고,

月枝明朗夜啼鳥

까마귀 우는 밤 나뭇가지 달빛 비추네.

誰其主者如相待

누가 대나무처럼 기다려 줄까?

惟此君兮不可無

오직 이 대나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네.

潺潺溪上猗猗樹

줄줄 흐르는 시냇가 우거진 숲속에서

憶昔青蓮六逸俱

李白은 竹溪六逸과 함께 즐겼네.

【字義】

○ 峻嶒(능동) — 산이 험한 모양.

○ 潺潺(잔잔) — 물이 흐르는 모양

○ 青蓮 — 李白的 號

○ 六逸 — 竹溪六逸。竹溪縣에서 살마시며 즐기던 여섯 隱者들。

【解義】

차가운 겨울 눈속에서 곳곳이 서있는 대나무는 高節을 지키고 외로이 서있다. 마치 자기를 알아줄 君子가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지난날 竹溪에서 風流 즐기며 自然을 노래했던 隱君子들을 생각하면서 대나무의 德性을 찬양한 詩이다.

又

韓 漁 隱

雪白冬天封一隅

흰눈은 한 벽초를 덮었는데,

寒聲偏向月中孤

외로운 달빛에 쓸쓸한 바람소리 들리네.

寶實雖存難咏鳳

대열매 있으나 봉황노래 할 수 없고,

玉花滿落誰知鳥

화려한 꽃 떨어져 까마귀 짓으리.

因風難作萬夫動

바람에 萬夫 움직이기 어려워,

掃逕莫言三益無

길가에 三益友 없다 말하지 말라.

陰崖未改猗猗色

그늘진 언덕 여전히 우거졌는데,

君子不諼可與俱

君子는 항상 함께 하리.

【解義】

대나무의 高潔한 節概는 어떤 시련속에서도 변함이 없어 君子는 항상 이를 본받으려 한다. 길가에서 흔히게 대나무를 볼 수 있다지만 貞節을 지닌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又

徐 槐 軒

雪色中天石一隅

흰눈 가득히 石隅洞에 내려,

直竿千尺碧雲孤

높은 대줄기 푸른 산 구름과 함께 외롭네,

根凍杜爐殘睡鴨

언뿌리 불 놓아 오리 단잠자고,

筍登孟哺感誠烏

대순 캐어 어머니 봉양하니 까마귀도 감동하네.

翠帶琅傾寒沍滴

푸른 대나무에 찬 물방울 떨어지는데,

綠苞銀潔混塵無

순속은 빛난 티끌 씻어주네.

本非古國爭榮者

이 나라 영화를 탐하는 자 아니면,

肯使此君桃李俱

대나무와 복숭아, 오얏나무를 함께 어울리게 하리.

【字義】

○ 孟哺 — 孟宗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 대순을 캐왔다는 故事。

○ 寒沍(한호) — 날씨가 춥다.

○ 綠苞 — 푸른 순속

【解義】

대나무에 관한 故事를 引用하여 古人들과 인연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대나무같이 굳은 절개를 지닌 사람은 화려하게 환경이 바뀐다 해도 본래의 모습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 貞節不變함을 世態諷刺의으로 노래하고 있다.

又

李 小 青

凍天疏雪拍簷隅

차가운 날 눈발 처마끝에 날리는데,

萬木皆凋挺立孤

나무들 시든속에서 홀로 외로이 서있네.

枝封玉屑儀丹鳳

대가지 수북한 눈 봉황새 형상인가?

色繡金絲妬黑鳥

황금실 수놓은 듯, 까마귀 앞을까 꺼려지네.

耐寒如此千竿直

추위 모르고 뻗힌 대나무들,

脫俗何須一日無

언제나 빼어나네.

其節清高其本固

본성이 굳어 적개가 淸高한지라,

賢人君子與之俱

현인과 군자 함께하네.

【解義】

눈 속에 대나무는 아름다워 찬란한 황금무늬를 수놓은 듯 더욱 빼어난 모습을 하고 있다. 때문에 賢人、君子는 그 淸高한 절개를 본받고자 벗으로 삼는 것이다. 脫俗의인 분위기를 주는 회화적 묘사

詩이다.

又

峻嶒石壁此村隅

마을 외진곳 험한 石壁에,

綠竹猗猗雪裏孤

눈속에서 무성하게 자란대나무 보이네.

鹽虎素光爭玉兔

잎새의 눈빛은 달빛인가?

銀龍寒氣縮金烏

차가운 날씨에 日光도 움추리듯.

義名唐苑怨何有

의리높은 명성 唐나라 뜰에도 퍼져 원망할이 없고,

斑淚瀟湘恨不無

瀟湘(소상)강 생각에 한스러워 눈물흐르네.

溪六逸會花六出

竹溪隱者들이 가꾼 꽃나무중 대나무가 출중한데,

衝天氣像可難俱

우뚝한 기상에 함께 하기 어려우네.

## 【字義】

○ 峻嶒(능중) — 험준한 모양.

○ 猗猗(의의) — 美盛한 모양.

○ 鹽虎 — 소금의 결정체. 눈의 形容. △周禮▽에 「積鹵所結、其形如虎」라 했다.

○ 爭玉兔 — 月光을 말함

○ 金烏 — 해

○ 瀟湘(소상) — 이곳에 무성한 대나무가 있어 引用한 것임. △丘從直▽의 瀟湘八景에 「移舟莫近瀟湘岸、叢竹哀猿總斷腸」이라는 表現이 있다.

又

雨雪霏霏滿石隅

눈비 내려 石隅洞에 가득한데,

竹君勁節到今孤

대나무 외로이 굳은 절개 지키고 있네.

丙穴凍堅餓伏蟄

陽地도 공공얼어 땅속 벌레 굶주리고,

北風冷射絶飛鳥

거센 된바람에 까마귀 못 날으네.

蔣三逕色何移在

蔣詡(장후)의 三徑이 어찌 옮겨 왔나?

晉七賢名所敵無

竹林七賢의 명성에 대적할 이 없었네.

東天明月來相照

동녘의 밝은 달 비추니,

綠白玲瓏乃可俱

푸르고 하얀 영롱한 빛 찬란하네.

## 【字義】

- 霏霏(비비) — 비내리는 모양.
- 丙穴 — 丙은 五行으로 南에 속하므로 南쪽의 陽地를 말함.
- 伏蟄(복침) — 몸을 움츠리고 蟄居하는 昆蟲。
- 蔣三逕 — 蔣詡(장후) — 가 만든 庭園인데 이곳에 세 小路가 있었다고함.
- 晉七賢 — 竹林七賢。老莊波
- 綠白 — 푸른 대나무 숲에 白玉같은 눈.
- 玲瓏(영롱) — 빛이 구슬처럼 맑고 아름답다함.

## ◎ 聖住遠鍾

晚 圃

萬壽山前落曉鍾

萬壽山에 울려퍼지는 새벽종소리,

蠢然物物各修容

꿈틀대는 사물들 제각기 응모 단장하고 있네.

間陳律呂迎風竹

나란히 늘어선 대나무에 바람불어 오고,

遞奏笙篁融水松

연주하는 생황의 모습같은 소나무 시냇물 사이에 두고 있네.

驚蛇翻鳥聲中遠

종소리에 놀란 뱀과 산새 멀리 가버리고,

逗月征雲影裏濃

달빛아래 떠가는 구름은 그림자속에 짙어지네.

定欲喚醒塵世夢

어지러운 세상의 꿈속에서 깨어나고자,

僧談野諄也相從

스님과 民談 나누며 서로 따르네.

## 【字義】

○ 落—散落的 뜻. 널리 울려퍼지는 것.

○ 蠢然(쥔연)—꿈틀대는 모양. 蠢(쥔)은 蟲動貌 〓說文〓.

○ 律呂—陽律과 陰呂. 음과 양이 서로 조화되는 것.

○ 笙篁—管樂器의 一種으로서 가는 대나무로 만듬.

○ 逗(두)—머무르는 것. ○ 征雲—멀리 떠가는 구름.

○ 野諄—民間人들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말함.

又

石 農

遙遙聖住自鳴鐘

멀리 聖住山 을러 퍼지는 종소리,

如聽人聲不見容

사람 소리도 같은데 형체 보이지를 않네.

苔海難尋三昧界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삼속에서 三昧의 세계 찾기 어려운데,

叢林特種十圍松

숲속에는 열그루의 특이한 소나무 십여 놓았네.

夜半客船藍浦遠

밤중에 떠나는 客船 藍浦가에서 멀어져 가고,

日長禪塔白雲濃

긴 햇살아래 寺塔주위 흰 구름 자욱하네.

知應千載無量佛

千年동안 이어져온 無量寺의 불상있는 곳에,

暮暮朝朝願聽從

아침 저녁 염불소리 들으며 따라보고자 하네.

【字義】

○ 三昧界—三昧란 梵文(법문)의 音譯(음역)이다 곧 잡념을 배제하고 마음의 경지의 寂寥靜謐(적요

정밀)을 보존하고 있는 것 〓 語文典故 〓 을 말함. 〓 智度論 〓 에서는 「善心一處不動、是名三昧」라

하였다.

【解義】

聖住山의 새벽종소리는 은곳에 널리 퍼져 부처님의 慈悲로온 恩惠가 널리 베풀어 지고, 드는 이로 하여금 일깨워 주듯 하다.

又

## 嚴 三 寓

濕濕稍聞遠裏鍾

멀리 종소리에 귀가 번뜩이는데,

披雲打出滌塵容

구름속을 헤치고 먼지를 씻어 주듯하네.

反哺慈烏群噪月

달빛아래 까마귀들 지저귀고,

罷眠瘦鶴倦棲松

솔가지에 등지친 白鶴은 낮잠에서 깨어나네.

海門漁客帆長住

어부는 바다에 돛단배 띄워 오래 머물러 있는데,

石逕歸僧意自濃

돌길 올라 山寺로 돌아가는 스님 저절로 흥분해지네.

旅雁驚寒天欲曙

차가운 날 새벽하늘에 기러기 놀라는데,

山鳴谷應水流從

산골짜기에 종소리 울려 물소리도 이에 따르는 듯하네.

## 【字義】

○ 濕濕(습습) — 귀가 번뜩이는 모습을 형용하는 말.

○ 滌塵容(척지용) — 淸涼感이 드는 종소리가 마치 먼지를 씻어 주듯함의 뜻.

○ 噪(조) — 새가 지저귀는 것.

○ 瘦(수) — 몸이 여윈 것.

## 【解義】

종소리에 山川이 지동한다는 것이다. 轉句의 歸僧과 結句의 天欲曙는 時間的背景으로 맞지않는 듯하다.

又

廉 石 樵

聖住山中落遠鐘

聖住山속의 먼 종소리 들리는데,

禪家誦法亦雍容

스님을 경문 읽는 소리 또한 은화하구나.

一聲廻出霜侵栗

서리맞은 밤나무에서 종소리 흘러 나오듯,

五鼓初傳月隱松

달빛 감추어진 소나무에 북소리 전해지네.

來自風前斜日晚

바람결을 타고 왔는지, 黃昏녘에 종소리 들리는 듯,

聽如飯後暮雲濃

배불리 밥먹고 저녁구름 구경하는듯한 느낌이 드네.

木魚鳴處催昏曉

木魚울리는 소리에 새벽을 재촉하는데,

老去浮生這裏從

老年에는 세속을 벗어나 이곳에서 몸을 담으리.

【字義】

○ 禪家(선가) — 參禪한 스님.

○ 雍容(응용) — 은화한 모양.

○ 木魚 — 본래는 佛經을 읽을 때에 두드리는 재구. 圓扁한 모양과 둥근 모양의 두 종류가 있는데 食事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걸어 놓고 쳤다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둥근것을 木鐸(목탁)이라고 한다. 물고기는 밤낮을 뜨므로 不斷히 修養하라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魚晝夜未嘗合目, 亦欲修行者晝夜忘寢以至于道也」라 했다.



又

李 三 隱

青山影裏白雲鍾

청산의 그림자속에 잠겨있는 白雲寺의 종은,

僧塔寥寥依舊容

고요한 가운데 옛 승려의 탑과 함께 하고 있네.

簸送雨散驚急瀨

세차게 뿌려지는 빗줄기는 급한 여울들을 놀라게 하는 듯,

轉含風韻落層松

바람도 소리내며 소나무숲을 몰아치네.

知應太古閒長在

오래 옛날에도 이곳은 매우 한적한 곳,

覺是前生態又濃

전생에 대한 이곳의 모습 생생하게 느껴지네.

厭聽塵塵多糲糲

세속에 관한 얘기가 듣기가 싫은데,

我將治履願斯從

내 나막신이나 만들어 가지고 佛道를 따라 보고자 하네.

## 【字義】

○ 簸送(파송) — 치로 파불어 보내듯함.

○ 急瀨(급뢰) — 급하게 흘러가는 여울. 여울이란 沙石위를 흐르는 얇고 빠른 물줄기를 말한다.

○ 態又濃 — 모습이 또한 선명해지는 것.

○ 糲糲(우우) —世事의 例로 농사일들을 들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속적인 일로서 대표하여 말한 것임. 糲는 耕而不輟의 뜻.

○ 治履(치극) — 나막신을 만듦.

又

李 松 溪

雲寺僧敲月下鍾

白雲寺 스님은 달빛 아래 종을 치는데,

數聲曳曳甚雍容

길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 몹시 온화하네.

慣聽亦有知時鳥

때를 안듯, 함께 지저귀는 새소리 들려오는데,

近接應多脫劫松

이곳은 歲月의 무딘 감정으로 서있는 소나무들 많다네.

肅清法界塵心靜

法界의 티끌 떨어 내니 마음은 고요해지듯,

上徹諸天道氣濃

하늘의 섭리 밝게 되니 기분이 만족스럽네.

山名聖住誠非偶

聖住山이라고 이름지은것 우연한것이 아닌데,

驚醒愚民順可從

어리석은 백성들 일깨우려는 의도인 것이네.

## 【字義】

- 曳曳(예예) — 길게 뻗혀 지는 것.
- 知時鳥 — 제때를 아는 새. 종소리에 맞추어 지저귀.
- 脫劫松(탈거송) — 세월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고 서있는 소나무.劫은 세월의 뜻
- 法界 — 佛家の 세계
- 氣濃 — 氣分이 농후해짐. 만족스러워짐.

## 【解義】

聖住山에 있는 白雲寺의 종소리에 산새들도 함께 어울려 즐기고 있다. 世上의 煩惱를 잊고 하늘의 섭리를 환히 터득할 수 있는 佛家の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又

## 金 杞 泉

蕭寺風鳴落遠鍾

바람부는 한적한 절에 종소리를 울리네,

千年不改聖山容

오래도록 여전히 성수산의 모습 지켜 왔네.

雷轟深壑寒生石

우뢰소리 깊음은 골짜기에 울려 돌이 놀란듯,

月滿空林韻在松

달빛은 텅빈 숲속 비추워 소나무는 더욱 돋보이네.

下界如浮僧氣冷

들떠 있는 이 세상에 스님들은 냉담하고,

諸天欲動佛香濃

하늘이 감응함에 향불 그윽해지네.

朝朝打起三生夢

아침마다 仙夢속에서 일어나니,

資福人間互感從

복받고 심음은 사람들 감응하여 따르네.

## 【字義】

○ 雷轟(뢰굉) — 우뢰소리가 진동함.

○ 寒生石 — 차갑게 자극하여 돌을 생겨나게 함. 돌이 놀람.

○ 下界 — 인간이 사는 세속.

○ 三生 — 삼은 자주의 뜻.

○ 資福 — 복을 취하는 것. 복을 기원함의 뜻.

## 【解義】

인간은 幸福된 삶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것은 因果應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정성껏 佛供을 드리며 下界의 蒙塵을 씻어버리려 佛道를 닦는 이들의 生活을 묘사하였다.

又

## 金 蘇 山

曉月蒼涼落遠鍾

밝은 새벽달빛아래 종소리 울리는데,

隔雲磅礴露山容

멀리 구름과 뒤섞인 이슬 산에 내려지네.

初轉洪宏流絕壁

널리 퍼지는 종소리 절벽에 위싸는듯,

餘音遙亮曳孤松

여음은 먼곳까지 들려 외로운 소나무 끌어주듯.

方開貝葉禪心靜

조개잎도 벌어져 참선하는 스님 침묵지키고,

滿着蓮花畫意濃

연꽃주위에도 맴돌아 그림에 담아 보고 싶네.

一聲喚起千家夢

마을사람들 잠에서 일찍 깨워

岐路東西各自從

제각기 바빠 일하게 해주네.

## 【字義】

○ 隔雲磅礴(격운방박) — 멀리 떨어지. 구름과 섞여져 있음. 磅礴은 뒤섞여 있는 모양. 〮莊子逍遙篇V에「將磅礴而萬物以爲一」이라는 표현이 있다.

○ 洪宏(홍굉) — 〮넓은 모양.

○ 遙亮(요량) — 종소리가 먼곳까지 퍼져 밝게 들림의 뜻. 亮은 明也.

○ 曳 — 끌고 감.

○ 畫意濃 —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가득함의 뜻.

又

朴 昌 和

殷在半天殘曉鍾

초롱초롱한 하늘빛 아래 해뜨려는 새벽녘 종소리 울려,

聽來頻覺滌塵容

먼지 씻어주듯 말끔한 소리 들려오네.

新羅百濟餘孤月

신라와 백제 시대에 도 밝게 비추어 주었던 저 외로운 달,

萬壑千巖有古松

길은 골짜기 바위마다 옛 소나무 자라고 있네.

鶴鳥多心啼欲罷

학은 울음 그치려 하고,

危兒聞慣睡方濃

삼살개 새끼는 졸음이 곤하여 지네.

蓮花極樂如非誣

연꽃편 극락세계는 거짓 아닌데,

何不人人願適從

어찌 사람들이 마다 함께 따라가 보려하지 않겠는가?

## 【字義】

○ 殷—생기있는 모양. 초롱초롱한 빛.

○ 殘曉(잔효)—해가 뜰 무렵

○ 危兒—삼살개 새끼. 犬多毛貌 〓廣韻〓

○ 聞慣—자주 들음.

○ 睡方濃—졸음이 곤하게 오는 것.

○ 誣(무)—속임수.

○ 適從—극락세계를 따라감.

又

趙松菴

倚壁悠然聽遠鐘

방안 벽에 기대고 먼 종소리 듣는데,

禪心却退塵寰容

참선하는 마음 세상의 먼지를 물리쳐 주네.

青山寂寂雲生袖

청산은 고요한데 뭉게구름 피어나고,

流水潺潺秋啖松

흐르는 물 졸졸, 소나무 가을빛 무르익네.

慧月亭亭鶴夢穩

달빛 아래 학 단잠자고,

恒沙閃閃猿聲濃

번쩍이는 모래밭에 원숭이 즐겨노래하네.

群仙宛是隔風雨

신사들 風雨를 막아내는데,

若將相逢未可從

그들 만나도 함께 따라가지는 못하리.

## 【字義】

- 塵寰(진환) — 먼지에 쌓인 집. 속세를 말함.
- 雲生袖 — 구름이 옷소매를 모양을 만들어 냄.
- 潺潺(자자) — 물결이 졸졸 흐르는 모양.
- 秋啖松 — 가을이 소나무를 삼킴. 소나무가 가을빛에 젖어있음의 뜻. 啖(단)은呑也.
- 恒沙 — 恒河沙를 말함. 恒河는 (東天竺)에 있음. 모래가 수없이 많음을 비유한 것. 張陽의 詩에 「深心大海水, 廣願恒河沙」라 했다.
- 閃閃(심심) — 번쩍이는 모양.

又

金 致 萬

白雲隔寺但聞鐘

흰 구름사이 절에는 종소리 들리는데,

聲徹古今不改容

오래도록 그 소리 변하지 않았네.

遠到容船孤夜月

달빛 외로이 비추는 밤 멀리 客船에도 종소리 들려오고,

端鳴僧塔十圍松

소나무로 둘러싼 승려탑에 지동하네.

引傳高閣隨風震

높은 누각에서 바람처럼 들려오고

更落寒天入耳濃

차가운 하늘 귓속을 울리네.

靜聽之餘如塑造

가만히 들으며 土偶처럼 앉았는데,

南飛數雁叫相從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종소리 맞춰 우는듯 하네.

【字義】 ○ 端(찬) — 급하게.

○ 塑造(소좌) — 진흙으로 만든 물상처럼 무뎠게 앉아 있는것.

【解義】

白雲寺의 종소리는 遠近에 관계없이 널리 퍼져 들리는 사람이나 동물도 하여금 나뭇대로의 感懷에 젖어들게 한다. 먼길 떠나가는 기러기마저도 종소리에 귀 기울이며 장단을 맞추어 주고 있는 정겨운 詩的 表現이다.

又

沈 晚 溪

山古雲深迴出鍾

오랜 산속 구름 깊어 잠긴 곳 종소리 울리는데,

梧窓送友坐雍容

오동나무 보이는 창문으로 들려오니 즐거워라.

初如蚓唱疑生壑

처음에 회미하게 들려오니,

更作蠅鳴記過松

이제 귓전에 생생하게 들리네.

十里方知僧飯塾

십리밖에 스님 숙식하던 곳 알 수 있고,

一年幾有客盃濃

일년 동안 질은 술잔 몇 번 들었나?

聽漂世事無非夢

세상 일 모두 꿈같은 것,

小少吾曾負笈從

미약하지만 내 대수를 짊어지고 따르리.

【字義】

○ 蜩鳴(이창) — 지렁이의 노랫소리. 회미하게 들림의 비유.

○ 飯塾(반숙) — 숙식을 하며 공부하던 곳

○ 小少 — 몸집이 작고 어림. 자식에 대한 점칭.

【解義】

寂寞(적막)한山中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이 덧없는 세상속에서의幻夢(환몽)을 깨어주듯 각성의 소리로 들려진다. 미약한 몸이지만 그래도佛道를 닦아 보겠다는 의지가 간절하다.



又

徐 華 岬

遙落鍾聲未似鍾

멀리 들려오는 것은 종소리인가?

初聞難辨這形容

들어 볼수록 분간하기 어렵네.

殊非雷動懸巖瀑

우뢰가 치지도 않는데 바위절벽의 폭포소리 같기도 하고,

不是簾來隔水松

생황도 아닌데 물가의 소나무에 들려오네.

回憶遲遲心上得

지난날 회상하기에 마음이 쏠려,

細聽稍稍耳邊濃

점점 귓가에 가까이 들리네.

風便隱隱寒疎響

바람 은은한 소리로 불어오는데,

始覺白雲蕭奇從

白雲寺의 적막함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리네.

【字義】

○ 心上得——心靈上 종소리를 들으려 함。

○ 耳邊濃——귓가에 종소리가 짙어짐。

【解義】

멀리 허공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幻像的(환상적)으로 發聲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魅了(매료)시키  
고 있다. 현실 脫避的 超越(초월)한 경지를 希求(희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求道的인 입장에서  
종소리를 듣고 있다.

又

蔡 肖 巖

雲庵不見但聞鐘

구름진 속에 앉자는 보이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오는데,

警衆如將起懶容

해이해진 정신을 각성시켜 주듯하네.

殘漏何遲催報箭

시간은 더디게 가는데 물화살을 재촉하는듯,

細簾忽斷失聽松

바람은 머취 소나무 흔들리는 소리 듣지 못하네.

晝撞每瑩多風籟

대낮의 종소리는 맑은 바람소리,

夜響偏洪攪睡濃

밤중을 리는 소리는 단잠 설치게 하네.

時刻自鳴家有貯

시간을 알리는 自鳴鐘이 집마다 있다면,

而今僧俗若相從

스님과 세속은 서로 뜻이 맞아 다르게 되리.

【字義】

○ 報箭(보전) — 漏箭으로 시간을 알아보는것. 漏箭이 물시계의 물통안에 세운 눈금을 새긴 화살. 그 새겨진 눈금으로 시간을 알 수 있음.

○ 瑩(영) — 맑음.

○ 攪睡濃(교수농) — 단잠을 설치게 함.

【解義】

평온한 종소리들을 들으며 民家에도 이런 종이 있다면 人心이 이에 同化되고 純粹해져 俗人과 스님과 도사로 求道的인 자세로 道를 논해 보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又

李 澗 清

靜裏時聞遠寺鐘

고요한 가운데 멀리 종소리 들리는데,

溪光岳色動春容

아름다운 산골짜기 경치는 봄날 기운을 유동시키네.

出谷應聲鶻吊月

골짜기 밖으로 달빛아래 두견새 슬피울고,

因風驚夢鳳歸松

바람에 놀란 봉황새 슬슬으로 돌아가네.

舊官銅漏情何極

옛 관리들銅壺(동호)에 대해 느낀 감정 많았는데,

古院笙歌恨更濃

옛 절에서 더불어 노래함에 또한 기쁨이 정한이 있었다네.

問渠成佛何緣業

부처님이 되려면 어떤일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데,

逃世還詫物外從

세상을 도피만 할것이 아니라 물욕을 버려야 한다네.

## 【字義】

○ 吊月(조월) — 달을 보고 슬퍼함.

○ 銅漏 — 구리로 만든 물시계。銅壺。戴叔倫의 〈早春曲〉을 보면 이로써 슬픔을 표현한 詩가 있는

데, 「銅壺滴愁更漏長」이란 표현이 있다。銅壺의 물방울로 시가의 흐름을 슬퍼했다.

○ 何極 — 어찌 다하겠는가?

○ 問渠(문거) — 묻는데, 渠는 其의 뜻.

○ 逃世還詫 — 세상을 도피만 하면 된다는 것은 도리어 거짓말이 됨.

○ 物外從 — 物慾을 벗어나서 佛道를 따름.

又

黃 梅 石

曉色蒼茫聽遠鐘

아득히 먼데서 새벽 종소리 들리는데,

最憐聖住舊時容

오래된 성주산 모습이 사랑스럽네.

慈悲法大黃金佛

자비배픈 황금 불상이 있고,

搖落聲清白鳳松

바람은 맑은 소리내고, 白鳳이 날아드는 소나무 있네.

月殘古寺寒燈耿

달빛 저물어 가는 옛사찰에 등잔불 반짝이는데,

雷隱南山宿雨濃

우뢰치는 南山에 간밤의 비 더욱 짙게 내리네.

如今華經醒塵夢

만일 佛經을 읽고 꿈속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化作城中孰不從

마을 주위 사람들을 중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字義】

○ 蒼茫—아득한 모양.

○ 憐—사랑스러움. (愛也 廣雅釋詁)

○ 耿(경)—밝은 모양.

○ 宿雨—간밤부터 이어져 오는 비

○ 城中—城은 保民을 위해서 만들어 지었는데, 여기서 한 郡落을 이루고 있는 村民의 뜻

又

韓 廷 履

白雲深寺遠聞鐘

흰구름 지극한 절에 멀리 종소리 들리는데,

聖住山中儼佛容

성주사중 불상의 모습 근엄하구나!

理自傾銅知感洛

銅鉢(동발)을 두드려 洛陽땅의 감회 느끼고,

聲由解錫出圍松

錫杖(흔드는 소리) 소나무 숲에 울려나오네.

夕烟亦過炊方熟

저녁 안개속에 장작불 열으르고,

曉月如掀睡未濃

새벽달 번쩍이어 깊은 잠 못자리.

撞處莫嫌僧飯後

스님은 식사뒤 즐겨 종을 치는데,

碧紗他日有我從

碧紗帳(벽사장) 들고 내 다른 날에 佛道를 따르리.

## 【字義】

○ 傾銅(경동) — 銅鉢(동발)을 여주함. 銅鉢은 중이 勤行할때 치는 구리로 만든 주발모양의 악기.

○ 解錫(해석) — 錫杖을 흔듦. 錫杖은 중이나 道士가 짚는 지팡이인데 윗부분에 쇠고리를 달아 흔들면 소리가 남. △ 翻譯名義에 「錫杖由振時作錫錫聲也」라 했다.

○ 碧紗(벽사) — 푸른 비단 휘장. △ 唐代語文典故에 보면 나무로 시렁을 만들고 휘장을 덮어 여름 날 모기를 막는다고 했다. (以木作架、蒙以綠紗의 幃帳、夏天用來避蚊蠅)

又

## 朱 晦 誠 堂

雲外忽傳夜半鐘

깊은 밤 저 멀리 구름밖으로 종소리 들려오는데,

遙望聖住歛吾容

성주산의 경치가 내게로 다가오듯 하네.

塵劫堪憐三變海

혼란한 세상에 바다까지 변하여 슬퍼지고,

僧心偕老百年松

스님은 백년사는 소나무와 함께 늙으려 하네.

化羽如登仙術鈔

날개 달고 하늘 오름은 신선묘한 방술인데,

繁絃不願世陰濃

즐거운 가락에 세상의 질은 어둡 바라지 않네.

此山倘識眞人在

이산에 참된道士 있는 줄 아는데,

生履何時我徃從

새신 하나 들고 언제 내가 가서 그를 따르리.

## 【字義】

○ 歛吾容—내가 서있는 곳으로 모여 들.

○ 塵劫—어지러운 세상의 겁탈.

○ 鈔(초)—예리하고 미친함.

## 【解義】

성주산의 황홀한 감도는 景色이 作者의 視野로 몰려오듯 하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아랑곳없이  
神仙이 妙術부리듯, 超越한 경지에서 살아가는 道士를 따르고자 한 作者의 간절한 표현이 描寫되었  
다.

又

## 申 屏 巖

聖住頻傳遠遠鍾

성주산의 먼 종소리 자주 들려오는데,

佛家何日不春容

스님계신 곳에 어느날이고 한적하지 않으리.

風前初到疑絲竹

바람앞에 어우러진 종소리는 대나무 울리는 소리인가!

月下更鳴觸澗松

달빛아래 울려 퍼져 물가의 소나무에도 전해지네.

洞壑千年渾忘遽

깊은 골짜기는千年동안 深遠함을 잊고는 우두췌한 모습이요,

烟霞十里始知濃

안개와 노을빛은 十年만에 비로소 짙어 지듯하네.

更有新聲雲外至

다시 새 종소리 먼 구름밖에서 들려오는데,

讀書雅士好相從

독서하는 아담한 선비 서로 따라가리.

【字義】

○ 春容(용용) — 한적한 모양.

○ 渾忘遽(훈망스) — 전혀 深遠함을 잊고 있음. 本然의 깊은 모습을 잊고서 있는 전막함의 뜻.

【解義】

성주산의 周邊景色(주변경색)에 深醉되어 달빛과 바람사이로 들려지는 종소리에 마음은 맑고  
清淡하여져 自然景光이 선연하게 視野를 메우고 있다. 道에 뜻을 둔 아담한 선비라면 따라가 볼만  
하다는 것이다.

又

## 申 月 潭

聖住撐天寺有鍾

하늘 이고 있는 듯 성주사속 절에는 종이 있어,

屈然遙落撼山容

억누르듯한 종소리 산을 뒤흔들어 놓네

怒龍底事長吟澤

성난 용이 등천하려 연못가에서 길게 소리치고,

驚鶴無端擎立松

놀란 학은 우뚝 솟은 소나무에 뜻밖에 머물러 있네.

半夜客船殘月白

밤중 달빛 아래 客船은 떠있고,

一聲梵宇白雲濃

종소리 나는 절가에는 흰구름 자욱하네.

愁眠忽罷寒燈下

쓸쓸히 등잔불 아래 잠에서 깨었는데,

杳若殷雷灌耳從

우뢰소리 인가하여 귀를 가다듬고 들어보네.

【字義】 ○ 撐天(탱천) — 하늘을 이고 지탱하고 있음.

○ 屈然 — 내리누르는 모양.

○ 底事 — 登天하는 일을 이룸.

○ 梵宇(범우) — 사찰을 말함.

○ 灌耳 — 귀를 씻듯이 가다듬음.

○ 撼 — 흔듦

○ 無端 — 뜻밖의 뜻.

○ 殷雷 — 성대한 우뢰소리



又

蔡 梅 下

聖住孤菴隱隱鍾

성주산속 외로운 암자의 종소리 들려

有誰不改此時容

때맞은 분위가 절묘하네。

雲裏山襲千尺瀑

구름 자욱한 산속 千尺 폭포수 흐르고,

佛前僧老十圍松

엄불하는 늙은 스님 둘러싼 열 소나무안에 있네。

驛亭殘月裝先束

희미한 달빛 역참 정자 비취 행장 꾸리는데,

旅館寒燈睡未濃

여관의 쓸쓸한 등불 아래 잠이 잘 안오네。

出門指點聲來處

문밖 종소리 들려오는 곳에,

斗轉河傾曙色從

새벽 하늘에 부두성 옮겨 은하수 기울네。

## 【字義】

○ 時容—한적한 산속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잘 어울리므로 이르는말。

○ 殘月(잔월)—희미한 달

○ 斗轉—부두성의 자루가 옮겨짐。

○ 河傾—은하수가 기울어짐。

## 【解義】

閑寂한 聖住山속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魅惑的(매혹적)이다。희미한 달빛아래 행장 꾸리는 나그네는 잠도 못 이루고, 문밖에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있는데, 멀리 새벽하늘 부두성 상좌가 옮겨진 것을 보며 계절이 바뀌었음을 느끼고 있다。

又

韓 漁 隱

禮佛有時鳴此鍾

예불드릴때 종소리 울리는데,

僧何不語愛春容

고요히 들려와 스님어쩔줄 모르네.

梵宮饗落同清水

불전 공양에 清水울리고,

石塔聲高共瘦松

석탑에 울린 종소리 여원 소나무와 함께하네.

先到客船城外遠

성밖 멀리 客船이 먼저 이르고,

更聞晨月雲邊濃

구름속 새벽달 밝게 비추네.

法雷警夢思暉照

불경소리에 잠깨어 밝아지려는 듯,

孤鶴不眠也自從

잠 못 잔 외로운 白鶴도 따르리.

## 【字義】

○ 春容(용용) — 조용하고 차분한 모양.

○ 梵宮(범궁) — 사찰.

○ 饗落 — 제향을 올리기 시작함. 落은 始也.

○ 瘦松(수송) — 여원 소나무

○ 法雷 — 佛經의 敎理가 넓은 범주로서 자극함의 뜻.

## 【解義】

山寺에서 들리는 종소리는 고요히 주위를 일깨워 주듯하다. 스님은 清水로서 佛前에 供養을 시작하는데 불경소리 또한 未來에 대한 覺醒을 가져오듯 주위를 자극하며 들려오고 있다.

又

徐 槐 軒

雲間聖住遠山鍾

구름잡긴 성주산의 먼 종소리

一滴塵寰起懶容

세상에 한번 울려 일깨우네.

聲轉客帆通水月

달빛 비치는 客船에 들려오는데,

身豈樂府奏篁松

소나무 아래 피리블며 가사즐길 필요 있겠나?

晴午響空風籟斷

맑은 하늘 바람소리 멎었고,

昏衢警衆曙光濃

새벽 밝은 빛에 어두운 거리 환해지네.

平地如聞天上笛

멀리 하늘나라 피리소리인가?

玉階仙杖可相從

신선 지팡이로 삼돌을라 따르리.

【字義】

○ 塵寰(지환) — 이 세상

○ 樂府 — 詩歌를 부름.

○ 篁松 — 소나무 아래에서 피리를 부름. 篁은 피리.

○ 風籟(풍뢰) — 바람부는 소리.

【解義】

성주산에서 들려오는 머충소리는 마치 하늘나라에서 피리소리 들려오는 것 같아 心身을 魅了(매료)시키고 있다. 따로 가사를 즐길 필요없이 마음의 喜悅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又

李 小 青

枯僧禮佛自鳴鐘

여원 스님 예불드리며 종을 울리는데,

趺坐緇廬儼若容

스님은 책상다리하여 근엄한 모습이네.

晷刻相催城上析

숫는 해그림자 성과 위에서 나뉘고,

笙篴如奏水邊松

생황불며 물가 소나무에 있네.

洞仙渾忘塵機動

신선은 깊은 골짜기에 세상티끌 모두 잊고,

船客頻驚夜睡濃

船客은 종종 놀라며 단잠자네.

非我駸駸泥汝法

내 佛道 흐리려는 것은 아닌데,

愛其幽寂可追從

깊고 고요함이 좋아 따르리.

## 【字義】

○ 趺坐—책상다리로 앉음.

○ 緇廬(치려)—절을 말함. 緇는 僧也. 靑은 옷을 입으므로 이름. 수이를 素라고 함의 대조되는 表現.

○ 晷刻(구각)—歲月의 흐름. 光陰.

○ 塵機—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의 생기는 원인.

○ 駸駸(침침)—지행이 빠른 모양인데 여기서는 경망스러운 행동의 뜻.

○ 泥(니)—흐려놓는 것(濁也). △易經△에서도 「井泥不食」이라는 표현이 있다.

又

根天聖住地靈鍾

하늘의 맥이은 성주산에 신령한 종소리 울리는데,

鍾紐龍鍾擊手容

오랫동안 낡은 종손으로 쳐 보네.

魚驚深夢噴浪荻

갈대 나부끼는 강가 물고기 놀라고,

鶴得先聞無壑松

외딴 소나무에 앉은 白鶴이 먼저 듣네.

瀑前急氣流還激

폭포 물결 세차게 흐르고,

雷後餘聲轉自濃

우뢰 친餘音이 점차 커지듯.

此樓雖不懸簷漏

이 鐘閣 누대 처마없어 비가 새지만,

僧夕遙教俗亦從

스님은 저녁마다 세속을 교화시키려 기도 드리네.

## 【字義】

○ 紐(紐) — 매어잇는 끈. 〆說文〇에 「束而可解曰紐」라 했다.

○ 龍鍾 — 老衰한 모양. 〆韻會〇 모양. 「龍鍾」 두 자의音を 합하면 「癯」字音이 되므로 이름.

○ 噴浪荻 — 나부끼는 갈대.

○ 無壑松 — 골짜기와 떨어진 소나무.

## 【解義】

聖住山의 종소리는 널리 지능하여 佛道의 慈悲를 世上에 알리려는 듯, 고요히 들려온다. 누추한 山寺의 누대에서 울리는 종소리이지만, 그 음향속에는 세속을 위한 大義가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又

暮朝得聽遠來鍾

아침저녁으로 먼 종소리 들려오는데,

聖住千年古寺容

千年동안 내려온 聖住山 옛 寺刹보이네.

影凝漢帝金人夢

漢武帝의 影상이 金나라 사람 꿈에 보였고,

濕聲胡僧太白松

종소리에 젖은 胡國의 스님, 밝은 별빛 아래 소나무 바라보네.

散傳四野士民驚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리에 사람들을 놀라고,

寄送八風天地濃

바람에 실려 天地를 가득 메우네.

如坐蓮花清淨界

맑은 경지의 연꽃속에 앉는듯,

超塵意思入雲從

세상리끝 버리고 구름속에서 따르리.

## 【字義】

- 影凝(영응) — 影상으로 이루어짐.
- 胡僧(호승) — 중국 북쪽 지방의 僧侶
- 太白松 — 金星이 소나무를 밝게 비춤. 太白은 金星의 異稱
- 四野 — 四方의 들녘
- 八風 — 八方의 바람. 넓게 불어오는 바람.

## 【解義】

황홀하게 종소리를 들으면서 佛道를 몸에 지니고 淸淨한 세계의 연꽃속에 앉아 眞理를 터득하는 듯한 느낌으로 作者는 超脫의 意초를 밝히고 있다.

## ◎ 月山飛瀑

晚

圃

天畔嵯峨萬仞山

하늘가 우뚝 솟은 만길되는 산에,

遙望銀漢倒斯間

멀리 은하수는 倒影되어있네.

散飛珠玉穿林起

옥같은 물결은 숲속 헤쳐 나오고,

搖落琉璃掛壁還

유리같은 폭포수는 암벽에 걸려져 흐르네.

濺流斷壑寒雲濕

험한 골짜기에 흐르니 구름도 젖어드는데,

淨洗奇巖白日閒

괴이한 바위들 씻어내리며 햇살은 한가롭네.

紫微若照波濤上

紫微星이 물결위를 비추어 준다면,

遯跡禪師對舊顏

자취 감춘 선사의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

## 【字義】

○ 嵯峨(차아) — 산이 우뚝 솟아 있는 모양.

○ 萬仞 — 만길. 십만자. 매우 깊.

○ 紫微 — 北과 七星的 북쪽에 있는 성좌.

## 【解義】

높은 하늘가는 하수 펼쳐진 아래 月山의 瀑布水는 구슬 조각이 날리듯 주위의 수풀과 암벽을 뿌리며 흐르는데, 紫微星도 이를 밝혀준다면 더욱 선명해진 물결속으로 선사의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이는 超脫적인 표현이다.

又

石

農

維石巖巖白月山

울릉불릉한 바위 있는 月山에、

連天瀑布落中間

하늘을 이는 듯한 폭포가 사중에서 떨어지고 있네.

飛流雨脚千莖細

빗줄기 같이 천줄기로 나뉘어 흐르는데、

直下水聲一曲還

길게 뻗어 내려가는 물소리에 한번 굽이쳐 떨어지네.

臥聽短霄嫌睡苦

밤에는 물살소리에 잠 못 이루고、

登臨半日覺心閒

낮에는 반나절 구경하며 마음을 한가롭게 하네.

屈子滄浪何足道

屈原은 창랑의 물로 만족하지 못했는데、

不如到此濯塵顏

얼굴 맑게 씻을 수 있는 이곳만 못하리.

【字義】

○ 巖巖—바위가 울릉불릉한 모양。

○ 雨脚(우각)—빗줄기。

【解義】

세찬 폭포의 물줄기 소리 들으며、밤에는 잠을 설치지만 한낮에는 마음의 淸閑함을 즐기고 있다。  
중구땅 滄浪의 물로 만족할 맑게 씻을 수 있는 이곳만 못하다는 것이다。



又

## 巖 三 寓

山依瀑淨瀑依山

산과 폭포는 서로 의지하며,

掛直長空百尺間

긴 하늘 백척사이 곧게 걸려져 있네.

秋天遙碧傾銀注

가을 하늘은 푸른 은하수 쏟아 붓는 듯,

洞壑虛鳴碎玉還

깊은 골짜기는 쓸쓸히 옥같은 물줄기 흘러 보내네.

客聽漂洒心無辱

나그네 맑게 씻겨 내리는 소리에 마음도 깨끗해 지는데,

僧坐清涼意得閒

스님은 시원함 즐겨 마음 한가롭게 하네.

料外香爐何處是

香爐峰은 어디에 있는가?

曾年不許勝開顏

일찌기 다른 해에 안색을 환하게 해볼 수 있었었던 곳은 없었으리.

## 【字義】

○ 傾銀注——은하수의 물줄기 기울여 쏟아 붓는다는 뜻.

○ 碎玉還(쇄옥환)——옥을 잘게 부수어 돌려보냄. 옥같은 물줄기를 흘러 보내는 뜻.

○ 漂洒(표세)——폭포물이 주위를 씻어 주면서 내려옴.

○ 料外——달리 생각해 보면.

○ 開顏——인상을 환하게 함.

又

## 廉 石 樵

雨後蒼茫對月山

비 내린 뒤 月山의 모습 아득한데、

一川瀑布掛雲間

시냇물 같은 폭포수가 구름사이로 걸려 있네。

登臨不必窮源到

이곳을 끝까지 올라갈 필요 없지만、

壯觀誰能得意還

이 웅장한 경치보고 마음이 만족스러워지네。

飛流噴壑雷聲轉

골짜기 내려오는 물소리 우뢰소리 같고、

匹練橫空日影閒

한필 누인 명주 하늘을 가로 지르듯 해 그림자는 한가롭네。

歸海作波無盡意

西海물결로도 뜻을 모두 표현할 수 없는데、

幾時東望自怡顏

언제 다시 이 동쪽의 경관으로 환한 얼굴지어 볼까？

【字義】○ 匹練(필련) — 한 필의 누인 맑고 깨끗한 명주。

【解義】 하얗게 표백한 명주꼭처럼 아름다운 폭포수를 바라보며 청한 하게 自然이 빚어낸 景觀을 玩賞하고 있다。 서해 바다를결만 보아도 수많은 감상에 젖어 회포를 풀기 어려운데 이곳 동쪽 폭포수의 장관을 보고 언제 다시 낭만적인 심상을 그려볼까하는 詩的表現이다。

又

李 三 隱

衝飛蠹石倒流山

높은 암석들과 부딪치며 거꾸로 폭포수 흐르는데,

山坳谷深杳這間

산음곡과 깊은 골짜기 아득히 보이네.

裂膽江神如有失

마음이 분열되는 강의신은 한가지 잃어버린듯한데,

鳴椎騷客却忘還

시끄러운 風月客은 돌아갈줄 모르네.

長時鍾鼓地無厭

오래도록 종과 북치듯한 소리에도 땀은 싹증내지 않고,

白日雷霆天不閒

밝은 햇살아래 우뢰소리 들려와 하늘도 한가롭지 못하네.

下界駸駸多積累

이 세상에는 바쁜 가운데 많은 허물있어,

也應噴玉好開顏

옥같은 폭포물로 나의 안색이나 환하게 해보리.

## 【字義】

○ 蠹石(촉석) — 우뚝하게 솟은 바위돌.

○ 裂膽(열담) — 마음이 분열되는 것.

○ 下界 — 이 세상.

○ 駸駸(침침) — 바쁘게 진행되는 모양.

## 【解義】

급급한 세상속에서奔走한 이들을 모두 잊고, 天地를 지능하게 하는 大自然의 폭포수로서 모든 허물들을 씻어버리고자 하는 作者의 心情이 脫俗의인 분위기로서 表現되었다.

又

李 松 溪

月山今作玉流山

月山이 이제 옥 흐르는 산 되어,

天以銀河瀉此間

하늘은 은하수를 부어 놓으네.

遙謂老龍潛窟吼

높은 용 굴속에서 울고,

翻疑猛虎逐風還

사나운 호랑이 바람 쫓고 돌아오네.

滂沱如雨波常激

소낙비 같은 거센 물결,

打着成雷石不閒

철썩하는 우뢰소리 바위돌 놀라게 하네.

巢許幾人來住此

巢父(소부), 許由같은 사람들을 이곳에 머물러,

聳於世俗自怡顏

세속을 잊고 스스로 즐거워 하네.

【字義】

○ 吼(후) — 울다.

○ 滂沱(방타) — 쏟아고 쏟아지는 모양.

○ 巢許 — 巢父와 許由. 巢父는 堯임금때 高士. 산속에 숨어 世利를 돌아보지 않고 나무위에 집을 지어 거기서 잤다는 데서 이름. 許由는 堯임금이 天下를 讓與하려 했으나 거절하고箕山으로 들어 가 숨었다.

又

## 金 杞 泉

噴瀑如飛掛碧山

나는듯한 폭포수 푸른산에 걸려

銀河千尺落人間

은하수물 떨어져 왔나?

一條雪灑僧呵立

눈발같은 한줄기, 스님은 즐거워,

萬壑雷鳴客聽還

우뢰같은 골짜기 소리 나그네 귀 번득이네.

驚分白練驚相下

백로 흰명주폭에 놀라 내려 앉고,

龍戴明珠弄自閒

용은 밝은 구슬 입에 물고 장난치듯.

大東誰注長川勢

이 땅에 누가 이런 긴폭포 만들 수 있었을까?

快洗腥塵做好顏

더러운 먼지 씻어내어 웃음지어 보리.

## 【字義】

○ 呵立(가립) — 웃으며 서있음。

○ 驚分白練(로빈백련) — 백로(白鳥)가 하얀 명주같은 물살이 자기 몸에서 나뉘어져 나온것으로 여김。

○ 大東 — 우리나라。

○ 腥塵(성진) — 비린내와 더러운 먼지。

○ 好顏 — 좋은 기운이 밝은 웃음미모。

又

## 金 蘇 山

削立雲端白月山

구름끝 잘라 세워놓은 月山、

遙看瀑布掛中間

그 속에 폭포수 걸려 있네。

翻空碎玉連相下

용솟음쳐 내려오는 아름다운 물결、

噴急飛禽不得還

뿌러지는 물발에 산새 날아가지 못하네。

境隨清淨幽人往

맑고 깨끗한 곳、隱者 구경하는데、

聲却烟塵獨我閒

안개와 먼지 날지 않는 곳、나 홀로 한가로워라。!

銀河一帶從天降

하늘에서 은하수 내려와、

自是名區闢好顏

경치 좋은 勝地 되어、웃음 지어지네。

## 【字義】

○ 翻空(번공) — 물결이 하늘로 뒤집혀 올라감。

○ 噴急(분급) — 噴出하는 물발이 세차게 뿌러짐。

○ 名區 — 경치 좋은 勝地。

## 【解義】

하늘의 銀河水와도 같을 폭포수는 하늘높이 용솟음치며 噴出하는데 먼지나 날리지 않고 있어 作者 홀로 淸閑함을 즐기고 있다. 경치가 아름다운 勝地의 恍惚함이 저절로 보는이의 心을 迷혹케 한다. 金蘇山에 열어주는 것이다。

又

朴 昌 和

誰決銀河掛碧山

누가 은하수를 푸른산에 걸어놓았나?

盡將萬斛洒林間

수많은 물결로 숲속 씻으려 하네.

虹彩暫收知日暮

황혼녘 화려한 무지개 사라지고,

雷聲漸震覺春還

봄날 우리소리 커지는구나.

玉龍吼觸無凝滯

용이 우는 듯한 소리 온곳에 퍼지고,

石壁活來非等閒

석벽아래 세찬 흐름 마음이 끌리네.

終到海心然後止

바다끝까지 가야 그치려나?

幾人對此敢開顏

이 광경 보는 이들 안색 환해지네.

## 【字義】

○ 決—<sup>말결</sup>말결 활짝 터 놓는 것. 決은 開의 뜻 (文選注)○ 萬斛(만곡)—<sup>많은 양</sup>많은 양. △儀禮△의 注에 十斗曰斛이라 했다.○ 無凝滯(무응체)—<sup>소리가 막히는데 없이 널리 퍼짐</sup>소리가 막히는데 없이 널리 퍼짐.○ 活來—<sup>생동감있게 흘러옴</sup>생동감있게 흘러옴. 活者生動也 △杜牧詩注△.○ 非等閒—<sup>관심있어 마음에 두는 것</sup>관심있어 마음에 두는 것.○ 敢(감)—<sup>결과적으</sup>결과적으로의 뜻.

又

趙松菴

聖住重重聳月山

聖住山 접접한 곳 우뚝한 月山、

隱然瀑布出斯間

숨어있는 폭포수 흘러나오네。

千年直下傾湫在

천년동안 절벽 아래 흘러 연못이루고、

萬丈飛流倒水還

높이 물결 드날리며 거꾸러져 흐르네。

勝地於今詩律富

좋은 경치에 詩想이 풍부해지고、

中天白日衣冠閒

중천의 밝은 햇살 의관이 평온하네。

杜鵑不識遊人意

두견새 風月客의 心은 뜻 모르리。

染血空啼去歲顏

지난해 꽃잎 피 물들여 쓸쓸히 올었네。

【字義】

○ 傾湫在——폭포수 떨어져 연못을 이루는것。

○ 衣冠閒——의관이 평온해 보임。

【解義】

높은 폭포수 아래 신비함과 황홀함에 젖어든 風月客이 느끼는 詩的情感은 豐滿(풍만)하여 자유로이 驅使(구사)할 수 있다고 作者는 보고있다. 한편 이런 정경속에서도 두견새는 지난날 피물들여 恨을 남기고 슬피 울고 있다.



又

金 致 萬

穿巖越壑掛高山

기슭은 골짜기 헤쳐 흐르는 폭포 높은 산에 걸려,

直下三千頃刻間

깜짝할 사이 높은 절벽 아래로 흐르네.

決似渴源經歲烈

목마른 물 줄기에 터 뉘듯 한해 다 하도록 세차게 흐르고,

去惟無約幾時還

한번 가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 못하리.

促行急急恒多事

조급하게 흘러 항상 바쁜 듯,

忘夜紛紛暫不閒

밤에도 쉬지 않고 흐르네.

疑是銀河天上瀉

하늘의 은하수 쏟아진 것인가?

塵襟洒落爽人顏

옷깃 씻어주며 열골 시원하게 해주네.

【字義】

○ 經歲—한해를 보냄.  
○ 洒落—씻어주며 떨어짐.

【解義】

잠시도 쉬지 않고 쏟아지는 폭포수는 항상 바쁜일이 잇닿아不舍晝夜로 흘러간다. 폭포의 뿌러지는 물발에 作者는 淸涼感을 느끼고 있다.

又

沈 晚 溪

一色長條界破山

기다란 폭포물줄기 산을 깨고,

急波直送落巖間

암벽사이 세찬물결 흐르네,

匹練暮橫零巷捲

하얀 비단 물결 이는 밤 산골짜기 흐르고,

晴雷畫作逗空還

폭포소리 대낮 하늘 지동하는 우뢰같네.

河漢倒天源不盡

하늘가 은하수 물결 다하지 않아

冠裳繼日世多閒

좋은 의복입고 매일 한가히 즐기네.

如今李白今生在

만일李白이 다시 태어난다면,

復續廬吟又快顏

다시廬山吟을 읽고 만족스러워하리.

【解義】

폭포의 아름다운 壯觀속에서 화려한 옷차림으로 玩賞을 하며 逍遙吟咏하고 있다.

現實을 超越한 境地에서 隱士들이 追求하였던 純粹本然의 價値理想型의 一面을 볼 수 있다.

又

徐 華 岨

碧色中分太古山

푸른 폭포 산을 둘로 갈라,

一條白練掛巖間

암벽사이 흰 비단을 걸려 걸려졌네.

雪紛未霽疑無積

눈발처럼 이어져 흘러만 가고,

珠落無窮似復還

구슬방울 끝없이 순환되어 돌든.

用人常漑猶無竭

농로에 물대도 다하지 않네,

被客長吟暫不閒

나그네 길게 읊조려 흥겨워 하네.

藉藉勝名良以此

듣던대로 좋은 경치 여기사 확인하니,

生光萬丈彼孱顏

생기있는 빛저 험준한 산맥 길게 이어졌네.

## 【字義】

○ 似復還——순환하여 끝없이 돌아오듯함.

○ 藉藉(적적)——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왁자거리는 모양. 膾炙.

○ 孱顏(참안)——산이 울퉁불퉁하여 험준한 모양. 孱(참)은 巉也. 〮漢書司馬傳〮에 보면「孱顏、不齊貌」라 했고, 또는「山高貌」라 하였다.

又

蔡 肖 巖

雨後銀河掛此山

비내린 은하수 같은 폭포 이산에 걸려,

褻觀何似遠無間

자세히 보니 산이 갈라진 듯.

輕揚匹練乘風動

바람 타고 휘날리는 하얀 비단 물결,

鑾闕三軍唱凱還

전쟁에서 승리한 三軍의 노래소리인가!

陶汰漸增成地變

맑게 씻어내는 물결 땅도 변하려,

流光如許警余閒

세월도 그렇듯 태만한 나를 경계해주네.

有誰障得狂瀾盡

누가 거세를결 막겠나?

惱殺仙靈滿皺顏

仙靈도 괴로워 주름살 가득한 얼굴 되었으리.

## 【字義】

○ 褻觀(설관) — 자세히 관찰해봄.

○ 鑾闕(오홍) — 전쟁에서 죽기를 한하고 싸움.

○ 唱凱(창개) —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신가를 부름.

○ 陶汰(도태) — 맑게 씻어 내림.

○ 流光 — 여기서는 흐르는 세월의 뜻.

○ 狂瀾(광란) — 미치듯한 물결.

○ 惱殺(뇌쇄) — 몹시 괴로워 함. 殺는杀的 뜻. 또는 강조를 나타내는 助詞로 봄.

又

李 澗 清

海右名區號月山

西海 동녘 명승지는 月山이라,

匡廬飛瀑弟兄間

廬山 폭포 다음가네.

擅勝從前皆欲實

함부로 드높혔지만 모두 아름답게 하려는데,

搜奇到此却忘還

기이한 곳 찾아 이곳에 오면 돌아가지 않네.

洒落通心塵慮息

마음을 맑게 티끌 씻어,

是非聾耳世情閒

세상 시비 잊어 한가롭네.

神毫如得龍眠手

龍眠居士의 손 빌려 붓 잡아,

畫看千秋動喜顏

천년의 좋은 경치 그려놓았네.

## 【字義】

○ 匡廬(광려) — 廬山의 別稱。殷周代 匡裕라는 사람이 이곳에 여막을 짓고 살았으므로 이름.

○ 擅勝(천승) — 함부로 드높힘의 뜻. 擅은 專也.

○ 實 — 앞의 저술한 구구적인 의도는 月山을 아름답게 하고자 한다는 뜻. 여기서 實은 美의 뜻으로 봄 (淮南子注).

○ 龍眼 — 龍眠居士. 晩年에 龍眠山에 隱居한 宋國의 文人 畫家 李公麟의 號이다.

○ 動喜顏 — 일글을 읊적여 기쁘게 하는 것. 즉 원인은 좋은 경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又

## 黃梅石

兀坐南天白月山

남녘하늘 아래 고요히 자리잡은 月山은,

鏡波瀉出兩峰間

양봉우리 사이 맑은 폭포수 쏟아지네.

急湍和雨龍如吼

비 섞인 소용돌이 물결 용우는 소리 같을데,

倒漢穿林鳥亦還

은하 물결 숲속 헤쳐 흘러 산새 날아가네.

清澣危巖冰玉散

가파른 암벽 맑은 물살 뿌러지고,

登臨幾日客郎閒

구경와본 나그네 한가롭네.

飛流高遠雖千仞

천길 높은곳에 폭포수 흐르지만,

豈比金剛磊落顏

어찌 金剛山 웅장한 기상과 비할 수 있는가!

## 【字義】

○ 兀坐(을좌) — 홀로 端坐하고 있는 모양. 여기서 는 고요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의 모습.

○ 急湍(급단) — 급하게 흐르는 소용돌이.

○ 穿林(천림) — 수풀을 헤치며 흘러나옴. 穿은 開通의 뜻. (漢書注).

○ 磊落顏 — 안색을豁達하게 열어 줌. 磊落은 豁達시켜주는 것. 〆北史李謐傳〇에 「辭氣磊落、觀者忘疲」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又

韓 廷 履

飛瀑從天下月山

月山瀑布는 하늘에서 내려와,

銀河幾處住人間

은하수 물결 흐르는 곳에 사람 살고 있다.

中原芙蓉曾聞在

중국 평원의 芙蓉(부소) 경치 아름답다던데,

東國金剛壯觀還

우리나라 금강산 장관이 이곳 돌아왔네.

驚避噴騰偏足立

백로는 물살에 못이져 기우뚱,

龍收變化蟄身閒

용은 잠적하여 편안하게 쉬네.

烏南此景眞稱嘗

烏南 경치는 참으로 경탄할만하여,

携酒絶巔強解顔

술로 절정이 뭐 활짝 웃어보리.

## 【字義】

○ 中原—중국 평원의 중심.

○ 芙蓉(부소)—중국 平原 이름.

○ 稱嘗(칭상)—칭송해 볼만함.

○ 絶巔(절전)—絶頂과 같다. 최고의 경지에 이름.

## 【解義】

중국 平原의 아름다움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金剛山의 絶景을 방불케하는 月山의 壯觀속에서 술로 흥을 돋우며 自然景光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 作者의 眞率한 表現이다.

又

## 朱 晦 誠 堂

白月崔嵬萬仞山

밝은달 가파른 산줄기 비취,

遙看飛瀑落雲間

멀리 구름속 폭포수 흐르네.

何似銀虹橫地互

밝은 무지개 땅위 가로지르듯,

却起天漢倒空還

은하수 물결 하늘에 솟구쳐 돌아오네.

勢欲追風如不及

거센 물발 바람 따르려,

心存歸海暫無閒

바다로 갈려면 빨리 가야지.

下流願作洙泗渚

흘러간 물 洙泗물이 만들려는데,

涵泳深源倬聖顏

깊은 물에 헤엄치며 안색을 환하게 해보리.

## 【字義】

○ 橫地互(형지호) — 땅을 가로질러 길게 뻗어 있음.

○ 涵泳(함영) — 헤엄치며.

○ 倬(탁) — 환하게 함。(明也)。

## 【解義】

自然의 아름다움을 피부로 느껴보고자 시원한 폭포수 아래 몸을 적시며, 정겹게 즐기고 있다. 마음은 환할한 폭포수에서 물이 되고 싶어지고 싶은 듯한 추운물에 안색이 벌써 화색이 돌고 있다.



又

申 屏 巖

河漢暗通白月山

은하수는 밝은 月山에 살며시 내려와,

中間飛瀑瀉中間

가운데 솟은 폭포수도 떨어지네.

松坡層浪懸壺倒

소나무 언덕아래 물결 병 기울여 놓으니까,

蘿壁殘泡沸昇還

이끼진 절벽 흘러진 거품 김되어 오르네.

沸昇烹魚邀友樂

오르는 김에 물고기 삶아 벗 불러볼까?

懸壺傾酒醉余閒

병에 든 술 기울여 나를 취하게 해보네.

諸賢休說湘流景

그대들 湘江의 경치 말하지 말라.

是處遊人總好顏

이곳 風月客은 月山 경치에 만족하네.

## 【字義】

○ 懸壺倒(현호도) — 물결이 마치 산언덕에 병을 걸어 놓고 기울여 보내는 것과 같다는 뜻.

○ 殘泡(잔포) — 흘러진 물살에 남겨진 거품.

○ 沸昇(불승) — 김이 되어 오름.

○ 休(휴) — 禁止詞로서 하지 말라는 뜻.

○ 湘流(상류) — 湘水의 물결. 湘水는 中國 洞庭湖로 흘러 들어가는 강.

又

申 月 潭

月山一脈互廬山

月山の한맥이廬山(여산)에 뻗혀있듯,

瀑落高崗絕頂間

높은 산마루에 폭포 흘러내리네。

誤聽魚龍噴且吼

물고기 뛰고 용우는 소리인가？

憑看歲月去無還

세월은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네。

雨飛萬壑人常冷

물발은 골짜기에 날려 항상 서늘하고,

雷掛長天帝不閒

우뢰 하늘에 지둥하듯 하느님 시끄러워 하네。

浙瀝聲中聾世事

폭포 물발치는 소리에 세상일 잊고,

藏蹤此地作商顏

이곳에 은둔하여 활짝 핀 얼굴로 있으리。

【字義】

○ 互(으) — 뻗혀 있는 것。

○ 絕頂間 — 산 꼭대기。

○ 浙瀝(석력) — 눈비가 내리는 소리。△夏侯孝若賦△의 注에 浙瀝、雨霰聲이라 했다。

○ 商顏 — 안색을 환하게 함。商은 張의 뜻。△白虎通△에서는 「商者、張也」라 하여 어두운 기운을 활짝 열어 주다는 뜻。(陰氣開張)으로 보았다。

又

蔡 梅 下

瀑布一端掛月山

폭포 한 줄기 月山에 걸렸는데,

塵埃洗濯出人間

인간세상의 티끌 씻어 버리리.

騰天氣勢銀龍鬬

솟구치는 물발은 빛용이 다투는 듯,

駕壑形容玉馬還

골짜리 타고 내려오는 玉馬의 형상이네.

林梢飛靄重來密

폭포수 날라 숲속 나무끝에 매여있고,

巖穴歸雲獨去閒

바위굴에 한가로이 구름 머물러있네.

厭世濁流磨石淨

세상의 탁류 꺼려 돌을 맑은 물로 닦는데,

精神爽處是真顏

상쾌한 정신에 얼굴빛 밝아지네.

【字義】○ 一端—한 줄기

○ 駕壑(가학)—말 모양을 한 폭포수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뜻함.

○ 重來密—나무끝에서 물이 맺혀지는 모양.

【解義】

清涼한 폭포수물은 세상의 티끌을 씻어버리고, 용솟음치는 물발은 마치 용이 날뛰고 말의 달려오는 것처럼飛舞하고 있다. 이곳에 몸을 담고 정신이 상쾌해지니, 脫俗의 超越感을 맛보고 있다.

又

韓 漁 隱

一片月孤萬仞山

외로운 조각달 긴 산맥 비추는데,

雷公倘或在斯間

우뢰같은 폭포 소리 들리네.

風聲遠到猶無力

바람소리 희미하게 들리고,

雲影近生反復還

구름 그림자 자주

銀河落天誰是使

은하수 하늘 아래 내려와 황홀한데,

玉虹翻地暫非閒

무지개 地上에서 설새없이 나부끼네.

直下飛流知幾尺

높은 벼랑에서 내려와 날아 흐르는데,

一條界破碧山顏

한 줄기 물결 푸른 산 갈라 놓았네.

【字義】

○ 雷公倘(뇌공상) — 우뢰가 소리내며 노닐.

○ 碧山顏 — 한덩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산의 모습.

【解義】

우뢰같은 폭포소리에 바람소리도 희미해지며 멀리 은하수가 내려온듯, 무지개가 춤추고 있듯, 造化의 황홀함에 젖어 繪畵의인 山水背景속에서 自然을 노래했다.

又

徐 槐 軒

珠痕飛瀑月名山

구슬같은 폭포수 月山에,

白日雷霆落此間

밝은 햇살 아래 우뢰 소리 들리네.

千波河勢傾天瀉

은하수물결 쏟아부었나?

萬馬兵聲動地還

군사와 말소리 내어 땅을 지동하며 흐르네.

如將散派方塘築

흘어지는 물발 연못 이루고,

佇見中流霽月閒

흐르는 물속 맑개갠 달빛 비추네.

昕夕奔忙何意思

왜 朝夕으로 바쁘기만 한가?

澄心一道注江顏

맑은 내마음 강물에 쏟아보리.

## 【字義】

○ 雷霆(뢰정) — 우뢰소리.

○ 佇見(저견) — 우두커니 서서 봄.

○ 昕夕(흔석) — 아침 저녁.

## 【解義】

자신 폭포의 물결속에서 요란한 굉음같은 소리도 들리며 흐르는데, 自我内面心理의 수수성을 맑은 강물에 던져보고 싶어하는 作者의 心情이다.

又

李 小 靑

月山一抹似廬山

아름다운 月山경치 廬山같는데,

誰送星河落此間

별들과 은하수 이곳에 내려온듯.

潰出層巒圍可解

둘러싼 산벽 풀어

怒奔蒼海倒無還

성난 파도 물결 거꾸러 지며 돌아오지 않네.

銀虹插地何嘗捲

언제나 은빛 무지개 펼쳐있는데,

玉馬騰空不暫閒

용솟음치는 물결 세차게 흐르네.

賴看喧轟聾世事

꼭꼭 굉음속에서 세상일 잊고,

爲將樽酒自怡顏

술자들며 안색 환하게 하네.

【字義】

○潰出(궤출) — 혈이 무너뜨리고 흘러나옴.

○層巒(층만) — 층을 이루고 四方이 병풍처럼 쳐져있는 山。巒은 屏山。

○喧轟(훤굉) —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

【解義】

自然의 純粹한 絶景속에서 世上의 어지러운 현실을 超脱하고, 꼭꼭의 굉음속에서 세상일을 잊고 술자들과 술로 안색을 환하게 하면서 作者는 自然에 心醉되어 있다.

又

瀑把銀河掛月山

은하빛 폭포수는 月山에 걸려

山鳴谷應響無間

울리는 소리 山과 골짜기에 가득하네.

迅雷擊物連將絕

물발은 거세게 우뢰가 몰아치고,

驟雨隨雲去復還

소낙비 구름따라 쏘아지듯하네.

驚浴盤渦驚乍下

백로는 목욕하다 놀라 내려가고,

漁游跳浪亂何閑

물고기 날뛰며 어쩔줄 모르네.

誰營巨室先營礎

누가 이곳에 집지으려 주춧돌 세워?

界破老巖蒼色顏

오랜 바위의 푸른빛 깨뜨리려 하나?

## 【字義】

○ 山鳴谷應—메아리 소리가 산에서부터 골짜기까지 울려 퍼짐.

○ 連將絕—물발의 줄기가 끊어지려다가 이어지면서 흐름.

○ 驟雨(취우)—갑작스런 소나기.

○ 盤渦(반와)—소용돌이 침.

○ 乍下(사하)—갑자기 내려감.

○ 營礎(영초)—주춧돌을 세움.

又

月山本是古廬山

月山の 경치 옛廬山과 같는데,

瀑尺三千落此間

여기 三千尺의 폭포 흐르네。

霜鋸鬼分山腹切

시퍼런 톱귀신이 산 가운데 잘라놓고,

白練人掛石頭還

하얀 비단폭 바위에 걸려져 흐르는듯。

頻教風伯飛空遠

바람이 하늘에 나아 나부끼듯 흐르는데,

或使文章覓句閒

문장가는 한가로이 글을 짓네。

滌塵浮生諸劫氣

덧없고 험난한 세상 씻어 내어

雄豪其志自怡顏

영웅호걸은 즐거워 일들을 환해지리。

【字義】○廬山—江西省九江府에 있는 명산。여산은 보는 장소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보인다고 함。

○霜鋸—서릿발 같이 시퍼런 톱。

○風伯—바람신

【解義】하얀 비단 폭 같은 폭포수에 덧없고 험난한 세상의 고뇌를 이곳에 던져버리고, 脫俗한 경지에서 作者는 영웅 호걸들을 처럼 自然을 즐기며 안색을 환하게 하고 싶은 것이다。



## ◎ 烏南全景

南睡 韓 廷 履

跨州據郡鎮烏樓

이 고을을 돌보며 烏樓山을 지키,

屹立雲霄不可躋

높은 하늘 오르지 못하리.

儼接漢陽山拱北

의 것이 북녘 한양땅 향해 있고,

勢遮蠻域海環西

山勢는 西海에 싸여 異國땅 아득하네.

地連遠刹隣唐沔

멀리 寺刹 이어진 땅에서 唐나라의 강물 보일 듯,

水濶孤帆指楚齊

넓은 바다 돛대 배 옛 楚나라, 齊나라 땅 향하려나?

蹄跡相交都會處

옛 자취 남겨진 변화한 곳에,

景光依舊使人迷

변함없는 화려한 경치가 魅了(매료) 시키네.

## 【字義】

○ 跨州據郡(고주거군) — 跨據州郡의 뜻. 고을을 占據함.

○ 鎮 — 鎮定. 지킴.

○ 雲霄(운소) — 푸른빛 나는 구름이 있는 하늘.

○ 拱北 — 북쪽을 향하고 있음.

○ 蠻域(만역) — 바다 건너 있는 외국 땅.

○ 唐沔(당면) — 唐나라 沔水(陝西省의 漢水의 지류).

○ 蹄跡(제적) — 牛馬가 걷고 간 말굽 자국. 轉하여 古蹟의 뜻.

## 跋 文

東坡詩云、我生百事常隨

緣、四方水陸無不便。我之

所事、宜若隨緣、而水之淼

茫、陸之博厚、隨我緣而

便安者歟、是未可知也。

在昔聖王、隨山導水、以名山

大川、爲州之大鎮、以

烏棲、爲湖西之大鎮、

不亦宜乎。此山之色望

若黝黛而飛也、似特立故、

或曰烏棲也。又其形、上應

水火金木土列宿故、或曰

蘇東坡의 시에 이르기를 「내 삶의百事가 언제나

인연을 따르는데、四方의 河海와 陸地가 제 모습을 이루  
게 된다」라고 했다。내가

하는바도 마땅히 인연을 따라야 하는데、河海의 넓고  
아득함과 陸地의 넓고 두꺼운 것도 나와 의 인연관계가 되

어 편안하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  
다。

古代 聖王들은 山勢와 물길을 따라 名山과

大川으로 한 고을의 큰 지역으로 삼았는데、

烏棲山으로 湖西地方의 큰 지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烏棲山의 경치는

마치 검은푸른 빛을 지니고 나부끼는 듯 하며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혹 烏棲라고 한다。또 그 山의 형상은 하늘의

水·火·金·木·土星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혹은

五星也。又其南有聖住、  
 又有聖堂之谷、而鄭賢  
 聖堂居焉、故或曰五聖也。  
 斯皆隨其形色、緣於見聞  
 名、各不同者也。余亦生斯  
 長斯、雖未知水之淼、陸之  
 大也、以不似之材從事詞林  
 尚未免蔑、如也何。幸今春、  
 以翰墨餘緣、邀來憲洙  
 叩友亦不疏於葩藻矣。  
 其於愁花啼鳥眠柳馳馬、  
 無不管嶺、而至於烏南之景、  
 則余之宿昔所營者也。

五星이라 한다. 또 그 남쪽으로는 聖住山이 있고,  
 聖堂의 골짜기가 있는데, 鄭賢의

성당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혹五星이라고 한다.

이 모두 경치에 따라 알고 있는 知識에 의해  
 지어진 것인데, 명칭이 제 각기 다르다. 나 자신도 여기  
 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비록 河海의 넓음과 陸地의

광대함을 모르지만, 졸렬한 재능으로 翰林에 종사하고 있

어. 오히려 侮蔑(모멸)을 면하지 못하게 됐으니 어찌 할 것인가. 다행히 올봄에

同學徒인 憲洙를 불러 왔는데

그 또한 自然山水에 관심이 있었다.

그 愁花·啼鳥·眠柳·馳馬 등

모두 잘 가꾸며 돌본 것인데, 烏棲山 남쪽의 경치에 있어  
 서는

내가 오래전부터 잘 가꾸어 왔던 것이다.

因以條列其詳、備具於

弁文之中也。不須長提、然、

遠近多士、同聲贊美、

燦爛章甫、鱗次轉臻、

是之謂傾蠡、可以酌大海之

水片鱗、足以知全鼎之味也。

以此推之、則向之所論、

水陸得便、百事隨緣、

其斯之謂歟、其斯之謂歟。

따라서 그 상세한 내용을 조목별 열거해야 할것은 이미

序文 가운데言及해 놓았다. 길게 말할 필요없지만,

遠近의 많은 선비들이 함께 칭송하고,

찬란한 유생들이 줄지어 찾아왔는데,

이는 표주박을 기울여 넓은 바다에

떠있는 한 조각 고기덩이를 건져내어 온전한 음식의 맛을  
볼수있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推論하자면, 앞서言及한指向點은

“河海가 편안해지고 百事가 인연을 따른다는 것”에 歸着되  
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로구나! 그것은 바로 이  
것을 두고 한 말이로구나!

歲在丁卯需月望

金鳳濟(保寧郡靑蘿面 金世烈의祖父) 謹跋

## 《新增東國輿地乘覽》

盧思慎

編著

## ◎保寧題詠

— 俞元淳 —

晝發海豐郡

대낮에 바다 풍요한 고을 출발하니,

侵宵到保寧

밤에야 보령에 이르렀네.

竹鳴風警枕

대 울게한 바람소리에 잠깨고,

雲泣雨留行

구름 눈물지게한 빗방울에 걸음 멈추네.

暮靄頭還重

저녁 늦빛은 머리 침침해지나,

朝暾骨乍輕

아침 햇살에 몸은 사뻏해지네.

始知身老病

이 몸 늙어 병들었어도

唯解卜陰晴

하늘의 맑고 흐림 먼저 느낄 수 있음만을 알겠네.

## ◎ 藍浦題詠

— 徐居正 作 —

古郡瀕南海      고군(古郡)은 남해에 가까운데,  
 山河地理雄      산하, 지리의 형세 뛰어나다.  
 島烟能作雨      섬의 자욱한 안개는 비를 만들니,  
 江樹易生風      강가 흔들리는 나무에는 산들바람 부네.  
 水染葡萄碧      바닷물 색깔 푸른 포도빛 물들여 져고,  
 霞蒸菡萏紅      저녁놀이 붉은 연꽃빛 피어 오른 것이네.  
 白沙黃竹路      흰 모래밭 황죽도(黃竹島) 가는 해변길에  
 身在畫圖中      이 몸은 그림같은 경치속에 물입되었네。

## 【註解】

○ 古郡—藍浦(남포) 지역。

○ 瀕(빈)—가까움

○ 菡萏(함연)—연꽃

○ 黃竹—서해안의 黃竹島(황죽도)를 이름。黃竹路라 하면 황죽도로 갈 수 있는 해변길。竹島、巨次羅島、黃竹島、立竹島는 함께 서해 가운데 있다고 함。

## ◎ 保寧永保堂憑虛堂

朴 閔 作

地迫未窮千頃海

보령당은 끝없이 광활한 바다에 가까우니,

山開猶納一頭潮

넓은 산勢에 한 줄기 세찬 조수물결

急風吹霧水如鏡

질풍(疾風)은 안개 흩어 물결은 맑은 거울인 듯,

近渚無人禽自謠

인적(人跡)없는 물가에는 물새 홀로 노래하네.

客裏每爲清境惱

나그네 淸淡한 곳에 머물러 늘 마음시름 하는데,

日邊更覺故園遙

저 해끝 아래 먼 내 고향 생각나네.

苦吟不去乏新語

괴로운 읊조림 이어 나올 말도 다하는데,

愁見落輝沈遠霄

슬피 먼 하늘에 잠긴 석양빛 바라보네.

## 【註解】

○ 千頃海—頃(경)은 百畝(백묘)。廣濶(광활)한 바다의 뜻

○ 吹霧—바람이 불어 안개를 흩어다.

○ 客裏—나그네가 머물러 있는 곳.

○ 日邊—해끝。日際。

○ 落輝—落照。석양빛

○ 霄(소)—하늘

又

晚潮來處暫欹枕

석수(汐水) 이르는 곳에 잠시 베개 비고 누우니,

擡眼忽看洲渚生

깜짝 놀라 물가의 밀물 내다보네.

朝暮應誰事呼吸

아침 저녁으로 누가 호흡하는 것인가?

乾坤終亦有虧盈

天地自然에도 결국 이지러짐과 가득함 있네.

南人浮海如行馬

남인은 넓은 바다에 배 띄워 율짚에 매인 듯,

澤國逢春更小晴

봄 만난 이 바다 안개를 사라져 가네.

日日倚樓渾不下

날마다 누대에 기대어 내려올 줄 모르는 데,

怪聲時聽白鷗鳴

깃가에 맴도는 괴성은 흰 갈매기 율윽소리네.

【註解】

○ 呼吸(호흡) — 밀물과 썰물의 비유적 표현。

○ 虧盈(휴영) — 天地運行에 따른 自然의 음양 변화。

○ 行馬 — 율짚의 뜻 (桎梏也)。



又

平生病眼怯遐矚

눈은 이 병든 눈은 먼 거리 보기가 겁나는데,

尋丈之間殊不分

하늘 아래 지평선 구분하기 힘들네.

鳥過猶憐一點雪

하얀 새 날아가니 한 점 애뜻한 눈빛이듯,

山橫更覺萬堆雲

산을 가로지른 뭉게구름에 눈빛 번드르르이네.

西邊落日劇相盪

서녘 지는 해는 일몰(日沒) 서두르고,

空裏玄花尤自紛

텅빈 하늘엔 어렴풋한 기운 산란하여라.

隱几茫茫輒成睡

안식 기댄채 나른해져 문득 잠들려는데,

琅然鐵撥只堪聞

쇠채로 튕기는 악기의 옥소리 들을만하네.

## 【註解】

○ 遐矚(하촉) — 멀리 바라봄

○ 玄花 — 눈에 보이는 사물의 어렴풋한 형상 (眼視物的模糊形象 《唐詩典故》)。

○ 隱几 — 안식에 몸을 기대.

○ 茫茫 — 몸이 나른한 모양

○ 撥 — 여기서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채를 뜻함(鼓絃之物)。

又

地如拍拍將飛翼

지세(地勢)는 푸드등대며 날으려는 듯,

樓似搖搖不繫蓬

누대는 흔들리어 뿌리 잘린 쭉대 같네.

北望雲山欲何向

북녘 雲山을 보니 어디로 향할까,

南來襟帶此爲雄

山川에 둘러싸인 남쪽땅 참으로 빼어나다.

海氛作霧因成雨

해변의 자욱한 안개는 비를 이루고,

浪勢翻天自起風

출렁대는 물결 높이 솟아 바람 일으키네.

暝裏如聞鳥相叫

해 저물어 새들 울음소리 들리는 듯한데,

坐間渾覺境俱空

홀로 앉아 모두 가버린 공간임을 알겠네.

【註解】

○ 拍拍—새가 날개를 치는 모양.

○ 不繫蓬—즉, 斷根蓬과 같은 뜻. 흔들리듯한 가버린 누대를 형용하는 표현.

○ 襟帶—옷깃과 띠처럼 둘러져 있는 山川

○ 暝(명)—해가 집.

又

憐我朝來獨吟處

외로운 이 내몸 아침에 시음할 곳 찾아오니,

一竿初日照簾旌

높이 떠오르는 햇살은 발을 미비추네.

風颿飽與潮俱上

바람과 돛은 정다워 바닷물도 솟아 어울리고,

漁戶渾臨岸欲傾

어부와 그의 집 마주보니, 언덕도 고개기우리려네.

雨後海山皆秀色

비개뒤 海山은 모두 빼어난 경치요,

春還禽鳥自和聲

봄맞은 새들은 정겨운 노래 부르네.

客中奇勝猶須句

나그네 머문 절경은 좋은 글 기다리는데,

平世文章不要名

태평 세상의 문장은 명성을 구하지 않으리.

## 【註解】

○ 初日—아침 해

○ 風颿(풍범)—바람과 돛. 颿(범)은 帆과 같다.

○ 飽與—만족스럽게 뜻을 함께 함.

○ 客中—나그네가 머물러 있는 곳.

○ 須句—자연의美를 표현하는 美辭麗句를 기다림.

盧 承 奭

譯註

## ◎ 周浦高巒謫吟

— 崔

歇來孤嶼上

어찌다 외딴 작은 섬에와

旅食席晨昏

아침저녁 나그네로 세월 사네.

婦矮行如鼈

이 짤막 아낙네는 자라 갈기도

民窮貌似猿

곤궁한 백성들은 원숭이 같고,

俗離怪習常

풍속은 소탈하여 괴상하나

禮或識卑尊

예절도 어지간히 비존도 아네.

日落腥煙合

해지니 비린연기 모아드는데

秋涼瘴氣溫

이 가을 장기 때문 후끈한 맛이

峰巒同翼翼

봉우리 한결같이 날아 갈듯만

浦淑轉琬琬

갯벌은 꿈을 꿈을 구비치기만

帆截分天影

돛모양 하늘 그림 깎아나듯

漉 —

沙退認水痕

모래푹 물러가니 물살센 것을

海經將古驗

바다를 지켜온지 오래됨직도

潮曆問今煩

조수물 드나들을 시간 따지고

老樹嫌風惡

노수는 바람세어 싫어 한다오

驚濤得石奔

파도는 돌부딪혀 달아나는데

將僧同止息

침식은 중개인과 같이 하면서

與世隔囂喧

세상의 시끄러움 끊긴제 오래.

把釣時堪待

낚시대 보는 재미 시간 또 보내

乘桴興又存

뗏목을 타는 것 또한 재미

長歌誰見和

긴 노래 불러본들 뒤 회답하라.

太息只無言

긴 한숨 말도 없이 새어서 날뿐.

大川文化院長

尹 源

錫

譯

## 保寧八景

一、白雲寺暮鐘<sup>2029</sup>

千年古寺白雲樓

저문해 이끼진 옛절이라 백운루 있어

梵唄聲聲俗界流

은은한 범패소리 속세에 흐르는데,

鍾落一邊山日暮

종소리 꺼져가는 언저리 해가 저무네

歸僧忙步路悠悠

돌아오는 시주승 구비길을 재촉하는가.

## 二、玄浦海水浴

玄湖彷彿是沂洲

玄호가 방불하다 이곳이沂洲런가

曾點歸來度幾秋

曾點이 돌아오기를 거듭 몇해이던가

莫道冠童并六七

어린이 모두 몇안됨을 말말아라。

人波萬頃水同流

사람물결 만우비요 물도 갈래 흐르네。

### 三、外煙島漁火

中宵不返探多求

밤중에 도가지 않고 탐내 많이 잡자 하니

島立波鳴水自秋

섬은 우뚝 불보란데 바닷벌써 가을이라.

爭去爭來何壯觀

다투는 듯 뱃불이 오가니 어찌 장관 아니던가

漁民生計應知幽

漁民의 넉넉함이 다만 짐작간다오

### 四、王臺山曉月

새벽달

一依舊日臨汀洲

산은 옛날 그대로 물가에 임했는데,

一去王孫憶昔秋

가버린 王孫의 옛날을 생각하는가

惟有曉頭山上月

다만 이른 새벽에 山上달이 떴는데

今人惹起古人愁

이제야 옛사람의 시름이 돋사누나.

## 五、鰲川港歸帆

漁舟商舶載浸浮

고깃배 장사배가 이에 잠겼다 떴다

朝發暮歸遠近洲

이곳 저곳 바닷가에 왔다갔다 하노니

帆受順風任自去

돛대는 수풍받아 미끌듯 떠가는데

鯨波出沒向鰲頭

크물결은 鰲頭향해 들락날락 하누나。

## 六。隱瀑洞晴嵐

入深隱瀑幾人遊

깊게 있는 은폭포에 몇사람이 쉬는나

踏畫晴嵐尚未收

두루살펴 잉애는 아직 걷지 안했는데

前路依微捲叙際

앞길이 희미하게 걷고 펴는 이곳이여

難分咫尺水聲流

咫尺이 분간 안되는 물의 흐름소리여

七、桃花潭晚楓

桃潭千尺境深幽

桃花潭 千자의 경지 깊고 그어도 한데

況是楓林九月秋

더구나 단풍숲은 九月 晩秋로구나。

雖欲停車效坐愛

비록 차를 멈춰 坐愛한일 본받자하나

新詩美酒有誰酬

새노래와 좋은 술을 누가 있어 상대하랴。

八。武昌浦落照

五移雲圍水際浮

저녁늘 구름둘레 수평선에 떠는데、

欲看未看奈其羞

보일듯 말듯 어긋남에 어찌하나

武昌非是牛山地

武昌이라 이곳은 牛山땅이 아닌데

君淚緣何我獨謳

그대 눈물로 하여 나까지 슬퍼지네。



◎ 保寧十景賦

大川海水浴場

嶼稱多寶佛仙名

도서 명칭 다보란 선불도라 부르고,

天惠銀彎海浴沼

천혜의 눈부신 항만은 해수욕이라

景色龍翻千里悅

경색은 청룡이 번득이듯 천리 황홀

水光鵬湧萬頃鳴

수광은 봉새넙을 만경창파 울려퍼져

善男善女青春列

선남선녀는 쌍쌍이 청춘행렬이요

豪傑豪英鳳鶴情

호걸 호영은 봉황 백학 정경이라

共沐人魚前生夢

인어가 공목하니 전생 몽혼이요

玲瓏電發夜光明

형등 만발 영롱빛은 불야명이라.

【註】 ○ 共沐—천연지원

○ 電發—과학문명

# 新市廳景觀

聖住靈山冠萬岡

성주영산은 만장봉의 정상이요

雲菴禪寺帶千裳

백운선사는 일천 치마 띠를 걸었네。

靑龍落脈軒廳聳

좌청룡 낙맥에 신청사가 우뚝

白虎飛翔市運彰

우백호 나를듯 시운이 웅창이라

紅牧含芳天作朶

붉은 모란 향기 듬뿍 천작의 한 떨기

碧松滿馥地名堂

푸른솔은 향기 가득 지세는 명당이라

王臺月出新磨鏡

왕대산에 솟은 달 새거울을 연마하듯

海望波長永劫洋

해망나루 파도 아득 영겁 양양이라

【註】 ○ 雲菴禪寺—참선하는 백운사

○ 天作朶—자연적으로 형성된 한 떨기

# 岷山景色

羊角衝天白日昏

양각산이 충천하니 한낮에도 칙칙하고

峨嵋勝地幻然翻

아미산 절승지는 자연환상 번득여

桃潭絕景千楓繡

도화담 절경은 일천단풍 수놓고

龍水錦流萬丈源

용수리 비다를결 만장홍 그윽이라

益齋梅軒尊影閣

익제선생 매헌선생 영정인 존엄하고

孝生逸士贈旌門

효생박공 일사이공 증직 정문 내렸네

仙流九曲熊川浦

신사들결 아홉구비 웅천포 가뭇고

佛趾三峯水富村

부처터 세봉우리 수부리 마을이라。

【註】○ 益齋—고려말 道學者(李齊賢)

○ 梅軒—고려말 宰相(廉悌臣)

○ 孝生—掌令(朴承健) · 逸士持平(李禮煥)

玉馬古軒 ぎょうばこけん

玉馬峰雲瑞氣精

옥마봉 구름은 서기 서렸으니

羅皇麗帥舉行程

라 황여장 수행거동 이정거리

左青右白天相局

좌청룡 우백호는 천연형국이요

南雀北玄地要城

남주작 북현무는 지리의 요성이라

藍浦鎮墟兵使統

남포 유진터는 병사가 통할하고

邑鄉文廟道心明

읍향의 문묘는 도통심을 밝혔네

梁項落照龍頭幻

양향의 낙조는 용두마을 비쳤고,

冶谷朝光帝釋井

야곡의 조광은 제석리로 퍼지네。

【註】○ 羅皇 新羅 敬順大王

○ 麗帥 高麗 金成雨將軍

○ 梁項·龍頭·冶谷·帝釋—洞名

## 青蘿秘景

古來秘訣一書傳

고래비결의 한줄 전해오니

烏聖光榮萬世天

오승지간 가활 영광 만대에 승평이라

洞勝青蘿仙佛谷

동승절승 청라향은 선불의 나원이요

山宗白月桂香邊

산의 조종 백월영은 계수향기 저변이라

集賢晚翠綱常本

집현반궁의 만취선생 강상이 근본이요。

書院花巖道義綿

화암서원은 도의정신 연면이네

鐵瓮倉垓誰闢陣

철옹성 창터는 그 뒤라서 지켰던가

麗將洞察未窮年

고려장수 통찰력이 무궁년이라

【註】○ 仙佛谷—仙遊洞

○ 桂香邊—香川里

○ 晚翠—世宗托孤遺臣—金孟權

○ 花巖書院—土亭 李之菡·鳴谷 李山甫·天休堂 李夢奎·退憂堂 李廷菴·睡菴 具繼禹·

○ 麗將—高麗 都萬戶 金將軍

# 保寧古城

212

保寧創邑互千年

보령창읍이 천년에 이어지고

興廢盛衰史萬連

흥폐성쇠의 무궁역사는 연면이라

政院遺墟稀迷址

정원의 유허는 희미한 터전의요

校宮重創更明鮮

다시 중창한 교궁은 선명하구나

館山變化新天地

관산마을 변화하여 신천지 이루고

後洞中興別勝邊

후동마을 중흥이되 별경가성인의라

山作工場開闢日

산을 공장일로 개벽한 날이요

野爲都市太平全

들을 도시로 태평하기 온전이라

【註】○ 館山—부락명

○ 後洞—부락명

○ 政院—東軒

○ 校宮—鄉校

## 青北連景

〈青所・川北〉

寒士性堂聞道城

청한선비 정성당이 도를 통한 성골이요

考生烏隱學能成

효생 우음은 학무에도 성취하니

青蘿政閣忠貞宇

청라 상공 정동에 충정사당 존엄하니

白冶將軍墓域精

백야 장군 묘역은 수연 정화 정결하다

天一臺言韋觀節

천일대는 위관선생 충절을 증언하니

河宮殿曰國媛清

하궁전은 공주님의 청궁을 일컬었네

鳳頭奇岫千年寂

봉두산 기한 외 뿌리 천년 침묵하는데

弓浦溫泉萬世禎

궁포 은천 상서로워 만세에 뻗히리.

【註】○性堂—隱逸 鄭赫臣

○烏隱—孝子 金啓煥

○韋觀—忠節 金商憲

○青蘿—政丞 金克成

○白冶—獨立軍司令官—金佐鎮

# 鰲川景觀

古巒水陣濟羅城

고만수진은 백제 신라 수영채요

永保兵關近世營

영보정 통병관은 근세의 군영이라

天降六鰲龍衛舞

하늘내린 여섯자리 용이 등실 호위하고

地形三島鳳來鳴

지형은 삼도로 봉이 절로 자명이라

可憐都美何須放

가련하다 도미여 어이 추방이련가

最惜田橫不勝情

애처로워 정황장은 차마 못견디여

不夜漁火銀漢作

불야성의 어화는 은하수를 이루고

滿船歸浦發興聲

만선귀포 흥타령이 저절로 나네

【註】○天降六鰲—신선이 사는 여섯자리 같은 섬。

○地形三島—여섯섬중 쌍오도와 미인도가 오천에 있다

○都美—백제민의 순애의 박해 수난자

○田橫—중국 제나라 절의의 장군



## 珠山景色

東里五相位德眞

동요리 오상목은이 위덕이 지실이요

珠濂十八節忠臣

주렴산 십팔대절은 독립충신이라

龜翁隱遯山形甌

귀촌선생은둔지 시루형세요

龍尾雄飛野變津

황용웅비한 야룡리 들이나루터로

寶劍神光將帥跡

보검신광은 장군의 자취가 연역

篁城勝閥姓任全

황성의 홀룡문벌 성씨저체 입씨라

勒田景色玲瓏自

능전 경색은 영릉스런 대자연

柳谷蒼新太極春

유곡 새로워 태극화창 춘색이라。

【註】

○ 五相—彝齋 白頤正

益齋 李齊賢 贊成事 任子松 梅軒 廉悌臣

政丞 任珣

○ 龜翁—李德溫、

○ 龍尾—野龍里、

○ 寶劍·篁城·柳谷·勒田—洞名

○ 十八志士—李哲源

尹用源

朴齋和

朴台鉉

任文鎬

金亮濟

李哲圭

尹起鎬

李性秀

李成圭

尹用源

李觀圭

李莊圭

李恒圭

申道休

李鳳圭

朴性夏

尹天榮

# 聖住寺址

聖住山間聖住生

성주사층에 랑혜화상 성인이 머무르고

葆光塔外葆光明

보광탑은 무렵구사 보광 밝히였네

佛心極樂新羅史

청정불심 극락천은 신라역사 차연이요

仙法無常百濟聲

참선 선법 무상은 백제 종소리 울리는듯

神筆釋言天地並

신필과 석언은 무궁천지 아우르고

奇文篆刻日辰亨

기문과 전각은 해와 별로 형통이라

時空寂寞靈難及

유유시공 적막아득 영각 못미쳐

非夢丁寧感覺醒

꿈이 아닌 정녕 현실 느껴 깨달아

乙亥三月下澣 鳳凰山窓

松園 金 在 燮



非賣品

# 烏南八景

《附旧保寧八景·新保寧十景賦》

一九九五年(乙亥) 九月 日

發行處 大川文化院

發行人 院長 尹源錫

印刷 大川明文堂印刷社

電話(〇四五二)九三五—二八五〇

三二—五四〇〇

☞ 이 冊은 國·市費 및 自體資金으로 製作함.



